



정권 재창출 '악역' 자처한 양정철

10



韓 가계빚 규모·증가 속도 세계 최고

14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미션



- <글 쓰는 순서>
1. 탄소중립 2050
 2. 'E' 없이 인류의 미래 없다
 3. 기업특명 '넷 제로'
 4. 뉴노멀 탄소경영 ①IT·전자
 5. 뉴노멀 탄소경영 ②자동차
 6. 뉴노멀 탄소경영 ③에너지
 7. 뉴노멀 탄소경영 ④금융
 8. 뉴노멀 탄소경영 ⑤유통
 9. 미래 도시를 찾아서
 10. 韓 탄소중립, 어디까지 왔나
 11. 첫발 댄 '탄소발자국 지우기'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라.”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미션이 주어졌다. 지구온난화를 멈춰 기후위기가 불러올 재앙을 피하고, 우리가 누린 지구로부터의 혜택을 후손들에게도 물려줘야 한다는 절박한 공감대가 강해지고 있다. 작년 한 해, 지구의 온실가스는 약 5% 줄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때문이다. 전 세계 온실가스 한 해 배출량은 약 510억 톤. 우리는 이 가운데 고작 5%를 줄이는 데 엄청난 대가를 치렀다. 400만 명 가까이가 코로나19에 감염돼 목숨을 잃었고, 수천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하지만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을 제로(0)로 하지 않으면 이보다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할지도 모른다.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후위기를 계속 방지할 것인지, 해법을 마련해 후세에 영원한 삶의 터전을 물려줄 것인지 결단의 순간이 왔다.

인류가 사는 별, 지구는 지금 앓고 있다. 바로 우리, 인류 때문이다. 먹고, 마시고, 숨 쉬는 인류의 모든 활동이 지구를 아프게 한다. 이대로 가다간 우리 후세는 그 어떤 기성세대가 겪어보지 못한 기후 재앙에 직면할 것이라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로 파리기후변화협약 채택 6주년을 맞이하면서 세계 곳곳에서 지구를 지키기 위한 탄소중립 움직임이 빠르게 구체화하고 있다. 작년 말, 온실가스를 65% 이상 배출하고, 세계 경제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들이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 제로' 달성을 약속했다. ▶관련기사 4~7면

하지만 주요 기후지표는 계속 악화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한때 탄소 배출량이 줄기도 했지만, 이산화탄소 수치는 여전히 사상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 지난 10년간 지구 온도는 측정 이후 가장 더웠고, 10월의 북극해 얼음은 사상 최저치였다. 지구의 종말을 방불케 하는 초대형 산불, 홍수, 가뭄, 폭풍은 갈수록 '뉴노멀(새로운 정상)'이 되어가고 있다. 지구상의 사막 면적은 늘어나고, 바다는 플라스틱 쓰레기로 질식할 지경이다. 과학자들은 “지금부터 2030년까지 인류가 화석연료를 매년 6%씩 줄이지 않으면 상황은 더 악화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코로나19 팬데믹에서의 회복은 인류에 가운 일인 반면에 큰 과제를 남긴다. 기후위기를 막으면서 지구 환경을 개선하고, 경제를 재건하고, 인류의 미

래를 지속 가능케 해야 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를 퇴치하느라 전 세계가 새로운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팔을 걷어붙였듯이 기후위기 대응에도 현실적인 노력과 의지가 필요하다.

국제연합(유엔·UN)은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해 인류가 해야 할 세 가지를 제시한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위한 진정한 글로벌 연합을 구축하고 △글로벌 금융을 파리기후변화협약,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연계해야 하며 △이미 기후변화의 영향을 심각하게 받고 있는 이들을 돕기 위한 적응과 회복력에 대한 돌봄과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 집 마련과 생계 유지, 자녀 교육에 급급하고, 당장 내일의 일자리가 불안한 우리에겐 막연한 탁상공론처럼 들릴 수 있다. 하지만 우리와 다음 세대가 살아갈 미래를 위해선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방식을 찾아내야 한다.

이투데이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한다’는 정부의 비전과 발맞춰 ‘탄소발자국 지우기’ 대장정에 나선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내외 상황을 점검하고, 장기적인 실현 로드맵을 제시한다. 아울러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와 연대한 ‘탄소발자국 지우기·All Together, For Tomorrow 2050’ 캠페인을 통해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 의식 제고와 일상 속 실천을 독려한다. 아무것도 바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아직 늦지 않았다. 배수경 기자 sue6870@

세대교체·시대교체·수평 리더십 ‘이준석發 정치혁명’

‘36세 0선’ 제1 야당대표 당선이 던진 ‘변화’
 공정 앞세운 2030 호응, 대선 게임체인저 부상

36세 0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선출은 정치 혁명의 예고편이다. 기성 정치에 대한 분노의 표출이자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감의 표현이다. ‘이준석 현상’이 정치권에 던진 메시지는 분명하다. 대대적인 변화다. 86세대가 주축인 정치권 세대교체와 게임 체인저로 등장한 2030 중심의 시대교체, 수직적인 리더십의 수평적 리더십으로의 전환 등 세 가지로 압축된다. 이 같은 흐름은 조직 중심의 기존 대선판도도 크게 흔들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8·9면

세대교체 바람은 이미 시작됐다. 이대표는 MZ(밀레니얼+Z)세대다. 사법 행정부 경험은 물론 금배지 한 번 단 적 없는 0선이다. 30대가 제1야당 대표가 된 것은 우리 정치사에서 유례가 없는 사건

이다. 0선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당선에 못지않은 정치혁명이다. 세대교체로 신물나는 정치를 바꾸라는 국민의 요구다.

지난 20여 년 우리 정치를 주도해온 건 운동권 86세대였다. 현재도 주축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대표와 이인영 통일부 장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우상호 전 서울시장 후보 등이 대표적이다. 이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는 서른두 살, 송 대표와는 스물두 살 차이다. 세대교체는 정치권 물갈이의 동의어라는 점에서 도덕성 우위라는 자산을 잃고 기득권층이 된 86세대는 기로에 서게 됐다. 조국사태를 겪으며 불공정과 내로남불의 표적이 된 만큼 향후 입지는 더 흔들릴 수밖에 없다.

시대교체는 또 다른 화두다. 2030세대가 정치권의 게임체인저로 등장했다. 공정과 정의는 그들을 묶는 상징적 화두다. 진보와 보수 이념과는 다른 그들만의 이념이다. 정치 방관자였던 그들을 정치 주체로 부른 건 사회의 불공정과 부정에 대한 분노였다. 공정과 경쟁, 공감을 내세운 이준석 대표에게 열광한 이유다. 50대 이상이 좌지우지했던 총선과 대선은 이제 2030세대의 선택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4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압도적인 표를 몰아준 건 그 서막이었다.

정치문화의 급변도 불가피해졌다. 정치문화의 요체는 리더십이다. 지난 수십년간 우리 정치를 지배해온 건 장유유서와 위계질서를 앞세운 수직적 리더십이

었다. 청와대 한마디에 의원들은 거수기로 전락했다. 당명에 반기를 들면 공천을 받을 수 없었다. 정치생명을 건 도박이었다. 당론이 지배하는 우리정치의 현주소다. 그러니 여야 협상이 될 리 만무하다. 대결정치는 권위주의의 산물이었다. 이대표 당선으로 이런 구태는 더 이상 발붙이기 어렵게 됐다. 당선 자체가 장유유서 문화의 붕괴를 의미한다. 백팩에 따를이를 탄 첫 출근에 개혁의지가 고스란히 담겼다. 이대표가 예고한 토론배틀을 통한 대변인단 인선은 대표의 낙점으로 끝인 기존 인사에도 변화를 예고한다. 상명하달이 아닌 소통과 공감을 통한 수평적 리더십이 대세로 자리 잡을 날이 머지않았다.

대선판도 예외일 수 없다. 0선 이준석은 조직이 없다. 그의 무기는 소신과 패

기, 소통이다. 그런 그의 당선은 내년 대선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돈과 조직 선거가 통하지 않을 수 있다. 시대 화두를 선점하고 국민과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하는 사람이 절대 유리할 수 있다는 의미다. 게다가 정치 불신은 하늘을 찌른다. 정치 경력이 그다지 강점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현재 여야 대선주자 지지도 1위를 달리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0선이다.

물론 이준석 대표의 성공을 담보할 수 없다. 정치 경험 부족으로 시행착오를 거듭하다 실패할 수도 있다. 설령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해도 정치권에 부는 변화의 바람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정치혁명은 이미 시작됐다.

이재창 오프라인뉴스룸 에디터@leejc

“韓, 글로벌 백신허브 역량 충분히 갖췄다”

文대통령 ‘G7 백신외교’

코백스 AMC 2억 달러 지원 등
개발도상국 백신 지원 계획 밝혀
AZ CEO 만나 지속 협력 당부
스가 日총리와 1분간 짧은 대화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도 ‘백신 외교’를 이어갔다. G7 초청은 한국이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주요국 반열에 올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13일 막을 내린 G7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EU와 영국 등 G7 정상들을 만나 한국의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 구축의 필요성을 설명해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문 대통령은 “백신 개발에 대한 유럽의 선도적 능력과 한국의 우수한 생산 능력을 결합해 백신 생산 거점을 확대해야 한다”며 “한국은 글로벌 백신 허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백신의 공급 확대를 위해 한국이 보유한 대량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 역량을 기반으로 백신 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미 정상회담에서 백신 생산



문재인(앞줄 오른쪽 두 번째)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영국 콘월 카비스베이 양자회담장 앞에서 G7 정상회의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콘월(영국)/연합뉴스

허브 역할에 대해 합의했지만, 미국뿐만 아니라 여타 G7 국가들과도 백신 파트너십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전 세계에서 한국을 예의 주시하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한국의 저력을 보였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백신 지원 계획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방역을 넘어 접종 확대가 중요하다”며 “개발도상국에 원활하고 공평하게 백신을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한국은 코백스 AMC에 올해

1억 달러를 공여한 데 이어 내년에도 비슷한 규모의 현금이나 현물을 추가로 제공하며 기여할 계획을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아스트라제네카 최고경영자와 만나서도 코로나19 백신의 안정적 생산 및 공급의 지속적 협력을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더 원활한 세계 백신 공급을 위해 한국의 생산 능력을 활용해 달라”며 백신 생산 허브 역할을 재확인했다.

청와대는 “보건 등과 관련 국제적 대응

에 있어 K방역 경험을 공유하고, 디지털 경쟁력을 기반으로 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바이오 역량을 통해 백신공급 확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해 미국으로 시작된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의 확대를 모색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정상회에서 문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만찬장에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를 만나 짧게 인사하며 1분 정도 대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유미 기자 jscs508@



EPA연합뉴스

우주여행 티켓 313억에 낙찰

제프 베이조스(사진) 아마존 최고경영자(CEO)가 설립한 민간 우주탐사 기업 블루오리진이 자사의 첫 유인 우주 관광 티켓을 두고 경매를 진행한 결과, 310억 원을 웃도는 가격에 낙찰됐다. 경매 낙찰자는 베이조스와 함께 다음 달 20일 우주 여행을 하게 된다.

12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 CNBC 방송에 따르면 블루오리진은 자사의 첫 우주 관광 로켓

경매 시작 7분 만에 마감 내달 베이조스와 우주비행

‘뉴 셰퍼드’에 탑승해 우주여행을 할 수 있는 좌석을 두고 경매 이벤트를 열었다.

경매에는 159개국에서 약 7600명이 참여했다. 480만 달러에서부터 시작, 1000만 달러까지 치솟는데 2분이 채 걸리지 않고 이후 2000만 달러까지 1분 10초가 걸렸다. 최종적으로 7분 만에 2800만 달러(약 313억 원)에 낙찰됐다. 낙찰자의 이름은 수수 후에 공표할 예정이다. 블루오리진은 아폴로 11호 달착륙 52주년인 다음 달 20일 유인 우주선 뉴 셰퍼드를 미국 텍사스주에서 발사한다.

변효선 기자 hsbyun@

G7, 글로벌 인프라 파트너십 구축 ‘中 일대일로’ 맞대응

美, 다자외교 복귀 ‘中전제’ 총력 개도국 투명한 인프라 지원 등 각국 정상들 ‘B3W’ 구상 합의

조 바이든 정권 출범 이후 다자외교 무대에 복귀한 미국이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에 대한 견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백악관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의 이틀째인 이날 정상들이 중국의 현대판 실크로드인 ‘일대일로’에 대항할 새로운 인프라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제창한 새로운 이니셔티브는 ‘세계를 위한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for the World-B3W)’이라는 이름이 붙었으며 개발도상국과 신흥국들의 인프라 개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구상이다. 백악관은 “40조 달러(약 4경4660조 원) 규모의

개도국 인프라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G7을 포함한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이 주도하는 것”이라면서 “높은 기준의 가치를 향한 투명한 인프라 협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G7은 물론이고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국가들과 더욱 강력하고 전략적인 협력을 형성하고 조율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G7 정상들은 새 B3W 구상에서 △기후 변화 △건강 및 의료 보장 △디지털기술 △성 평등을 중점 분야로 삼기로 합의했

다. 전력, 의료, 통신, 교육 등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보인다. G7의 이념에 따라 투명성과 인권, 환경에의 대응 등을 고려해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구체적 내용은 13일 발표될 공동 선언에 담길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B3W는 동맹국과 협력을 통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3년부터 추진해온 중국과 중앙아시아-유럽을 잇는 광역경제권 구상 ‘일대일로’에 맞서겠다는 것이다.

다만 강경일변도로 나아가는 미국과는 달리 유럽은 대중 강경책에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는 등 온도차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변효선 기자 hsbyun@



통계청
Statistics Korea



2020
census 경제총조사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실시공고

통계법 제5조의3 및 통계법 시행령 제2조의2, 기획재정부령 경제총조사 규칙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 전반의 구조 파악을 위한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함을 공고합니다.

조사기준 시점

• 2020년 12월 31일

조사실시 기간

• 2021년 6월 14일 ~ 7월 30일
인터넷 조사 : 2021년 6월 14일 ~ 7월 9일(연장 가능)

조사방법

• 대면 조사 또는 비대면 조사

- 대면 조사 :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하여 조사
- 비대면 조사 : 인터넷* (컴퓨터, 모바일), 전자우편, 팩스 등을 통해 조사

* 경제총조사 홈페이지(www.ecensus.go.kr)에 접속하여 조사표를 직접 입력

조사대상

• 조사기준 시점 현재 우리나라에서 산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사업체

조사항목

• 공통항목(13개) : 사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운영장소, 창설연월, 사업자등록번호, 조직형태, 사업의 종류, 종사자 수 및 연간 급여액, 영업 기간, 사업실적, 유·무형자산

• 특성항목(24개) : 연간 제품별 출하액, 일일 평균 영업 시간, 배달판매 여부, 사업체 건물 연면적 등 업종별로 최대 9개 항목

2021년 6월 14일

통 계 청 장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Only Fact!

진실의 눈으로 세상을 읽고 내일을 예측하며,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젊은 언론 이투데이미디어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2010년 10월 4일 일간 창간



고품격 시니어 매거진
브라보마이라이프
2015년 1월 1일 창간

창간 이래 차별화된 기획기사와 심층보도로 독자들에게 인정받아 매년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왔습니다. 앞으로도 '독자가 찾는 가치 있는 뉴스' 생산을 통해 멈추지 않는 성장을 이어가겠습니다.

대표전화 02)799-2600 구독문의 02)799-2684

티빙·웨이브·지니, 오리지널 콘텐츠 확보전 ‘후끈’

티빙 모회사 CJ ENM 5년간 5조, 네이버와 공동전선
SKT 웨이브 1조 승부수...KT “손실 감수 지원 계속”

#최고 시청률 16%를 기록한 SBS 방영 드라마 ‘모범택시’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중 웨이브에서만 볼 수 있는 콘텐츠다. 웨이브는 SBS와 공동 투자해 ‘모범택시’를 제작했고, 독점 판권도 사들였다. ‘모범택시’의 인기는 곧 웨이브의 유료 가입자 증가로 이어졌다. 올해 웨이브 오리지널 콘텐츠 중 가장 높은 시청 시간을 기록한 데 더해 신규 유료 가입자가 가장 많이 시청하는 콘텐츠로 뽑혔다. 방영 2주차 만에 시청 시간이 3배 이상 늘어나는 성과도 냈다.

OTT 시장이 ‘오리지널 콘텐츠’ 경쟁으로 뜨겁다. 유료가입자 확보를 위해 이동통신 자회사를 포함해 각사마다 콘텐츠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또 미디어 콘텐츠 시장에서 업체 간 합종연횡이 가속화하고 있다. 단순 제휴를 넘어 지분 인수, 인수합병(M&A) 등으로 시장을 재편하려는 의지도 뚜렷한 모습이다. 다만 이러한 과감한 투자 결정과 별개로 열악한 수익성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수천 억에서 조 단위 투자로 승부수 = 13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국내 OTT 업체들은 오리지널 콘텐츠에 승부수를 띄우며 주도권 잡기에 한창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계기로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경쟁이 격화한 결과다. 한국수출입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OTT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18% 증가한 1100억 달러 규모다.

최근 가장 공격적인 투자를 예고한 곳은 티빙이다. 티빙의 모회사인 CJ ENM은 5년간 5조 원을 콘텐츠 제작에 투입하고, 올해만 8000억 원을 쓸 것이라고 밝혔다. 티빙은 2023년까지 유료가입자를 800만 명 확보할 계획이다.

SK텔레콤(SKT)의 자회사 콘텐츠웨이브는 올해 3월 발표에서 5년간 1조 원을 콘텐츠에 투자한다고 밝혔다. 2019년 출범 당시 2023년까지 3000억 원의 제작 투자를 하겠다고 밝힌 데서 규모를 확 키웠다. 또 KT는 콘텐츠 제작 전문법인 KT스튜디오지니가 2023년까지 3년간 최소 4000억 원 이상을 투자한다. 원천 지식재산권(IP) 1000개 이상을 보유하겠다고도 밝혔다.

◇합종연횡 넘어 M&A로 시장 재편 = 미디어 콘텐츠 업계는 단순 제휴를 넘어 지분 인수, 인수합병(M&A) 등으로 시장을 재편하려는 의지도 강하다. 네이버는 CJ ENM의 OTT 자회사 티빙의 지분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시가나 규모 등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논의는 진행 중이다. 지난해 10월 지분 맞교환을 한 네이버와 CJ가 서비스 제휴에 이어 본격적으로 힘을 합친다는 의미다. 지난해 10월 네이버는 CJ ENM, 스튜디오드래곤과 각각 1500억 원, CJ대한통운과 3000억 원 규모의 지분을 교환했다.

‘콘텐츠’를 두고 경쟁하는 사업자들끼리 힘을 합치는 모습은 인터넷TV(IPTV) 업계에서도 나타난다. 올해 3월 SK브로드밴드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콘텐츠 사업 파트너십을 맺고, 카카오TV의 오리지널 콘텐츠를 B tv와 ‘채널S’에서 독점 공개하기로 했다. 카카오TV의 오리지널 콘텐츠가 선공개된 뒤 B tv에 편성되는 방식이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합종연횡이 활발하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은 영화 제작사 MGM 인수에 나섰다. 이번 인수가 성사되면 아마존의 OTT ‘프라임 비디오’ 콘텐츠를 대폭 강화할 수 있다.

‘007 제임스 본드’, ‘록키’ 등 MGM의 대표 콘텐츠들이 프라임비디오에서 상영되는 셈이다. 아마존의 MGM 인수는 코로나 19 이후 영화들이 극장 개봉이 아닌 OTT로 공개되는 현상과 무관치 않다. ‘승리호’, ‘낙원의 밤’ 등 대작 K콘텐츠들도 극장 개봉 대신 넷플릭스행을 택했다. 신작들이 OTT에서 공개되면서 경쟁력 있는 콘텐츠 수급이 곧 OTT의 성패를 좌우하게 된 것이다.

◇당분간 적자 불가피 = 오리지널 콘텐츠 투자 경쟁이 심화하면서 풀어야 할 과제도 있다. 수익성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넷플릭스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같이 급성장한 반면 토종 OTT 업체들은 적자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웨이브를 운영하는 콘텐츠웨이브의 영업손실은 작년 169억 원으로 전년 대비 30억 원가량 늘었고, 순손실 규모도 전년 212억 원에서 311억 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10월 CJ ENM에서 독립한 티빙은 4분기에 영업손실 61억 원, 순손실 45억 원을 냈다.

OTT 업계는 오리지널 콘텐츠 경쟁으로 당분간 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하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업체 콘텐츠 투자 계획 ① 오리지널 콘텐츠 투자 ② 비교

 신서유기 스페셜 '스프링캠프'	 '모범택시'	 '컬러러쉬(스토리워즈 제작)'
 티빙	 웨이브	 KT 스튜디오지니
1 올해만 8000억 원 투자 2 모회사 CJ ENM, 2025년까지 5조 원 콘텐츠 제작에 투입	1 2025년까지 1조 원 투자 2 올해만 800억 원 투입	1 2023년까지 최소 4000억 원 투자 2 2023년까지 원천 지식재산권(P) 1000개 이상 보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넷플릭스도 재무 건전성을 우려하던 때가 있었다”며 “현재는 국내 OTT 업계도 수익성보다 투자에 집중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구현모 KT 대표도 스

튜디오지니 간담회 당시 투자에 관해 “설사 손실이 나도 얼마만큼 견딜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데, (KT그룹이) 지원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고객 이탈 케이블TV도 경쟁 가세

IPTV·OTT 성장에 점유율 하락
LG헬로비전, 연 400억 규모 투자
SK브로드, 지역전문 채널 개국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시장의 위세와 인터넷TV(IPTV) 성장에 케이블TV가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케이블TV 사업자(SO)의 가입자는 지속 감소하는 추세다. 케이블TV 업체들은 반격을 위해 오리지널 콘텐츠 투자에 팔을 걷어붙였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의 ‘2020년 하반기 가입자 수 조사·검증 및 시장점유율 산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유료방송 가입자는 IPTV 1825만 4930명(52.79%), 케이블TV(SO·지역유선방송) 1323만 2850명(38.26%), 위성방송 309만 5549명(8.95%) 순이다. 2017년 IPTV 가입자 수가 SO 가입자 수를 앞선 뒤 IPTV는 지속 증가했지만, SO는 감소 추세가 이어졌고 IPTV와 SO 간 가입자 격차는 지난해 말 기준 약 541만 명으로 나타났다.

OTT 시장은 갈수록 더 매섭게 성장하고 있다. 컨설팅 업체 PwC의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산업 전망 2020~2024’에 따르면 지난해 OTT 시장은 전년 대비 26% 성장했다. 이러한 기세로 2024년에는 86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지난

해 11월 발간한 ‘VOD와 OTT 이용 행태 추이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응답자의 52%가 OTT를 이용하는 등 국내 이용자들도 급증하는 추세다.

OTT의 성장에 유료방송 시장은 쪼그라들었고, 그마저도 IPTV가 장악하면서 케이블TV 시장에도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케이블 업체들의 콘텐츠 투자 강화 움직임이 나타나는 배경이다.

SO 사업자 LG헬로비전은 이달 2일 연간 400억 원을 콘텐츠 제작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LG헬로비전 출범 이후 최대 규모다. 신규 콘텐츠에는 강호동, 김수로, 송은이, 이수근 등 스타를 대거 출연시키고, CJ ENM 출신 박현우 총괄 PD(CP)도 영입했다. LG헬로비전은 LG유플러스의 OTT인 U+tv모바일과 미디어로그의 더라이프 채널에 콘텐츠를 선보이는 것 외에 해외 채널 사업자나 타 OTT 사업자를 통한 콘텐츠 수출도 모색한다.

올해 4월 SK브로드밴드는 미디어에스의 종합 엔터테인먼트 채널 ‘채널S’와 지역전문 채널S 동네방네’를 개국하며 독점 콘텐츠 편성에 힘을 쏟았다. 특히 채널S 전체 프로그램 중 70%를 다른 TV 채널에선 볼 수 없는 독점 콘텐츠로 편성했다. SK브로드밴드는 SM C&C와 공동으로 기획·제작한 오리지널 콘텐츠를 SK브로드밴드의 미디어 플랫폼에서 독점 공급하는 것도 계획하고 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

흡연은 코로나19

감염 가능성과 사망 위험을 높입니다.



- ✓ 흡연 시 마스크를 벗고 손가락을 입에 가까이 가져가기 때문에 감염 가능성이 높습니다.
- ✓ 니코틴 성분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결합하는 몸 속 수용체(ACE2)를 증가시켜 감염 가능성이 높습니다.
- ✓ 흡연은 심혈관 및 호흡기 질환, 암 같은 질병을 야기하며 코로나19 감염 시 사망 위험이 높습니다.

금연치료기관

www.nhis.or.kr 접속
▶ 금연치료 의료기관 찾기 클릭

코로나19는 마스크로 셀프백신! 금연은 금연치료상담으로 헬프백신!

지원대상 |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

지원내용 |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니코틴 보조제 구입비용 지원

인센티브 | 금연치료 프로그램 이수 시 1~2회 본인부담금 환급

탄소·플라스틱엔 죄가 없다

탄소는 정말 우리의 적인가

♣선영 씨는 집에 탄산수를 상자째 주문해서 늘 쟁어 놓고 마신다. 느끼한 식사를 하거나 입안이 텅텅할 때 시원한 탄산수를 한 모금 마시면 꼭 특는 알싸한 맛과 함께 기분도 상쾌해지는 것 같아서다. 항상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 콜라나 사이다 같은 가당 탄산음료 대신 탄산수를 마시면 몸에 대한 죄책감도 덜어지는 것 같다.

♣선영 씨의 회사 동료 준호 씨는 ‘1일 2콜라’를 한다. 매일 출근길에 회사 앞 편의점에서 ‘1+1’ 행사 제품을 사 들고 출근한다. 준호 씨의 하루 일과는 콜라 캔 따는 소리와 함께 시작된다. 이럴 때부터 마시던 콜라는 어론이 되어서도 끊을 수 없는 습관이 됐다.

선영 씨와 준호 씨처럼 우리의 일상에서 탄산수나 탄산음료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친근한 존재가 됐다. 특별한 날 마시는 샴페인과 스파클링 와인, 심지어 과음한 다음날 마시는 숙취 해소제로 탄산이 들어간 제품을 찾는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라면 우리도 때때로 일 몸 안에 이산화탄소를 주입하는 것이다. 탄산음료를 마시는 사람 중에 이 사실을 의식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사실, 이산화탄소는 지구 상의 생물이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존재다. 우선, 인간에게는 몸 속에 흐르는 혈액의 수소이온농도지수(pH)를 일정하게함으로써 호흡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한다. 인간을 비롯한 동물은 대사과정에서 생성한 이산화탄소를 호흡으로 배출하고, 산소를 들이마신다. 혈액에 탄산이 너무 많아지면 이산화탄소로 분해되고, 호흡하면서 몸 밖으로 배출됨으로써 탄산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이산화탄소, 물·햇빛과 함께 광합성 이루는 생태계 필수요소 산업혁명 이후 무분별한 화석연료 사용이 ‘탄소 균형’ 깨뜨려 폭발적 인구 증가에 따른 환경 파괴 ‘지구온난화’ 부메랑으로

있는 것이다. 또 과도한 탄산수소이온은 콩팥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된다. 자연에는 어떤가. 동식물이 죽으면 그 안에 내재해 있던 유기탄소가 땅속에 스며들어 탄소의 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땅속에 매장된 유기탄소는 수 억 년 동안 지속적으로 압력과 열을 받아 화석연료가 된다. 석탄과 석유, 천연가스는 이렇게 생성된 것이다. 산업화 이후 인류는 땅속의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성장해 오늘에 이르렀다.

프랑스 파리 피에르 마리퀴리 대학의 화학자 자크 아무르는 “생명체는 탄소에서만 나올 수 있다. 탄소는 인간에게 생명을 주고 식량을 제공한다”며 “이산화탄소가 없으면 지구 상에서 어떤 종류의 식량도 손에 넣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귀중한 이산화탄소가 인류에 심각한 위협이 된 건 바로 우리 인류 때문이다. 인류는 산업화 이후 땅속에 묻혀 있던 화석연료를 과도하게 추출해 사용함으로써 탄소의 균형을 깨뜨렸고, 이로 인해 지구가 달아오르면서 거대 온실이 되어 버렸다. 이제 그 균형을 맞추지 않으면 인류는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것이다. 화석연료를 사용하면서 대기로 방출되는 이산화탄소의 배출 속도는 자연에서 이산화탄소를 다시 지하로 되돌려 보내는 지질학적 과정보다 10배 이상 빠른 것으로 알려졌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에 따르면 인류는 매년 약 510억 톤의 온실가스를 대기로 내뿜는다. 온실가스는 이산화

탄소와 메탄,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아산화질소, 육불화황 등 6가지로 나뉜다. 이 가운데 분자에 탄소를 포함한 이산화탄소와 메탄,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가 주요 온실가스로 분류된다.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 분야는 에너지 생산(35%), 농업(24%), 산업(21%), 교통(14%), 건물(6%) 등의 순이다.

지구온난화의 첫 번째 원인은 폭발적인 인구 증가다. 인류와 지구의 미래를 연구하는 세계적인 비영리 기구 로마클럽(The Club of Rome)은 석유파동이 일어나기 직전인 1972년 ‘성장의 한계(The Limits to Growth)’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암울한 인류의 미래를 점쳤다. 경제와 인구 증가가 환경 오염을 일으키고, 지구의 자원을 고갈시켜 2070년쯤이면 경제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내용이다.

이 예언은 발표된 지 약 50년이 된 지금 여전히 증명됐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산업혁명 이전에 비해 40%나 증가했고, 세계 평균기온은 1880년 이후 1도나 상승했다.

영국 리즈대학의 생태학 경제학자인 줄리아 스타인버거는 “인류는 지금 50년 전 로마 클럽이 내놓은 보고서 내용의 텔레마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폭발적인 인구 증가와 화석연료를 주 에너지원으로 하는 인간의 활동에 의한 지구온난화가 다시 인류의 존재를 위협하게 된 셈이다.

국제연합(유엔)에 따르면 세계 인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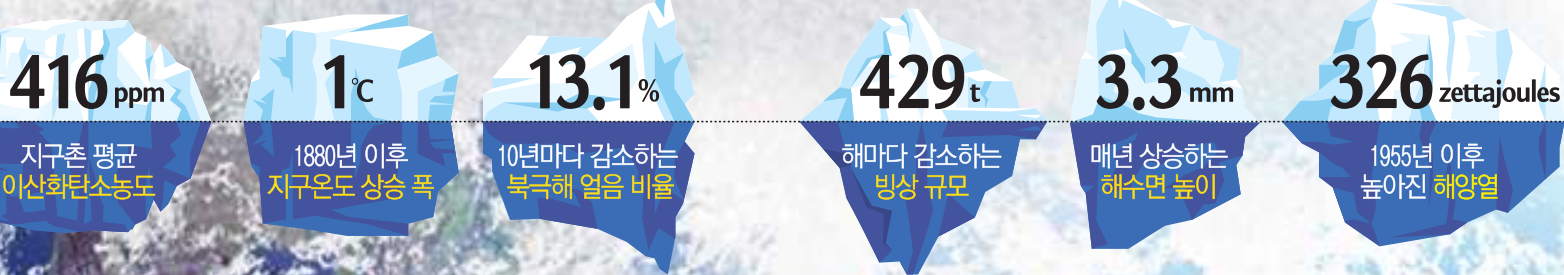
2100년이면 110억 명에 이르며, 이에 따라 2100년까지 식품과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량은 3분의 2가 증가할 전망이다.

환경 문제에 앞장서고 있는 빌 게이츠마이크로소프트(MS) 공동창업자는 “기후위기가 불러올 최악의 상황을 피하려면 인류는 온실가스 배출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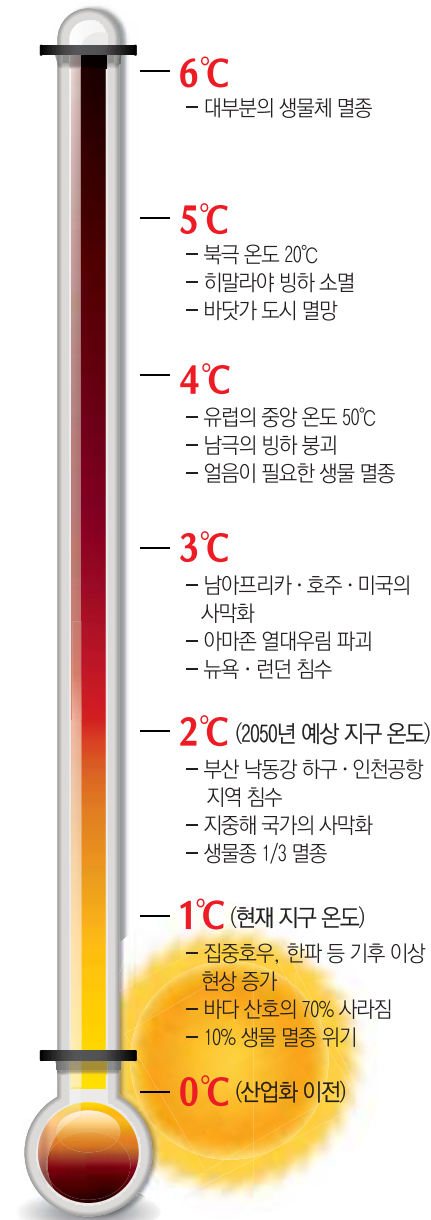
배수경 기자 sue6870@

숫자로 보는 기후위기

(2021년 3월 기준)



온도 상승에 따른 기후 변화 시나리오



※ 출처: 마크 라이너스 '6도의 멸종'

‘탄소중립’ 왜 2050년인가?

몰디브 수몰 위기·대만 최악의 가뭄, 곳곳서 이상 기후 ‘경고등’ 온도 상승 못 막으면 ‘설국열차’ 같은 암울한 미래 현실 될 수도

2030년도, 2040년도 아닌, 왜 꼭 2050년이어야 하는가. 국제 사회는 탄소중립 실현 시점을 일제히 2050년으로 잡았다. 이는 지구 기후시스템이 버틸 수 있는 한계의 마지노선을 2050년으로 봤기 때문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에 따르면 지구 온도는 산업혁명 이전보다 약 1도 상승했는데, 2050년경이면 인간 활동에 의한 인위적 온난화로 지구 온도가 1.5도 상승할 전망이다.

온도 상승을 1.5도 이하로 억제하면 그나마 기후변화로 인한 위협을 크게 줄일 수 있지만, 2도가 넘는 시엔 생태계와 인간 사회는 돌이킬 수 없는 위험에 처한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자연 환경과 인류의 생활에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의 다양한 영향과 피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인도양의 외딴섬 몰디브. 1000여 개의 섬과 백사장 해변, 아름다운 산호초와 다양한 해양 생물들이 살아 숨쉬는 몰디브는 전 세계에서 지상낙원으로 꼽힌다. 하지만 이 지상낙원이 80년 후 지구 상에서 영원히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몰디브는 국토의 80%가 해발 1.5m에 위치해 있는데, 기후변화의 여

텔 수요가 왕성한 상황에서 대만의 반도체 공급난은 세계의 반도체 난을 더욱 가중시켰다. 바로 지금 내가 구입하려는 PC와 스마트폰, 자동차 등 반도체가 들어가는 모든 제품의 출하가 불투명해진 이유다.

기술 혁신으로 우리의 삶이 편리하고 풍요로워졌지만, 사실은 늘어나는 탄소로 인해 우리가 그것들을 누릴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탄소중립에 실패하면 지구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국제사회는 탄소중립과 함께 지구의 열을 식히려는 다양한 연구를 병행하고 있다. 화석연료 사용 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모으는 ‘탄소포집’과 함께 ‘인공 냉각제’를 살포하는 것이 가장 잘 알려진 방법이다.

그 극단적인 사례가 바로 영화 ‘설국열차’다. “지구온난화로 달궈진 지구를 식히기 위해 인공냉각제를 살포했다가 그 부작용으로 공중 열어붙은 지구. 살아남은 사람들은 온통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세상에서 열차 한 대에 의지해 같은 궤도를 끌고이 돌며 생명을 부지한다.” 영화 ‘설국열차’가 열차 내 1등 칸과 2등 칸 간 불균형한 계급 사회에 초점을 맞췄다면, 현실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지구가 그런 지경까지 가도록 내버려둔 인류의 무지와 방관이다. 이 모든 게 인류가 살아가면서 만들어내는 온실가스가 지구를 달구면서 벌어진 일이다. 매년 배출되는 510억 톤의 온실가스를 ‘제로’로 만들어 지구온난화를 막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배수경 기자 sue6870@

‘지구 파괴 주범’은 바로 우리

인류 생존 위협하는 ‘플라스틱 팬데믹’

생산하는 데 5초, 사용하는 데 5분. 하지만 분해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500년. 플라스틱이 그렇다. 길게는 150년, 짧게는 6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플라스틱은 이미 우리의 일상 속에 깊게 자리 잡고 있다. 가볍고 튼튼하면서 어떤 모양이든 자유자재로 변형이 가능한 플라스틱은 ‘20세기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라는 찬사를 받을 정도로 쓰임새가 다양하다. 하지만 최근 생태계 파괴와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몰치덩이’로 전락하고 말았다.

플라스틱은 본래 ‘아무 모양이나 만들 수 있다’는 뜻의 그리스어 ‘플라스티코스(plastikos)’에서 유래했다. 어떤처럼 플라스틱은 어떤 모양도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런 장점을 내세워 플라스틱은 가구, 가전, 일상용품뿐 아니라 건축이나 산업용품 등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거의 모든 것에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는 플라스틱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 플라스틱의 가장 큰 문제는 ‘생분해’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플라스틱은 수많은 분자를 인공적으로 결합해 만든 ‘합성고분자화합물’이다. 천연에는 다당류, 단백질 등 분자량이 큰 고분자화합물이 있는데, 플라스틱은 인위적인 합성 과정을 거쳐 생산된 합성고분자화합물에 속한다. 이처럼 인공적으로 탄생한 탄소 배열은 자연계에는 없다. 즉, 보통의 플라스틱은 자연적으로 썩지 않는다는 것이다.

분해되지 않는 플라스틱은 햇빛과 습기를 동반한 환경에서 풍화 과정을 거쳐 잘게 쪼개져 미세하게 변화한다. 버려진 플라스틱은 대개 바다로 유입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 쪼개져 작아진 5mm 미만의 작은 미세플라스틱(미세플라스틱)은 바다거북 등 해양생물이 먹이로 착각해 섭취하게 된다.

미세플라스틱에는 플라스틱 제조 시 첨가되고 수반의 해수로부터 흡착된 다양한 화학물질이 함유돼 있다. 미세플라스틱을 삼킨 해양생물은 장폐해, 섭식행동장애 등 부작용을 겪게 되며,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도 한다.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은 2017년 기준, 해마다 바다에 버려지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950만 톤이며, 이 중 15~31%가 미세플라스틱이라고 밝혔다.

19세기 ‘당구공’ 원료로 개발… 값 싸고 가공 쉬워 ‘최고 발명품’ 찬사

플라스틱의 역사

인류의 생활에 필수품이 된 플라스틱의 시초는 ‘당구공’이었다. 1860년대 미국 상류사회에선 테이블 스포츠인 당구가 유행하고 있었다. 당시 당구공의 원재료는 코끼리 상아였다. 하지만 당구의 인기로 늘어나는 수요에 비해 원료인 상아를 채취할 아프리카 코끼리의 개체 수는 한정돼 있어 수입이 어려워졌다. 이에 당구대 제작회사를 운영하던 미국인 마이클 펠란은 1863년 유와 석탄을 이용해 만든 오일의 인공 합성수지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셀룰로이드는 이후 당구공, 카메라 필름, 주사위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됐다. 셀룰로이드는 현재까지도 탁구공의 원료로 사용된다. 다만 그가 개발한 셀룰로이드는 코끼리의 상아만큼 품질이 좋지 않았고, 공기가 강하게 부딪혔을 때 종종 폭발 사고가 일어나는 등 안전성 문제로 존재했다. 주로 매우 단단한 물질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



바다에 버려진 비닐봉지가 목에 걸린 채 헤엄치는 바다거북.

자연적으로 썩지 않는 플라스틱

2025년까지 쓰레기량 120억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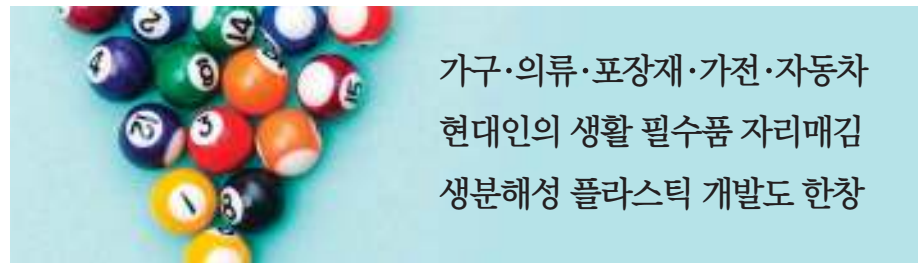
생선·조개로 먹는 미세 플라스틱

1인당 매주 신용카드 한 장 분량

해양생물에 축적된 미세플라스틱은 물고기, 조개류 등을 통해 그대로 인류의 식탁에 올라간다. 2019년 세계자연기금(WWF)이 의뢰하고 호주 뉴캐슬대학교에서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한 사람이 매주 먹는 미세플라스틱의 양은 신용카드 한 장 분량(약 5g) 정도다. 체내에 유입된 미세플라스틱은 우리 몸에서 환경호르몬인 내분비계 교란물질(EDC)을 내보내며, 임신과 출산 등 생식 기능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각종 연구를 통해 나타났다.

그런데도 ‘플라스틱 문명’은 멈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1950년부터 2015년까지 전 세계에서 생산된 플라스틱이 83억 톤에 달하며, 연간 약 3억 톤씩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1950년 200만 톤이었던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2015년 3억2200만 톤으로 무려 160배 이상 늘어났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와 조지아주립대 공동연구팀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생산된 플라스틱(83억 톤) 중 75%인 약 63억 톤이 쓰레기로 배출됐다. 또 플라스틱 쓰레기의 79%인 50억 톤은 매립이나 해양



가구·의류·포장재·가전·자동차
현대인의 생활 필수품 자리매김
생분해성 플라스틱 개발도 한창

지 플라스틱인 ‘셀룰로이드’를 개발했다. 셀룰로이드는 식물 세포막을 이루는 셀룰로스가 원료인 ‘천연 플라스틱’이라는 점에서 석유와 석탄을 이용해 만든 오일의 인공 합성수지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셀룰로이드는 이후 당구공, 카메라 필름, 주사위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됐다. 셀룰로이드는 현재까지도 탁구공의 원료로 사용된다. 다만 그가 개발한 셀룰로이드는 코끼리의 상아만큼 품질이 좋지 않았고, 공기가 강하게 부딪혔을 때 종종 폭발 사고가 일어나는 등 안전성 문제로 존재했다. 주로 매우 단단한 물질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

본격적으로 플라스틱 시대를 연 것은 한 화학자의 연구 결과였다. 1922년 독일 화학자 헤르만 슈타우딩거가 플라스틱이 수천 개의 분자 사슬로 구성된 고분자 화합물이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혀낸 것이다. 이를 계기로 파이프·포장재 등에 쓰이는 폴리염화비닐(PVC, 1926), 비닐봉지에 쓰이는 폴리에틸렌(PE, 1933), 의류 등에 사용되는 나일론(1935), 페트병의 원료인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1941) 등 수많은 플라스틱 변종이 세상에 나왔다. 다양한 플라스틱이 생산되면서 쓰임새는 겹겹이 쌓여 늘어나기 시작했다. 기업으로서 어떤 물건이든 제조성이 뛰어난 플라스틱은 소위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다. 플라스틱은 문구류와 쓰레기봉투, 가전제품, 자동차, 반도체 패키징 등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 대부분에 사용됐다. 특히, PE와 페트(PET) 등으로 만든 플라스틱 일회용품의 사용은 폭발적으로 늘었으며, 현재 우리의 일상에 깊이 자리 잡았다.

유입 등으로 자연환경에 노출돼 있으며, 이런 추세로 간다면 2050년까지 120억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자연환경에 노출된다. 해결책은 없을까. 플라스틱의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는 두 가지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플라스틱 사용 자체를 줄이는 ‘플라스틱 제로’, 자연에서 분해될 수 있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다. 유럽연합(EU)은 2018년 ‘순환 경제’를 위한 유럽의 플라스틱 배출 전략’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유럽에서 발생한 플라스틱 폐기물 중 절반 이상을 재활용한다는 게 핵심이다. 세부 내용을 보면 올해 7월부터 빨대·면봉·접시·봉투 등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을 금지하고, 2023년까지는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수병의 90%를 회수할 예정이다. 생분해성 플라스틱도 주목받고 있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란 자연에 있는 미생물에 의해 물과 이산화탄소 등으로 완전히 분해되는 친환경 플라스틱이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크기는 두 종류로 나뉜다. 하나는 생물체 유래 물질에서 발효 과정을 통해 고분자 단량체를 뽑아낸 뒤 중합해 만드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옥수수나 사탕수수에서 나오는 전분을 발효해 젖산을 만들고 이를 중합해 제조하는 바이오 플라스틱 PLA다. 다른 하나는 석유에서 유래한 물질을 이용하는 방식이 있다. 대표적으로는 석유 기반 생분해 플라스틱 PBAT가 있다.

하지만 현재 시중에 있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특정 조건에서만 생분해가 되거나 실용성이 낮은 폴리락티드이라는 점에서 아직은 ‘반쪽짜리’라는 평가를 받는다. PLA의 경우, ‘섬식 58도가 유지되고 미생물이 풍부한 특수 환경에서만 생분해된다. PBAT 역시 생산원가가 높고 사용기한이 짧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홍수영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일회용 플라스틱 등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영역에서는 줄여야 하고, 줄일 수 없는 영역에서는 재활용을 원활하게 만들어 자원순환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플라스틱 투기가 일어나는 경우엔 생분해 플라스틱을 통해 환경오염의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대환 기자 vishalist@



연도별 폐기물 발생량 추이(하루)

2019년 49만7238톤

2018년 44만6102톤

2017년 42만9531톤

2016년 42만9128톤

2015년 41만8214톤

인천 연수구 인천환경공단 송도 자원회수센터에 압축된 생활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1인당 매일 1.09kg ‘귀차니즘’에 커지는 쓰레기산

분리수거 의무화 30년

국내 하루 쓰레기양 49.7만톤
사업 폐기물 재활용률 높지만
배송·배달로 늘어난 생활쓰레기
분리 안돼 재활용률 59.7% 그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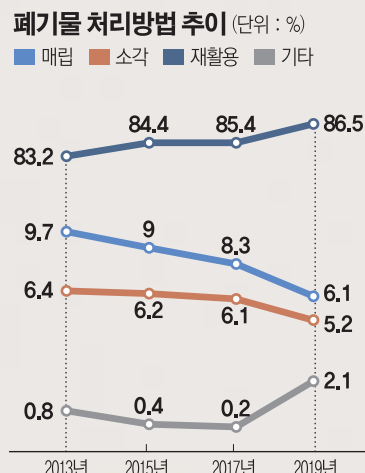
올해 들어 가장 더웠던 지난 8일, 인천 연수구에 있는 인천환경공단 송도사업소 자원회수센터.

갑자기 찾아온 찜통 더위 속에 수십 명의 인부들이 산더미처럼 쌓인 폐기물 분류 대 앞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따금 센터와 바로 면한 서해바다에서 열린 바람이 불어오긴 했지만, 30도를 훨씬 웃도는 폭염 속에서 작업에 열중하는 인부들의 구슬땀을 식혀주진 못했다.

서울에서 자동차로 약 1시간 거리에 있는 이곳은 자원회수센터. 인천 연수구와 중구 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들을 모아 처리하는 사실상 ‘도시의 쓰레기 산’이다. 폐플라스틱, 페스티코폼, 폐비닐, 폐지 등 쓰레기들은 최대한 압축해 산더미다. 최신 통계인 2019년 기준, 국내 전역의 하루 쓰레기 발생량은 49만7238톤이었으며, 이 가운데 인천에서만 3만1015톤(6.2%)이 나왔다. 이 쓰레기들은 분리 작업을 통해 갈 곳이 정해진다. 재활용되지 않으면 모두 매립되거나 소각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의 재활용률은 각각 82.6%, 98.9%, 62.5%로 갈수록 재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가정 등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는 재활용률이 59.7%로 점차 줄어지고 있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데 드는 생활쓰레기 종류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의 폐기물 매립시설은 총 302곳, 이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6억



2인 가구 상연 씨네서 내놓은 일주일간 쓰레기들.

9713만7529㎡다. 앞으로 남은 매립용량은 2억8001만9229㎡, 연 1179만9321톤. 하루 발생하는 쓰레기 49만7238톤 중 매일 2만7679톤의 쓰레기가 매립되는데, 단순 계산으로 연간 매립 쓰레기 양은 1010만2835톤 규모다. 매립용량은 거의 포화 상태인 셈이다.

대체, 가정에서는 얼마만큼의 쓰레기가 발생할까. 한국인의 1인당 하루 쓰레기 발생량은 1.09kg(2019년 기준)으로 집계됐다.

경기도 안양에 사는 2인 맞벌이 가구인

상연 씨네를 들여다보자. 둘 다 직장 생활을 해 평소 마트에 직접 갈 시간이 없어서 배송 서비스를 애용하다 보니 어느새 새벽 배송 단골이 됐다.

쇼핑을 좋아하는 아내는 수시로 온라인으로 장을 보고 새벽배송을 이용한다. 배송이 올 때마다 발생하는 박스와 스티로폼, 비닐포장재, 과일망, 캔, 유리병, 페트병 등은 며칠만 쌓여도 쓰레기가 엄청나다. 쓰레기 대부분은 플라스틱류. 연간 국내에서 나오는 쓰레기 중 70~80%가 플라스틱류라고 한다. 우리가 편리함을 추구할수록 플라스틱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선진국일수록 쓰레기 매립률은 제로(0)에 가깝다. 소각을 통해 가스 같은 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재활용으로 돌리기 때문이다. 선진국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아직 갈 길이 멀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쓰레기 매립률은 6.1%, 소각률은 5.2%, 재활용률은 86.5%였다. 매립률과 소각률이 낮아지고는 있지만, 크게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분리배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1991년 쓰레기 분리수거 의무화 이후 30년이나 됐지만, 재활용 가능한 생활쓰레기 대부분을 아직도 종류별로 나눠서 버리지 않고 있다.

제대로 분리만 하면 얼마든지 새로운 자원들로 탈바꿈할 수 있는 쓰레기다. 그런데도 곳곳에서 새로운 자원을 생산한다고 산을 파헤쳐 민둥산이 늘어가는 사이, 우리는 ‘쓰레기 산’이라는 새로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노출되고 있다. ‘잘 쓰고 잘 버리는 것’, 인류가 자연에 차리는 최소한의 예의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인천환경공단 자원회수센터의 박해석 과장은 “최근 폐비닐, 폐플라스틱 대란을 겪으면서 재활용 쓰레기 정책이 많이 바뀌었지만, 근본적으로 시민들이 이해하기는 아직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다”며 “정확한 재활용 분리 배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배수경 기자 sue6870@

수출 막힌 쓰레기… 근본적 해법 찾아야

일회용기 보증금 제도·재활용 신기술 등 활용을

페플라스틱 등 폐기물을 수입하던 국가들이 쓰레기 수입 중단을 선언하면서 선진국들의 쓰레기가 갈 곳을 잃고 있다.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이 동남아시아와 중국, 터키 등에 떠넘기던 ‘쓰레기 폭탄 돌리기’가 더는 통하지 않게 된 것이다. 쓰레기 감축과 재활용 등 근본적인 해법 모색이 필요한 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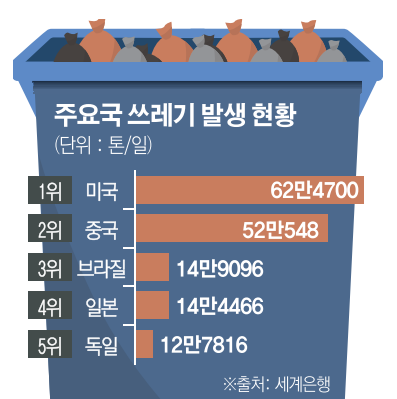
한때 전 세계 쓰레기의 절반 이상을 수입하며 ‘세계의 쓰레기 처리장’으로 여겨지던 중국은 2018년 페플라스틱 등 폐기물 수입을 금지했다. 올해부터는 모든 고체 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했다.

터키 정부도 지난달 플라스틱 쓰레기 수입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국제적으로 수출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은 1992년 발효된 ‘바젤협약’에 따라 제한된다. 2019년에는 규제 대상에 페플라스틱이 추가됐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때다. 올해 초 발표된 국회입법조사처의 ‘일회용 포장재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보증금 제도 도입 방안’ 보고서는 플라스틱 문제는 일회용 포장재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50년부터 2015년까지 66년 동안 전 세계에서 버려진 플라스틱양은 63억 톤에 달하며 이 중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가 47%를 차지한다.

최근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 사용하기, 일회용 빨대 반환 운동, 포장 용기를 가져가는 ‘용기내’ 등은 쓰레기 발생을 줄이는 긍정적인 움직임이다.



재활용도 활성화해야 한다. BBC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매년 3억8000만 톤 이상의 플라스틱이 생산되는데, 페플라스틱의 16%만이 재활용되며 40%는 매립, 25%는 소각, 19%는 버려진다.

이에 페트병을 비롯한 플라스틱 용기에도 빈 용기 보증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해외에서 나온다. 현재 국내에서는 소주병, 맥주병 등 유리 용기 일부에만 적용되고 있다.

신기술 개발도 해법이다. 영국의 무라테크놀로지는 최근 초임계 증기를 사용하는 페플라스틱 재활용 기술을 개발해 모든 형태의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세계 최초의 공장 건설에 착수했다. 공장은 2022년 가동될 예정이며 연간 8만 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처리하게 된다.

스티브 마흔 무라 최고경영자(CEO)는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기술이자 동시에 낭비되고 있는 자원을 재활용할 소중한 기회”라고 말했다.

이주혜 기자 winjh@

저녁식탁 오른 소고기 1kg, 이산화탄소 25kg 배출

식생활 개선이 기후변화 막는 첫걸음

오늘은 월요일, 우리 가족은 외식을 하기로 했다. 메뉴로는 별다른 고민 없이 소고기를 선택했다. 이번 달에 보너스가 나왔기 때문이다. 오랜만에 소고기를 먹을 생각에 콧노래가 절로 나온다. 4인 가족이 먹은 소고기 양은 약 1kg. 조금 무리해 지갑은 가벼워졌지만, 다들 즐겁게 먹는 모습을 보니 마음은 더 가벼워졌다. 특별한 날이면 찾게 되는 소고기. 알고 보면 온실가스를 만드는 주범 중 하나다. 미국 환경단체인 천연자원보호협회(NRDC)에 따르면 소고기 1kg을 생산하는 데 25.6kg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

육류 소비에 엄청난 자원 소모 전 세계 소들을 국가로 친다면, 中·美 이어 온실가스 배출 3위

◇설령탕 한 그릇 이산화탄소 10kg 배출=음식은 탄소 배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22개국 70명의 전문가가 모인 환경단체 플랜드르다운(Plan Drawdown)은 향후 30년간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 3위로 '채식 위주 식단'을 꼽았다. '열대우림 복원(5위)'이나 '해상풍력발전(6위)' 같은 거창한 계획보다 식생활 개선이 기후변화 대응에 더 유용하다는 이야기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쌀밥에 고깃국'을 예로 들어 보자. 쌀밥 한 그릇은 115gCO₂e, 소고기국국은 1.8kgCO₂e의 온실가스를 만들어낸다. CO₂e는 이산화탄소와 메탄, 이산화질소 등 여러 온실가스를 탄소배출량으로 환산한 '탄소환산량'을 뜻한다. 반찬 없이 밥과 국만 먹어도 약 2kg의 온실가스를 만들어낸다는 의미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밥상의 탄소 발자국' 계산 프로그램에 따르면 한식 중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만들어내는 음식은 설령탕으로 무려 10kgCO₂e를 배출한다. 설령탕에 이어 곰탕 9.7kgCO₂e, 갈비탕 5kgCO₂e, 불고기 3.5kgCO₂e, 육개장 3kgCO₂e 등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음식으로 조사됐다. 모두 소고기가 들어간 음식들이다.

경제학자 제러미 리프킨은 저서 '육식의 종말'에서 "소를 사육하려면 초지가 필요하고 초지 조성을 위해 대규모의 열대우림이 사라진다. 또 소에게 먹일 사료로 쓰이는 작물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탄소 배출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1960년대 초반 7000만 톤에 그치던 세계고기 생산량은 2017년 3억3000만 톤으로 다섯 배 가까이 늘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국내 육류 소비량은 1980년 11.3kg에서 2018년에는 53.9kg으로 증가했다. 육류 수입량도 증가해 2018년 104만6000톤으로 사상 최초로 100만 톤이 넘었다.

◇소 15억7000마리는 메탄 1억8000만톤=인간이 육류를 소비하기까지는 엄청난 자원이 소모된다. 육류를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해선 대규모의 경작지와 방목지가 필요하다. 그린피스에 따르면 1990년 이후 사라진 열대우림의 70% 이상이 이 때문에 망가졌다. 브라질에서는 약 23억1404만㎡의 토지가 가축 사료용 콩을 재배하는데 쓰인다. 목초지와 경작지 등을 얻기 위해 땅과 숲이 사라지는 사이, 인간의 식량과 주거, 동물의 서식처 등이 위협받는다

는 의미다.

무엇보다 소가 풀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방귀나 트림으로 배출하는 메탄도 문제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23배 이상 강력한 온실가스로 알려져 있는데, 인간에게는 자동차가 발생시키는 이산화탄소보다 86배나 해롭다고 한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약 15억 7000마리의 소가 사육되고 있다. 이 소들은 연간 약 1억500만~1억8000만 톤의 메탄을 배출한다. 트림과 방귀를 통해서다.

미국 소설가 조너선 사프란 포어는 저서 '우리가 날씨다'에서 "만약 전 세계의 소들을 하나의 국가로 친다면, 중국·미국에 이어 온실가스 배출이 세 번째로 많다"고 분석했다.

소 사육이 기후위기에 끼치는 악영향은 이뿐 만이 아니다. 소를 사육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양의 물이 소요되는데, 물발자국네트워크(Water footprint network)에 따르면 각 식품 1kg을 생산할 때 채소의 물발자국은 322 l가 발생하는 데 비해 소고기는 1만5415 l가 사용된다.

서울환경연합은 "소고기 1kg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물의 양은 1만 5500 l이고, 토마토 1kg을 기르는데는 180 l 밖에 필요하지 않다"며 "농·축산업이 전체 담수 사용량의 70%를 사용하고 있는데 대부분 육류 생산을 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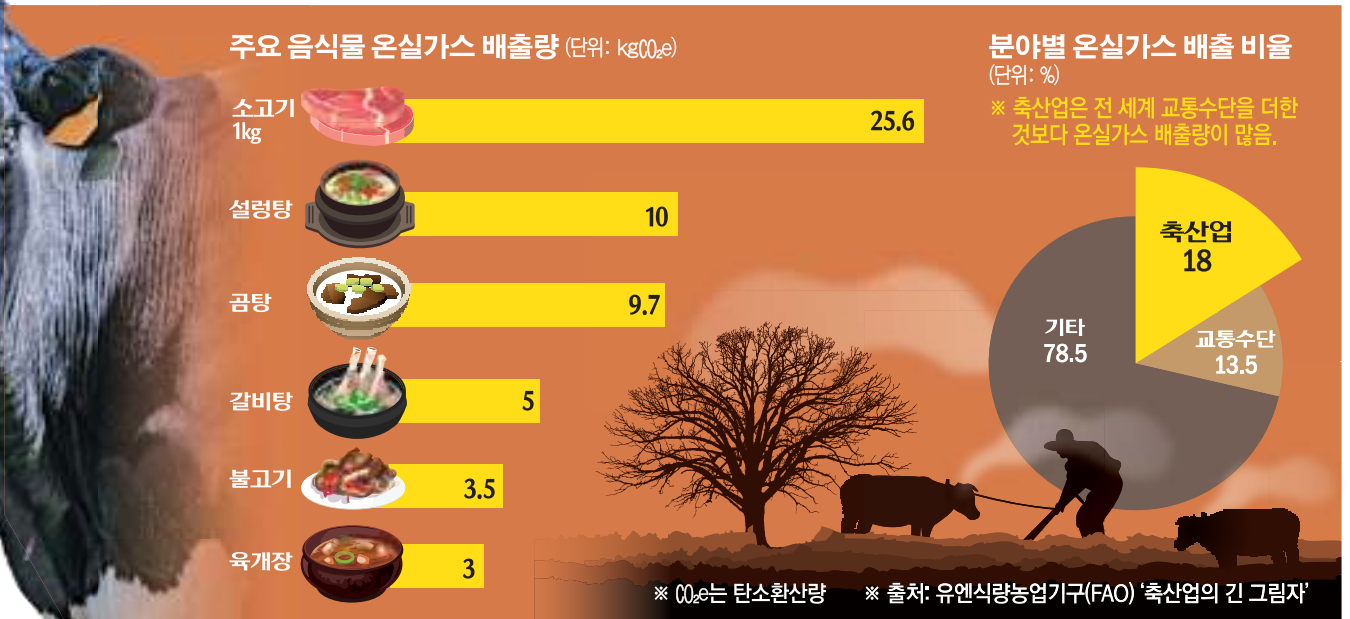
소 트림과 방귀로 나오는 메탄 CO₂ 보다 23배 센 온실가스 사육 위해 열대우림 파괴까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소고기 400g을 먹지 않으면 6개월 동안 샤워를 하지 않는 것보다 더 많은 물을 절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포어는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보고서를 인용해 "전 세계의 고기와 유제품 소비가 이대로 계속된다면, 전 세계 평균기온은 2도 이상 오를 것"이라며 "동물성 제품 소비를 줄이지 않으면 기후위기는 시한폭탄을 해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이 발표한 '기후변화와 토지(Climate Change and Land)' 특별보고서는 전 세계인이 모든 동물성식품을 먹지 않으면 약 80억 톤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채식하면 온실가스 최대 70% 줄여=바꿔 말하면 식단의 과감한 전환을 통해 22%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채식 위



온실가스 줄이는 방법 3위 채식 4인 가족 1주일에 1회 채식하면 5주 車 안 탄 것과 같은 가스 감축

주 식단을 권장했다. 하루 최소 400g에 해당하는 과일이나 채소를 섭취하고 50g 이

하의 설령탕과 43g 이하의 고기를 먹을 것을 추천하고 있다.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연구팀은 WHO가 권장하는 채식 식단에 따를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을 29~70%까지 감축할 수 있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를 미국국립과학원 회보에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4인 가족

이 1주일에 하루만이라도 고기와 치즈를 제외한 채식 식단을 실천하면 5주 동안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은 것과 같은 양의 온실가스 감축을 이뤄낼 수 있다. 또 1주일에 하루만 소고기를 먹지 않는다면 3개월 동안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은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세종=이해근 기자 pinvol1973@

다시, 자연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신재생에너지

자연과 사람을

잇는다

하늘의 빛은 끌어안고, 바람의 힘은 받아들여
자연 그대로의 에너지로 새로워집니다.
자연이 힘이 되는 세상, **한국중부발전**

KOMIPO
한국중부발전

백팩에 따릉이로 출근·동작동 대신 대전 현충원 ‘파격’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따릉이를 타고 국회의사당으로 첫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천안함 등 희생 장병 오늘 참배
안보 강조... 2030 男 끌어안기
비서실장 서범수, ‘입’ 황보승희

이준석 국민의힘 신임 당 대표의 첫 출근 길은 서울시 공유자전거 ‘따릉이’와 함께였다. 이 대표는 첫 공식 일정으로도 기존 관행대로 서울 동작구 현충원을 가지 않고 대전 현충원을 찾아 천안함 피해 장병들에게 참배할 예정이다. 이후 광주 재개발현장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방문한다. 이 대표의 색다른 행보에 정치권에선 변화를 향한 국민의 열망이 담겼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 대표는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당 대표실로 첫 출근했다. 이날 이 대표가 타고 온 건 자가용이

나 관용차가 아닌 따릉이었다. 이 대표는 백팩을 메고 넥타이 없이 캐주얼 정장을 입은 채 따릉이를 타고 출근했다. 이 대표는 김기현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여의도연구원장 등 인사 문제를 논의했다. 앞서 이 대표는 수석대변인으로 황보승희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서범수 의원을 지명했다. 이 대표는 화동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모든 당직 인선은 다음 주 중 완료하는 거로 의견을 받았다”며 “오늘 결정된 부분은 없고 나름대로 진척상황을 원내대표에게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첫 공식 일정도 기존 관행과 다르다. 기존 신임 당 대표나 정치권 인사들은 서울 동작구 현충원을 찾아 첫 공식 일정을 수행했다. 이와 달리 이 대표는 대전 현충원을 방문하기로 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동작구 현충원을 가면 누구한테 첫 참배를 하는지 등으로 말이 많다”며 “대전 현충원에 천안함 피해 장병도 안장돼 있고 해

서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의 이 같은 행보에는 변화와 동시에 안정의 의미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대전 현충원에는 천안함 피해 장병 외에도 연평도 포격 도발, 제2연평해전 등으로 희생된 장병들의 묘역이 있다. 군 장병에 대한 예우를 갖춰 본래 보수 지지층의 가치인 안보를 강조하면서도 20·30대 남성들의 공감을 동시에 끌어내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 대표는 대전 현충원 방문 후 광주로 향한다. 광주 재개발현장에서 발생한 희생자들의 합동분향소를 방문하기 위해서다. 이 대표는 합동 연설 당시 “호남 당원이 우리 당원의 0.8%밖에 되지 않는 부끄러운 데이터가 공개됐다”며 “호남에서 더 인정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러한 점을 인식해 첫 행보로 호남을 방문하는 것으로 보인다. 오후에는 서울로 돌아와 첫 최고위원회 의를 주재한다. 새롭게 꾸려진 최고위원들

과 갖는 첫 회의로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주목된다. 이후 곧바로 의원총회에 참석해 의원들을 만나 각오를 밝힐 전망이다. 이 대표는 원외에 있는 만큼 원내와 소통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15일 오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접종을 위해 안전 백신을 맞는다. 상황에 따라 이르면 이날 오후 또는 16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부터 차례로 예방할 예정이다. 이 대표의 행보에 당내에선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한 초선 의원은 “똑똑하고 잘하지만 언행이나 행동이 가벼운 게 있어서 당원들이 불안해하는 부분이 있다”고 우려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12일 “한국 정치사에 처음 있는 혁명”이라며 “당원의 한사람으로서 이 대표의 당선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준상 기자 joooon@

“젊다고 성공할 수 없어... 보수 새 비전 제시해 국민 마음 사야”

중진들 “대선 승리 위해 협력... 큰 문제 없을 것”

국민의힘 수장에 현정사 최초로 30대 중반 젊은이가 선출됐다. 이준석 대표다. 젊은 당수는 국민의 개혁 요구에 호응해 많은 변화를 예고했다. 일각에서는 젊은 혈기만으로 거대 야당을 통솔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한다. 당내에선 대체로 큰 걱정은 없다는 반응이다. 우선 이 대표가 선출직 경험만 없지 10년 넘게 정당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었다는 점을 주목한다. 한 전직 4선 중진 의원은 “우리당이 나름 시스템화돼 있어 당 대표가 함부로 나대거나 재벌 총수처럼 독주할 수가 없고, 대선후보가 결정되면 당 대표는 뒤로 물러나게 된다”며 “정당 생활만 10년이 넘는 이 대표도 이를 알고 있고 어떡해야 자신이

살아남을지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 큰 우려는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6세 때인 2011년 12월부터 정계에 발을 들여 여의도 생활만 햇수로 11년 차다.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청년 정치인’으로 데뷔한 그는 자신을 발탁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권을 쥐었다가 탄핵당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이후에는 바른정당부터 바른미래당, 새로운보수당까지 험난한 3지대 생활을 하다가 고향인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으로 돌아와 ‘협지’ 서울 노원병에 세 번째 도전했지만 실패했다. 이처럼 이 대표는 보수정당들의 실패 속에서 협지를 고집해 선출직과 연이 없었을 뿐, 꾸준한 정당 생활과 방송 활동으로 정치 경험과 인지도를 차곡차곡 쌓았다.

‘0선 중진’이라는 별명이 붙는 이유다.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이라 분탕질을 누구도 쉽사리 할 수 없을 거라는 관측도 이 대표 당 운영을 낙관하는 배경이다. 이 대표는 4·7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캠프에서 뉴미디어본부장으로서 2030 지지를 끌어내는 데 성공했고, 당권까지 쥐게 된 돌풍의 기반이 됐다. 대선 승리의 핵심이 될 2030 지지의 ‘키’인 이 대표를 살릴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현직 의원들 또한 유사한 인식이다. 한 재선 의원은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 대표가 중진 당권 주자들과 의견 차이가 있던 건 맞지만, 대선 승리라는 최종 목표를 향한 당의 전반적 염원이 크기에 큰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 본다”며 “영남 분들도, 고령인 분들도 당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런 민심과 당심이 확

실한데 이를 거스르는 잡음이 일어나긴 쉽지 않다”고 내다봤다. 학계에서는 이 대표가 어떤 비전을 내놓을지에 주목하고 있다. 해외에 30·40대가 당수가 돼 성공한 사례들을 보면 젊은 나이로 관심을 끄는 데 그치지 않고 기록과 다른 시각으로 비전을 제시해 지지세를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 대표는 조기에 정계에 입문해 정치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와 정치개혁에 대한 고민이 깊다고 본다. 이를 국민의힘의 비전으로 엮어내는 작업을 잘 해내야 한다”며 “39세 나이로 영국 보수당 당수 자리에 오른 데 이비드 캐머런도 젊음만으로 성공한 게 아니라 ‘빅 소사이어티’와 같은 보수의 새 비전을 내세우며 국민의 마음을 샀다”고 조언했다. 김윤호 기자 uknow@

시니어 품격을 위한 매거진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6월호 발매

COVER STORY
아름다운 인생 졸업식

- PART 1 장례 문화로 본 웰빙
- PART 2 '생전 정리'로 후회의 대물림을 막다
- PART 3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한 중간점검
- PART 4 찾아줘 내 상조
- PART 5 실버타운에서 여생을 보내도 될까?
- PART 6 "슬퍼도, 슬프지 않아도 괜찮다"



신라보가 만난 사람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관통하는
브라보 '디지털' 라이프
1990년대를 사로잡은 최고의 MC 임택현



봄날은 갔지만 우리들의 화양연화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인생 3모작, 트로트 가수로 데뷔한 이금수 씨



생활 속 법률 상식
안전한
상속 솔루션, 신탁
구해줘 부동산
은퇴 후
리츠 해볼까?

느린 여행
강화도 고려산 아래
묵묵한 내공의
우공책방



가보고 싶은
귀농·귀촌
우수 지자체 ②

전북
고창군

감성 예술! 미술관 여기
산기(山氣)와
햇살과 바람,
그리고 볼 만한 그림들



슬기로운 보험생활
7월 출시하는 새로운
형태의 '4세대 실손보험'



“가장 먼저 할일 인적쇄신, 부정적 당 이미지 바뀌야”

전문가 진단 - ‘신드롬’ 넘어 ‘전설’ 쓰려면

‘이준석 돌풍’이 36세 국민의힘 당대표를 탄생시키며 ‘이준석 현상’을 만들어냈다. 이제는 실전이다. 현상이 신드롬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선 전무후무한 ‘이준석 전설’을 써나가기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인적 쇄신’을 꼽았다. 정권교체를 위한 필수 요건으로 사람들이 변해야 부정적인 당의 이미지를 완전히 탈피할 수 있다는 것.

이준호 정치평론가는 13일 “꽤 정당 이미지를 완전히 벗어던지며 보수정당을 변화시키기 위해선 사람이 바뀌며 물갈이가 돼야 한다”며 “내년 지방선거부터 공천 혁신을 반드시 실현해 기초의회부터 사람들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정권교체를 위해 인적변화가 필요하며 민주당보다 더

절박할 수 있다”며 “향후 대선 선거관리위원회 등 당내 위원회를 꾸릴 때도 다양하고 새로운 인물들로 바뀌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인적쇄신에 대한 신중론도 제기된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인적쇄신은 정치권에서 하기 좋아하는 얘기고, 오히려 이를 추진하다 보면 저항이 있어 쉽지 않다”고 우려했다.

인적쇄신 외에도 정권교체를 위한 전제조건이 있다. 구태를 답습하는 당의 모습을 탈피해 대안 야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추가로 몇 가지가 더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박 평론가는 “똥똥 뭉쳐도 힘든 정권교체, 굉장히 힘들겠지만 당내 화합과 통합이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라며 “당내 합당한 인물, 세력들과 손잡고 새로운 가치

내년 기초의회부터 공천 혁신
대선 관리위도 새로운 인물로
당 화합·통합·중도 확장 정책
‘30대 대선 출마’ 법개정 추진
안철수 통합·윤석열 영입 관건

를 만들고 발전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강령·정책 쇄신 등 진화된 중도 확장 모습으로 당의 체질도 바뀌어야 한다”며 “여기에 무책임한 비판이 아닌 대안을 제시하고, 책임까지 지는 정당의 행태 역시 변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박 평론가는 “당이 왜 원내정협도 없고, 나이도 어린 비주류 이준석을 뽑았는데 생각해보면 답은 명확하다”며 “정권교체를 하지는 당원의 절박한 바람이 이

번 결과에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대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했다. 이 평론가는 내년 대선 구도는 ‘청년 정치 참여’를 위한 구도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평론가는 “현재로서는 40대 미만의 경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니 헌법을 바꿔서 출마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이준석 대표가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평론가는 “정치권이 젊어져 바텀업(bottom-up) 방식이 돼야 하며, 30대 포함 대권 주자가 젊어지는 리그 만드는데 이 대표가 앞장섰으면 좋겠다”며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언급했던 40대 경제전문가 등과 같은 인물이 대선 리그에 들어와 주면 활기도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황 평론가는 “내년 대선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에선 곧 후보가 나올 것”

이라며 “거대한 여당 후보에 맞서 싸울 강력한 단일 후보 만들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후보는 엄청하고 공정하게 이끌 수 있는 후보를 만들어내는 심판, 감독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당이 직면한 몇몇 과제들도 하루빨리 풀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국민의당과의 통합,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의 영입이다.

황 평론가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통합 논의, 강력한 대선 1위 주자인 윤 전 총장을 큰 잡음 없이 잘 모시고 와서 유승민계 의구심도 사라질 수 있도록 중립적이고 엄정한 심판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정치 공세적 측면이 현실적으로 간단하지 않은 만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혜, 의견들을 수렴해가면서 멋진 감독 역할을 하면 된다”고 주문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이꽃들 기자 flowerslee@

정치권에 커지는 ‘세대교체론’ 고심 깊은 민주

조직문화 경직 소신파·더민초 등 별다른 목소리 못 내
기성정치 ‘구태’ 여전... 송영길 등 ‘86그룹’ 바짝 긴장

‘30대’ 제1야당 대표가 등장하면서 여권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청년 정치인들은 상당히 많지만 정작 변화의 돌풍을 일으킬 만한 ‘진짜 이준석’이 없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에는 젊은 정치인들이 상당수 있다. 차세대 정치리더로 꼽히는 박주민(48) 의원, 대권 주자로 나선 박용진(50) 의원, ‘조선 5인방’으로 불리는 장철민(38)·장경태(37)·전용기(30)·이소영(36)·오영환(33) 의원과 당원들의 지지를 받는 김남국(38) 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오랜 기간 굳어진 경직된 조직문화로 인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소신파’, 열정으로 변화를 꿈꾸는 ‘혁신파’가 사실상 존재하기 힘든 환경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조선의원 모임 ‘더민초’가 별다른 쇄신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도 비슷한

맥락이다.

정권교체를 갈망하며 당원들이 적극적으로 이준석 대표에게 힘을 실어준 국민의 힘과는 대조적이다. 국민의힘이 그토록 탈피하려 했던 ‘구태’가 민주당에선 아직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

여권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1일 이준석 대표의 당선 소식을 접하자 “민주당은 기성 정치의 구태를 얼마만큼 끊어냈는지 돌아본다”며 “정치적 유불리를 완전히 걷어내고 민의가 충돌하는 어떠한 주제라도 회피 않고 논쟁하는 자세를 보이는지, 청년의 언어로 공감하고 소통하고 있는지, 혹 그들을 가르치려 들지는 않는지 반성한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권의 주류 세력인 ‘86그룹’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당 안팎의 평가는 물론 여러 가지 상황도 좋지 않다. 윤동권 만형격인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당권을 잡았지만 아직 4·7 보궐선거의 참패를 만회할 만한 쇄신에는



이낙연(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2일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신복지서울포럼 발대식’에서 청년대표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성공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4·7 보궐선거 서울시장 여권 주자로 나서기도 했던 우상호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불거진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탈당 위기에 처해있다.

설상가상으로 86그룹 용퇴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이들은 세상이 변하고 있음을 인지하면서도 본인이 변해야 한다는 인식은 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이들 주류가 변해야 민주당도 변한다”고 꼬집었다.

이처럼 위기감을 느낀 민주당 안팎에서 또다시 경선 연기론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가다간 국민의힘 정권교체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도 있을 것이란 우려에서다. 민주당 또다른 관계자는 “이준석의 등장으로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관심이 쏠리면서, 한동안 주춤했던 경선 연기론이 당내에서 다시 커지고 있다”며 “실제 11월로 경선을 연기하면 더 승산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36세 당 대표’ 등장에 국힘 청년 정치인 주목

김병민·김재섭·김용태·천하람 등
총선 낙선 후 지역구서 기반 다져

올해 36세인 이준석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의 당선은 정치권에 새바람을 몰고 왔다.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한 김재섭·김병민과 호남에서 활동하는 천하람, 청년최고위원에 당선된 김용태 등 당내에서 청년들이 주목받으며 세대교체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 대표의 당선 이후 지금까지 생각지도 못한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김병민·김재섭·이준석·김용태·김용식·천하람. 이들의 공통점은 지난해 4.15 총선에서 낙선한 20·30 청년이라는 점이다. 낙선 후 비상대책위원, 지역구 당협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며 기반을 다져온 이들은 이 대표의 당선 후 국민의힘 내에서 주목받는 상황이다. 이들은 야권 청년 정치인으로서 목소리를 꾸준히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기회를 얻은 만큼 잘 활용하겠다는 생각이 다. 같은 청년이라고 해서 이 대표를 마냥 편들지만은 않겠다고도 다짐했다.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이 대표적이다. 김 최고위원은 향후 청년 최고위원으로서 청년 정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전망이다. 김 최고위원은 “이 대표와 할당제 등과 관련해서 생각이 다르다”며 최고위원으로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걸 망설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김종인 비대위’에서 활동했던 김재섭·김병민 전 비상대책위원도 주목받는다. 김재섭 전 비대위원은 “지역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추후 일정에 대해선 “이 대표가 빠지게 된 방송들을 매울 것”이라며 이 대표와 친분에도 비판할 건 비판하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김병민 전 비대위원도 “대통령 선거 목전이라 방송에 나가서 역할을 많이 할 것 같다”며 “지역도 챙길 것”이라고 얘기했다.

천하람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당협위원장은 이 대표의 당선을 ‘새로운 정치의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천 위원장은 “(이 대표를) 비판하기보다 어떻게 보면 너무 감싸주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건전한, 비판적인 지지를 보낼 사람들이 필요해서 그런 걸 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준상 기자 jooon@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박용진 의원

박주민 의원

‘노원 이웃’ 안철수·이준석 동네서 회동 ‘합당 논의’ 급물살타나

공식 예방 때 본격 협의할 듯... 안 “정치 변화는 시대정신”

안철수(사진) 국민의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가 12일 노원구에서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은 합당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덕담을 주고받은 후 향후 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 이에 더해 안 대표가 합당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낸 만큼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을 위한 절차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13일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안 대표가 어제 노원구에 있는 작은 카페에서 (이 대표와) 개인적으로 만났

다”고 말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도 “같은 동네에서 가까우니까 회의를 했고 안 대표가 장소를 정해 잠깐 만났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첫 만남에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을 위한 구체적 논의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합당 얘기는) 차후에 내방이나 공식 일정이 있을 텐데 그때 공식적인 입장을 낼 것 같다”며 “그냥 만나서 어느 정도 의논을 나눴다 정도가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 관계자도 “(합당 얘기는) 개인적으로 할 이유는 없다”며 “덕담만 주고받고 화



요일이나 수요일에 공식적으로 당 예방을 둘 때 뵙자고 하고 헤어졌다”고 얘기했다.

다만 두 사람이 개인적으로 만나 이야기를 나눈 만큼 양당 합당 논의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안 대표는 13일 이 대표 당선

에 대해 처음으로 메시지를 내며 “국민적 변화의 요구”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치 변화는 시대정신이 됐다”며 “변화의 시작은 제1야당에서 시작됐지만, 변화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은 여야 정치권 모두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도 당선 직후 기자 간담회에서 원내대표 시절 국민의당과 논의에 앞장섰던 주호영 후보에게 “(도움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며 합당에 힘을 줄 것이라고 얘기했다. 양측은 예방을 통해 공식적으로 만난 후 합당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박준상 기자 jooon@

“해외서 백신 맞고 입국하면 내달부터 자가격리 면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오늘부터 스포츠 관중 입장 완화
대중음악 공연 4000명까지 허용
밀집도 기준 높여 등교수업 확대

김부겸 국무총리는 13일 “다음 달부터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면, 국내 직계가족 방문이나 중요한 사업, 학술·공익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심사를 거쳐 격리를 면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로 오랫동안 고국을 찾지 못한 교민과 유학생, 기업인 등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방역 상황이 안정된 국가들과는 상호주의 원칙 하에 접종증명서를 인정하고, 접종을 마친 출·입국자는 서로 격리를 면제하도록 협의해 나가



휴일 30도 안팎의 불볕더위가 계속된 13일 서울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에 여행객들이 북적이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전날 1차 신규 접종자는 38만6223명으로 집계됐다.

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격리를 면제해도 진단검사 등 기본적인 방역조치는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대본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수도권 1.5단계)를 14일부터 3주간 유지한다.

대신 7월 예정된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과 휴가철 등을 고려해 콘서트, 스포츠 경기장 등에 대해 14일부터 방역조치를 완화한다. 스포츠 경기장은 실외에 한해 개편안의 중간 수준으로 관중 입장을 확대한다. 거리두기 단계별 입장 허용 인원은 2단계 지역이 좌석 수의 30%, 1.5단계 지

역은 50%다. 100인 미만 행사제한 적용대상이던 대중음악 공연에 대해선 4000명까지 입장을 허용한다. 단 스탠딩, 합성 등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금지한다.

전남 전역과 경남 10개 군, 경북 16개 시·군에서 시행 중인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사업은 강원 15개 시·군에 확대 적용한다.

교육부는 거리두기 2단계에서 학교 밀집도 기준을 기존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상향 조정했다. 수도권 중학교와 직업계고 등학교의 2학기 전면 등교를 준비하려는 조치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이미 전면 등교를 시작했거나 예정하고 있다.

방역당국의 조치와 별개로 서울시는 12일부터 마포구와 강동구에 대해 서울형 거리두기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사전신청 사업장에 한해 헬스장과 스크린골프장 등의 영업시간을 자정까지 2시간 연장하는 게 골자다.

한편,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52명으로 집계됐다. 국내발생이 419명, 해외유입은 33명이다. 예방접종 인원은 1차 접종자가 전날보다 38만6223명, 접종 완료자는 11만7602명 추가됐다. 1차 이상 누적 접종자 수는 1180만2287명, 인구 대비 접종률은 23.0%로 집계됐다. 접종 추이를 고려하면 14~15일 중 상반기 접종목표인 13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조국 털고 文대통령 뛰어넘어야”

‘정권 재창출’ 악역 자처한 양정철

여권 인사 만나 연일 ‘쓴소리’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자 여권의 전략가로 꼽히는 양정철(사진) 전 민주연구원장의 여권을 향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4·7 재보선 이후 가뜰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이준석 돌풍으로 정권교체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국민의힘과도 대조되는 시점에 뼈아픈 메시지를 쏟아내 더욱 주목된다.

양 전 원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정권 재창출 비판적 요소가 더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정부의 임기 말 연착륙과 정권 재창출을 위한 악역을 자처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 친문 인사는 13일 “양 전 원장이 당과 차기 대권 주자들에게 터닝 포인트를 위한 물꼬를 더주기 위해 총대를 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 일부 여권 인사들을 만난 양 전



당이 재집권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문제를 당과 차기 주자들이 냉정하게 평가하고 극복해야 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조국 사태 사과 이후에도 일부 강성 친문이 반발하는 등 여진이 이어지는 상황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또 양 전 원장은 “문 대통령이 정권 재창출의 대의뿐 아니라 다음 시대로의 전환과 도약을 위해서라도 자신을 뛰어넘는 것을 기꺼이 양해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알려졌다.

여권의 대권 주자들이 부동산, 소득 주도성장, 탈원전 등 현 정부의 정책 기

조에 얽매이지 않고 진전된 정책 비전을 자유롭게 제시해 중도층을 끌어안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양 전 원장은 “경선 과정에서 대통령을 개입시키면 안 된다. 문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친문 이름으로 특정 주자에게 줄 서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여권의 쇄신 작업과 함께 문 정부의 성과도 제대로 조명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가 인터뷰에서 청와대와 내각에 “능숙한 아마추어가 많다”며 비판한 것을 두고선 대통령과 참모·당 책임론을 분리함으로써 사실상 문 대통령을 보호하려 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양 전 원장이 이대로는 정권 재창출이 어렵다는 위기감 속에 여권에 화두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강성 친문의 반발을 무릅쓰고 쓴소리 역할을 자처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2015년 대비〉

중부발전, 2025년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 82% 줄인다

중소기업 청정연료 전환 지원 등 작년까지 5600억 환경설비 투자

한국중부발전은 지역사회와 함께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미세먼지 감축에 총력을 쏟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중부발전은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해 최신 환경설비 설치 및 개선에 작년까지 약 5600억 원을 투자했다.

그 결과 석탄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2015년 대비 약 2만8000톤(78%)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저유황탄 비중을 약 83%까지 확대하고, 보령7호기 및 신보령 1호기 탈황설비 용량을 늘리는 등 석탄발전의 환경설비 성능 개선 및 보강한 것이 주효했다. 중부발전은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및 유류 발전 등 자사가 운영 및 건설 중인 모든 발전기에 대해 2025년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3일 한국중부발전이 자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진행한 ‘비대면 공감토크쇼 공통점’ 프로그램 장면. 사진제공 한국중부발전

2015년 대비 82% 감축하고, 이를 위해 8000억 원을 추가 투자할 계획이다.

중부발전은 대기오염물질 저감 노력을 발전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데도 힘쓰고 있다. 대표적으로 충남지역 중소기업의 사용연료를 병커C유에서 LNG 등 청정연료로 전환 지원해주는 사업을 꼽을 수 있다. 중소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중부발전에서 투자받고, 중부발전은 연료전환 사업으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권으로 투자금을 회수

하는 방식이다.

중부발전은 올해까지 약 30개 기업이 청정연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총 100억 원을 투자하고, 이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2000톤을 감축할 방침이다.

지역사회의 소외계층 지원에도 앞장서고 있다. 중부발전은 어린이, 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마스크 2만 4000개 및 공기청정기 202대 지원했다. 장애인, 아동, 노인복지 시설에 방진망 388개도 설치했으며 발전소 주변 지역 도로의 비산먼지 방지를 위한 진공청소차도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도 중부발전은 대기환경정보공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국민에게 대기환경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중부발전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전 임직원의 역량을 결집해 미세먼지 걱정 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說說 끊는 추미애 대권 도전

페이스북에 출마 암시글 올려 전문가 “아직 영향력 크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지형에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제기됐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대선 도전을 암시하면서다. 다만 추 전 장관의 지지율이 그리 높지 않은 상황이라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할 거라는 분석도 나왔다.

추 전 장관은 12일 부산에서 열린 ‘개혁국민운동본부’ 영남본부발 발대식에 참석했다. 개혁국민운동본부는 강성 친문 성향 단체 모임으로 알려져 있다. 행사에는 추 전 장관 지지자들이 몰려 ‘#사랑해요 추미애’, ‘#나와라 추미애’ 등의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들고 성원을 보내기도 했다.

추 전 장관은 행사 참석 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권 도전을 암시했다. 그는 “#우리가 추미애다 손피켓과 외침에 심장이 뛴다”며 “다시 촛불광장의 약속을 무겁게 되새긴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분과 함께 가는 길 쉽 없이 걸어서 한땀 한땀 보통 사람들이 성실하게 일하는 정직한 맘이 공정한 대접을 받는 세상을 여는 길에 저도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서는 대선 출마와 관련해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며 “조만간 저도 어떤 결심이 서면 따로 말씀을 드릴



추미애 전 장관 페이스북 캡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각종 여론조사(자세한 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 참조)에서 야권 대선 주자 선호도 1위를 달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대결 구도를 보였던 터라 친문 세력의 큰 호응을 얻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각종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도 추 전 장관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뒤를 바짝 쫓는 상황이다.

다만 추 전 장관의 지지율이 그리 높지 않은 상황이라 대권 도전에도 대세에 큰 변화는 없을 거라는 전망도 나왔다. 신용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재 지지율이 굉장히 미미하다”며 “친문들 소수의 영향력이 과대 대표됐기 때문에 영향이 큰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내에선 어떻게 모르겠지만 막상 대선 후보로서 큰 호응을 얻을 거라고 아직은 보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박준상 기자 jooon@

작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114만 가구에 지급

가구당 평균 46만원 ‘총 5208억’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5208억 원을 114만 가구에 지급한다.

국세청은 올해 지난해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와 앞서 작년 상반기분 신청 가구를 합쳐 167만 가구에 대한 심사를 완료해 요건에 부합하는 114만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15일에 지급한다.

가구당 평균 장려금 지급액은 46만 원이다. 단독가구는 15만~52만5000원, 홑벌이 가구는 15만~91만 원, 맞벌이 가구는 15만~105만 원이다. 수령 가구 유형은 단독 가구가 54.1%, 홑벌이 가구 40.5%,

맞벌이 가구 5.4% 순이다.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법정기한인 6월 30일보다 보름 앞당겨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6월 19일에 지급을 완료했다.

2020년분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2020년에 근로소득만 있으면서, 2019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단독가구 2000만 원·홑벌이 가구 3000만 원·맞벌이 가구 3600만 원) 미만이고 2019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

1급수에서만 사는 천연기념물 수달 원앙 물총새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천 죽당천, 멸종위기종 1급 수달(천연기념물 제330호) 서식

깨끗한 수자원을 지키기 위해
SK하이닉스는 ESG 경영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물 사용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밝힙니다
탄소 공개 프로젝트 물 경영 부문 대상 수상

최적의 청화시스템으로 물 사용량을 줄입니다
방류수 재활용 시스템 및 냉각탑 재이용 시스템 구축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지역 수생태계를 지킵니다
수질 자동측정기를 통한 생태계 피해 방지

“코인대장株 사수하라” 비트코인 업그레이드

4년 만에 ‘탭루트’ 업그레이드
개인보안 대폭 강화·수수료 인하
디파이·NFT 시장 적용확대 주목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오는 11월 업그레이드에 나선다. 비트코인 진영이 보안성과 확장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이더리움의 도전에 맞서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12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전 세계 비트코인 채굴자들은 이날 거래의 보안과 효율성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른바 ‘탭루트(Taproot)’ 업그레이드 시행에 합의했다. 비트코인이 대규모 업그레이드를 진행하는 것은 4년 만에 처음이다. 이번 업그레이드는 ‘내전’이라고 불릴 만큼 이데올로기적 찬반 논쟁이 격렬했던 2017년 업그레이드와 달리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 거의 만장일치 지지를 받아 통과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탭루트’ 업그레이드 핵심에는 이른바 ‘슈노르(Schnorr)’라고 불리는 다중 서명으로의 전환이 있다. 이제까지 비트코인은 ‘타원곡선 디지털 서명 알고리즘’을 이용해 비트코인 지갑을 관리하고 합법적 소유자만이 비트코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슈노르’로 서명 방식이 바뀌게 되면 거래의 보안성이나 개인정보 보호가 더 강화된다는 것이 비트코인 채굴자들의 설명이다. 여러 개의 서명이 겹쳐 있다 보니 거래 대상들의 키(Key)에 대해 판독하기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CNBC는 “슈노르가 공공의 블록체인에서 개별 비트코인 주소에 익명성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복잡하고 여러 개의 서명으로 이뤄진 트랜잭션(거래)과 단일 서명으로 이뤄진 트랜잭션을 구별할 수 없게 만들어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원리”라고 설명했다.

탭루트 업그레이드는 ‘라이트닝 네트워크’와 같은 확장 기술에 대해서도 지원

비트코인 ‘탭루트’ 업그레이드 주요 내용	
1	개인정보 보호 강화
2	수수료 인하
3	사용 편의성 개선
4	라이트닝 네트워크 접근성 개선

※출처: 코인데스크

한다. 라이트닝 네트워크란 실제 비트코인 블록체인이 아닌 별도의 체인을 활용해 거래 당사자들끼리 ‘스마트 계약’을 구성, 더 빠르고 저렴하게 거래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탭루트는 이 스마트 계약에 들어가는 데이터의 크기를 줄이고 이를 통해 거래 수수료도 낮추게 된다.

스마트 계약은 이더리움의 핵심이자 차별화 포인트였는데 비트코인도 제대로 대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슈노르라는 새로운 유형의 서명 방식이 비트코인의 스마트 계약 기능을 향상시켜 이전보다 거래를 더 쉽고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CNBC는 이를 통해 더 많은 프로그래머가 비트코인의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스마트 계약을 구축하면 비트코인이 ‘탈(脫)중앙금융(DeFi·디파이)’ 시장에서 더 큰 역할을 할 가능성도 커진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술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인 ‘대체불가능 토큰(NFT)’ 결제도 이더리움 기반 스마트 계약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업그레이드 발표에 대해 업계에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미국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 기능을 향상하고 잠재적으로 시장을 넓히게 될 것”이라면서 “무엇보다도 비트코인이 ‘기술’이라는 점과 기술은 업데이트된다는 점을 상기시켜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호평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글로벌 스타트업 ‘플라잉카’ 개발 경쟁

버티컬에어로스페이스·아처 에이비에이션 등 에어택시 상용화 포문

글로벌 스타트업들이 하늘을 나는 자동차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에어택시 시대’의 문을 열고 있다.

1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일반 비행기와 다르게 헬리콥터처럼 수직으로 이착륙하는 전기 수직이착륙기(eVTOL)는 ‘에어택시’나 ‘플라잉카’로 잘 알려져 있다. 기존 항공기와 달리 활주도가 필요 없어서 복잡한 도시 내에서도 자유롭게 타고 내리는 것이 가능해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전 세계 수십 개 스타트업들이 새로운 에어택시의 개발 및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아직 꿈은 현실이 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개발이 진행된 지 10년이 흐른 지금, 활발한 투자에 힘입어 조만간 ‘에어택시 시대’가 펼쳐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급작급작한 항공사들이 관련 시장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이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를 방증하는 부분이다. 미국 아메리칸항공과 영국 버진에틀랜틱항공, 항공기 임대업체인 아볼론 등은 최근 영국



에 본사를 둔 스타트업 버티컬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 중인 전기 수직이착륙기 VA-X4(사진)를 최대 1000대까지 사전 구매하기로 했다. 이는 버티컬에어로스페이스 입장에서 이뤄진 첫 번째 상업 계약으로, 규모가 최대 40억 달러(약 4조466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메리칸항공은 출시 준비 중인 에어택시 250대를 선주문하는 것은 물론 버티컬에어로스페이스에 2500만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

버티컬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2016년 창업해 eVTOL을 개발하고 있다. 개발 중인 항공기 VA-X4는 조종사를 포함해 총 5명을 태우고 약 160km 이상을

시속 약 320km로 비행할 수 있다. 배출 가스는 제로(0)다. 올해 하반기 첫 시험 비행을 실시하고, 유럽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은 뒤 2024년 상업 운영을 시작한다는 목표다.

미국 주요 항공사 유나이티드항공이 투자한 전기 비행기 개발업체 아처항공도 지난 10일 캘리포니아 호손에서 eVTOL ‘메이커’를 선보였다. 당사는 이 기종을 2024년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해 왔다. 메이커는 시속 241km의 속도로 96km를 비행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유나이티드항공은 이 회사에 2000만 달러를 투자했으며, 제품의 성능이 입증될 경우 최대 200대를 사들인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우버의 에어택시 사업부인 ‘우버엘리베이트(Uber Elevate)’를 인수한 미국 스타트업 조비항공(Joby Aviation)도 2024년까지 하늘을 나는 택시 서비스를 로스앤젤레스(LA)나 마이애미 등 대도시에서 서비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변효선 기자 hsbun@



바닥 드러낸 세계 최대 인공 호수

12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미드호 가장자리가 서부지역 대가뭄의 영향으로 바닥을 드러낸 채로 있다. 세계 최대 인공 호수인 미드호는 20년 이상 지속한 가뭄과 미국 남서부 지역의 물 수요 증가로 1937년 후버 댐 건설로 조성된 이후 가장 낮은 수위를 기록하고 있다. 현재 수위는 해발 1071.53피트(약 326.6m)로, 2000년 이후 약 140피트 낮아졌다. 이는 자유의 여신상과 맞먹는 높이이다. 미드/AFP연합뉴스

글로벌 조세개혁에 아일랜드 휘청

세수 5분의 1 법인세 의존... 美기업 철수땀 일자리 1만 개 증발

글로벌 최저 법인세를 설정에 선진국 중심으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낮은 세금으로 다국적 기업을 유치했던 아일랜드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고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진단했다.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은 지난 5일 미국 정부가 제안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에 합의했다. 현재 진행 중인 G7 정상회의에서도 참가자들이 수십 년간 계속된 법인세 인하 경쟁을 멈추고 최저세율을 설정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최저 법인세를 방안은 다음 달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를 거쳐 올가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기업들에 ‘조세회피처’로 통했던 아일랜드에는 치명타가 될 것으로 보인다. WSJ는 “아일랜드 정부는 G7의 글로벌 조세제도 개편 움직임으로 인해 정부 예산에 큰 구멍이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아일랜드 정부는 2025년 법인세 수입이 기존 규정 그대로 적용될 때보다 20억 유로(약 2조7037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비정부기구(NGO)는 정부 전망

치보다 더 큰 규모(35억 유로)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일랜드 정부는 지난해에만 전체 세수의 약 5분의 1을 법인세에 의존했다. 이는 선진국의 2배에 달하는 의존도다. 미국 의회예산국에 해당하는 아일랜드 재정자문위원회는 미국 10대 기업의 절반이 아일랜드에서 철수하게 되면 30억 유로의 세수 손실이 발생하고, 1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아일랜드는 지난 20년간 다국적 기업에 12.5%의 법인세율을 제시하며 내로라하는 기업들의 유럽 법인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화이자와 머크를 비롯해 다국적 제약회사 9곳이 아일랜드에 유럽 본사를 설치했다. 페이스북과 구글, 애플에 이르기까지 미국 IT 대기업도 더블린에서 유럽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아일랜드가 1999년 24%였던 법인세율을 점진적으로 인하여 12.5%까지 낮추면서 다국적 기업을 중심으로 아일랜드에 잇달아 유럽 법인을 세우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아일랜드는 기술과 자금 유입은 물론 양질의 일자리 확보와 교육수준까지 높이는 효과까지 거뒀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항공업 회복에 ‘보잉 737맥스’ 재고떨이 속도

지난해 발주 취소로 쌓여있던 100대, 여행 증가로 10대 수준으로 급감

추락사고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등에 따른 항공사의 발주 취소로 재고가 쌓여있던 미국 보잉의 베스트셀러 기종 ‘737맥스(MAX·사진)’가 회생 조짐을 보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현지시간) 사안을 잘 아는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작년 7월에 약 100대에 달했던 보잉 737맥스 재고가 현재 10대 정도로 감소했다고 전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가속화에 힘입어 미국 내 여객 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면서, 신규 구매 주문이 밀려 들어온 데 따른 결과다.

1년 전만 하더라도 국경을 넘나드는 이동이 세계적으로 제한된 데다가, 항공사들은 많은 기체를 퇴역시키는 등 장기 불황에 대비하고 있었다. 현재도 국제선의 경우에는 아직 시장이 얼어붙은 상태지만, 미국 국내선 이용은 급격하게 증



가하고 있다. 실제로 여름철 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미국의 국내선 탑승률은 평균 84%까지 회복됐다. 공항 내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승객의 숫자도 하루 2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는 팬데믹이 시작된 지난 2020년 3월 이후 최고 수준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항공업계는 수요 회복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확신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각사는 항공 편수를 늘리는가 하면, 조종사와 승무원 등을 채용하고 있다. 아울러 보유 기체도 다

시 늘리기 시작했다. 유나이티드항공은 보잉과 150대 항공기 추가 발주 가능성을 두고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우스웨스트항공은 최근 여행 수요 증가에 따라 737맥스 중 가장 작은 모델 보잉 737 MAX 8을 30대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캐나다 저가항공사(LCC) 플레어항공 등 신규 진출하는 회사의 존재도 기체 수요를 밀어 올리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보잉사가 지니고 있던 항공기 재고분도 빠르게 감소하게 됐다. 유나이티드항공과 알래스카항공은 다른 회사가 발주를 취소했던 737맥스를 사들였다. 유나이티드항공은 지난 3월 발표한 맥스 기종 25대 발주에 보잉 재고분과 향후 생산되는 기기 양쪽이 모두 포함된다고 밝혔다. 알래스카항공 측은 작년 12월 구매 계약을 맺은 맥스 기종 9대가 다른 항공사를 위해 제작된 기체였다. 변효선 기자 hsbun@

KB 금융그룹



세상을 바꾸는 금융

KB증권으로 퇴근길에 만나는 실시간 미국주식

해외주식도 KB증권에선 **오후 5시부터!**
한발 빠른 해외투자를 시작하세요

오후 5시부터 만나는 미국주식
거래가능 시간 확대

뉴욕, 나스닥, AMEX 미국 3대 거래소
실시간 시세 무료 지원

매매시 환전 수수료 없이
원화로 거래하는
글로벌원마켓

주문가를 자동으로 결정하고 매매하는
알고리즘 매매 솔루션

✓ 손쉽게
계좌개설하기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1-01307(2021년 3월 12일)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원금손실가능 *투자 전 설명청취
*원금손실 발생 시 투자자 귀속 *미국 주식수수료 온라인 기준 0.25%(매도시 0.00051% 제비용 별도)이며, 매체별, 금액별 수수료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가능 *서비스 중도해지 시 환전수수료 발생 가능 *글로벌원마켓 가능국가: 미국, 중국, 홍콩, 일본, 베트남 *알고리즘매매 가능국가: 미국, 중국, 홍콩 *미국
정규거래시간(22시 30분 - 익일 5시, 서머 타임 적용 기준) 외의 시간은 시간외거래시간이며, 시장조성자들의 제한된 참여로 정규장 대비 호가가 비정상적으로 표시될 수 있음

***b KB 증권**

코인 거래소 ‘금융사고’ 거래 은행에 책임 안 묻는다

금융당국, 면책 기준 도입

종합검증 부담 떠안은 은행권

계좌 발급 리스크 경감 차원

자금세탁 등 무한책임 피할 듯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소와 관련해 은행들의 책임부담을 줄여주는 면책기준을 도입하고, 집중관리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일부 시중은행과 은행연합회 등은 금융위원회와 유관기관들이 꾸린 가상화폐 거래소(가상자산 사

업자) 관련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한다. TF는 5개 작업반으로 나눠 운영되는데, 은행과 은행연합회는 주로 컨설팅반, 신고 수리반 등에서 당국, 유관기관들과 함께 거래소 관리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조만간 가상화폐 거래소들을 상대로 특급법 신고 관련 보완 사항을 안내해주는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일부 시중은행도 사실상 ‘실사’와 비슷한 성격의 이 작업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은 이런 TF 등의 채널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과 관련한 여러 가지 법적 문제, 예외사항 등도 당국과

논의할 계획이다. 이미 은행권은 최우선 논의 과제로서 실명계좌 발급 후 은행의 책임 논란을 피하기 위한 ‘면책기준’의 필요성을 당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이 실사 등 검증 후 특정 가상화폐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발급해줬더라도, 고의나 과실이 없는 한 해당 거래소에서 자금세탁 등 사고가 발생해도 은행에는 책임을 묻지않기로 하는게 골자다.

면책기준이 확정되면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사실상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종합 검증’ 역할을 떠안게 된 시중은행들이 검증에 대한 ‘무한 책임’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빗썸과 코인원은 NH농협은행, 업비트는 케이뱅크, 코빗은 신한은행과 제휴를 맺고 있다. KB·하나·우리금융지주는 가상화폐 거래소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또 제휴가 유력했던 BNK부산은행도 지난주 가상화폐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발급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금융권이 가상화폐 거래소와 협약을 꺼리는 이유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실명계좌를 터줬다가 향후 금융 사고가 터지면 ‘투자자들이 은행의 검증과 은행과의 거래를 믿고 투자했으니 은행에도 책임이 있다’는 식의 논란에 휘말려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고 우

려했다.

한편, 은행 등 금융회사가 가상화폐 거래소의 금융거래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위원회 행정지도가 연말까지 연장된다. 금융위는 오는 7월 9일까지였던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의 유효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공고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가 자신의 고객이 가상화폐 취급 업소인지 확인하고, 만약 취급 업소라면 자금세탁 등의 위험이 높은 고객으로 분류해 한층 더 강화된 고객 확인 및 금융거래 모니터링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김병근 기자 nova@

“韓 가계부채 규모·증가 속도 세계 최고 수준”

한국금융硏 ‘선제적 관리’ 주장

선진국 5%P 뛴 때 28%P 급증

한국의 가계부채 규모와 증가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신용 위험도 커지고 있어 기준금리 인상과 부채 총량관리 등 대비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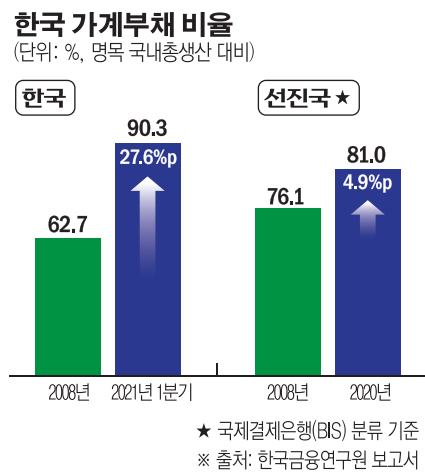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3일 ‘가계부채 리스크 현황과 선제적 관리 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한국 가계부채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규모와 증가 속도, 양 측면에서 모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9년 말 83.4%에서 올해 1분기 말 90.3%로 올랐다. 2008년 말 62.7%보다는 27.6%포인트(p) 뛰었다.

국제결제은행(BIS) 분류 기준에 따른 선진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08년 말 76.1%에서 작년 말 81.0%로 12년 새 4.9%포인트 오른 것에 비하면 증가 속도가 매우 가파르다.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인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올해 1분기 말 181.1%로 작년 1분기 말보다



18.0%포인트 올랐다. 빚을 갚는 부담이 커졌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국내 실물경기의 회복 속도가 업종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며 “통화정책 방향이 전환하거나 정부 금융지원 조치가 종료되는 시점을 전후로 취약가구와 취약업종의 신용위험이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신용위험 현실화 가능성에 대비해 충격을 최소화하는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책으로 먼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안을 제시했다.

신 연구원은 “가계부채 급증과 자산 가격 급등의 배후에는 장기간의 초저금리와

이로 인한 과잉 유동성이 존재한다”며 “정부와 한은 예상대로 4%대 실질성장률 달성이 가시권에 들어온다면 올해 하반기에 한 차례 정도 기준금리 인상이 선제적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제 전반의 위험 관리 차원에서 민간부채 전체의 총량 관리와 함께 가계부채, 부동산금융 등 특정 부문별 총량관리 목표를 설정해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업권별로는 비은행권 저축은행이나 여신전문금융회사, 대출 유형별로는 은행권 변동금리 대출과 카드론, 연령대별로는 청년층 대출 등 쏠림과 집중 위험이 높은 부분에 별도로 총량 목표를 제시하는 것도 고민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를 적용하는 기준인 ‘실수요’ 또는 ‘투기수요’ 여부를 주택 유무가 아닌 상환능력을 기준으로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인으로 떠오른 전세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에서 제외로 빠져 있어 풍선효과로 인한 수요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별도 사전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근 기자 nova@



SSANGYON

쌍용자동차 협력기업 우대보증 업무처리방법

※지원 현황은 6월 4일 기준

시행 근거	- 금융위원회 지침 - 고의·중과실을 제외한 취급자 면책 및 한시적 보증운용		
	‘신용보증규정’ 제4조 잠정조치 경영환경 변화 등 일시적인 자금난 완화 또는 긴급한 정부정책 뒷받침으로 한시적인 보증운용이 필요한 경우 이사장의 승인으로 잠정조치		
지원 대상	쌍용차 협력 중소·중견기업	총량 한도	500억 원
대상 채무	운전자금	시행 기한	2021년 12월 31일
지원 현황	공급	95억 원(15개 업체)	
	접수	25억 원(3개 업체)	

※출처: 신용보증기금

쌍용차 협력사 금융지원 저조 500억 한도에 100억만 공급

신용보증기금 신청 자체 적어

“납품 막혀 공장 못 돌리는 듯”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이 쌍용자동차의 중소·중견 협력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우대보증 지원 실적은 20%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쌍용자동차의 경영 위기가 장기화한 만큼 협력사들의 자금 지원 신청이 많을 것으로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분위기다.

10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신보는 올해 2월 3일부터 쌍용자동차 협력기업을 대상으로 우대보증 운용을 시작한 이후 현재(6월 4일 기준)까지 15개 업체에 95억 원을 공급했다. 지원 한도가 500억 원인 점을 볼 때 공급 규모는 19%에 불과하다. 심사를 진행 중인 건도 3개 업체(25억 원)뿐이다. 당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신보에 통보한 쌍용자동차 협력기업 명부에 등재된 기업이 245개라는 점을 봤을 때도 공급 규모는 미미하다.

이 프로그램은 금융위원회의 우대보증 운용 지침과 신용보증규정 잠정 조치에 따라 이뤄졌다. 신용보증규정의 잠정조치는 일시적인 자금난을 완화하거나 긴급한 정부정책의 집행을 뒷받침하고자 새로운 상품의 출시로 한시적인 보증 운용이 필요한 경우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운용할 수 있다.

신보는 우대 보증 프로그램을 통해 쌍용자동차 협력사의 보증심사 기준을 완화했

다. 최근 3개월 이내 10일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 보유 요건뿐만 아니라 심사기준일 현재 보험료 체납정보 보유 요건도 완화했다. 신용도가 취약한 기업도 영업점장이 보증 지원을 전결할 수 있도록 했다. 신보의 심사등급 가운데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좋은 K1~K2 등급인 중견기업은 선별 지원에서 제외했다. 신용등급이 더 낮은 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에서다. 신보는 중소·중견기업의 등급을 K1~K15로 구분해 관리한다. 보편적으로 보증을 공급하는 신용등급은 K5~K8이다.

이 같은 심사 기준 완화에도 협력사들이 보증 지원을 많이 신청하지 않은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쌍용차의 경영 위기가 지속하면서 협력사의 자금난도 있었을 텐데 보증 지원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것은 경영난이 훨씬 심각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다. 쌍용자동차 상거래 채권단 협의체도 정부의 지원프로그램을 개별 회사에 전달하지만 해당 회사들이 지원을 신청했는지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공장이 돌아가야 운영자금도 필요할 텐데 공장 가동률이 일정 수준 이하면 원자재를 사서 납품할 수 없는 상황이니 대출해서 이자를 낼 필요는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신보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는 신청이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신청이 들어오면 최대한 지원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금융지주 앞다퉈 ‘30% 배당’ 큰그림 그렸다

이달 배당 20% 제한 풀릴 듯

KB·우리, 수치까지 콕 찍어

신한 “최고 수준의 자본 여력”

4대 금융지주가 배당성향 20% 제한 조치가 이달 말 종료되면서 중간배당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분기 역대급 실적을 거둔데다 제한조치가 연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여기에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들이 주주환원을 언급하는 등 하반기 중간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 회장들이 배당성향 확대를 약속했다. 지난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배당성향 상승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중간배당은 오는 8월 2분기 실적 발표 전후로 예상되고 있다.

금융지주 회장들은 지난 10일 JP모건이 주관한 해외투자자 대상 온라인 기업설명회(IRR)에 참석해 배당성향에 대해 언급했다. 이날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은 “최고 수준의 자본 여력을 바탕으로 분기배당과 자사주 매입·소각 등 다양하고 신속적인 주주환원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종규 KB금융 회장도 “중장기적으로 30% 정도의 배당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시장 친화적인 주주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적극적인 주주환원책을 약속했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도 “배당성향을 2023년까지 30%까지 상향할 계획”이라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되면 보다 다양한 주주환원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나금융의 경우 2005년 창사 이래 중간배당을 매년 해왔다. 결국, 금융당국의 배당제한 조치가 끝나면 무난하게 중간배당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지주들은 지난해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 실적을 냈지만, 예년보다 낮은 배당 성향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월 ‘코로나에 따른 자본관리 권고안’을 시행하면서, 은행

과 금융지주에 배당 성향을 순이익의 20% 이내로 제한한 탓이다. 금융당국의 건전성 테스트를 통과한 신한금융만 배당 성향을 22.7%로 결정했고, KB·하나·우리금융은 20%로 축소했다. 이는 전년 대비 2.3~7%포인트(P) 감소한 수치다.

해당 조치의 효력은 오는 30일에 만료된다. 금융위는 ‘배당성향 20% 이내 제한’ 조치를 예정대로 종료할지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와 코로나19 등 사회경제적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겠지만, 주주반발이 큰 상황에서 연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지주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역대급 실적을 달성한 만큼 배당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4대 금융지주의 지난 1분기 순이익은 약 3조970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0% 가량 늘었다. 2분기도 예상 순이익도 전년보다 31% 증가한 3조5147억 원 수준이다. 김병근 기자 nova@

코로나 대출 ‘원금 상환유예’ 연말까지 연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겪은 취약계층에 대한 대출 원금 상환유예안이 올해 말까지 6개월 더 연장된다. 금융위원회와 전금융권 및 관계기관은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해 ‘취약 개인 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적용시기를 올해 말로 연장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4월에 도입된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의 신청기한은 올해 12월

말로 연장된다. 프리워크아웃 특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감소로 가계대출에 대한 상황이 곤란해 연체가 있는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프로그램이다.

프리워크아웃 특례를 통해 이미 1년간 상환유예한 채무자도 재신청이 가능하다.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원금 상환방법에 대해 채무자 요청을 최대한 감안해 상환일정을 재조정하기로 했다. 객잔산 기자 jinsan@

SK하이닉스, 초고속 D램 주도권 경쟁 ‘기선제압’

美 마이크론 등 도전장 던지자
고대역 메모리 신제품 양산 이어
‘HBM3’ 사양 선보이며 자신감



SK하이닉스가 차기 초고속 D램 제품 HBM3를 언급한 이미지. 출처 SK하이닉스 제품 소개 페이지

SK하이닉스가 초고속 D램 시장에서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한 기술 개발에 열중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신제품 양산을 시작한 데 이어, 차기 제품의 일부 예상 사양도 공개했다. 13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최근 업데이트된 SK하이닉스의 HBM(High Bandwidth Memory) 2E 제품 소개 상세페이지엔 HBM3에 대한 일부 정보가 포함됐다. SK하이닉스는 이 제품에 대해 ‘개발 중(under development)’이라고 언급하면서 핀당 5.2기가비트(Gbps) 속도를 지원하고, 정보 출입구(I/O)를 통한 전체 데이

터 처리 속도는 초당 665기가바이트(GB)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가 HBM3에 대한 제품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SK하이닉스가 양산하고 있는 ‘HBM2E’의 데이터 소화 능력은 핀당 3.6기가비트, 초당 460기가바이트다. 이 제품과 회사가 밝힌 HBM3의 예상 사양을 비교해보면 핀당 데이터 처리 속도는 1.5배가량 증가했고, 전체 데이터 처리 속도

역시 45% 가까이 늘었다. SK하이닉스가 개발 중인 제품의 정보를 일부나마 공개한 건, HBM 시장에서의 기술 주도권을 내주지 않겠다는 의미가 내포된 것으로 풀이된다. 여태까지 해당 분야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외엔 유의미한 성과를 낸 반도체 기업이 없다시피 했지만, 올해 들어 미국 마이크론이 연내 HBM 시장에 뛰어 들 것이라고 선언하는 등 경쟁자가 늘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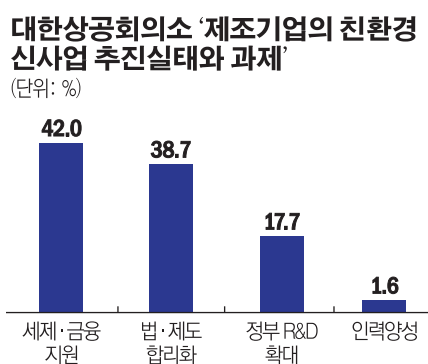


지난해 7월부터 양산 중인 ‘HBM2E’ 제품.

면서도 전송 속도를 높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단시간에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공지능(AI), 슈퍼컴퓨터, 고성능 서버 등의 분야에 주로 쓰인다. 시장에서 매출 비중이 크진 않지만, 고부가 기술이 탑재됐다는 점에서 가격 경쟁력이 높다. HBM 제품은 일반 D램보다 평균적으로 3~5배가량 가격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SK하이닉스는 2010년대 초부터 초고속 메모리 반도체 개발의 중요성을 일찍이 인지하고 빠르게 시장에 뛰어 들었다. 1세대 HBM 제품을 2014년 ‘국제고체 회로학회(ISSCC)’에서 업계 최초로 공개했고, 2017년엔 HBM2를 선보였다. 2019년 HBM2에서 일부 기능을 발전시킨 변형 규격 ‘HBM2E’ 개발을 완료해 지난해 7월부터 양산 중이다. 노وری 기자 we1228@

상의, 500대 제조기업 실태조사 “친환경 신사업 위해 세제·금융 지원 시급”

10곳 중 5곳 탄소감축 사업 추진
“제도 합리화·R&D 확대 등 필요”



최근 2050 탄소중립, ESG경영 확산 등으로 국내 주요 제조사들이 기존 주력사업을 넘어 친환경 신사업 추진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친환경 신사업 활성화를 위해선 세제·금융지원이 가장 시급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매출액 상위 500대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제조기업의 친환경 신사업 추진실태와 과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응답 기업들은 친환경 신사업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정책과제로 ‘세제·금융 지원’(42.0%)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법·제도 합리화’(38.7%), ‘정부 R&D 확대’(17.7%), ‘인력양성’(1.6%)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제조기업에 ‘기존 사업을 넘어 새롭게 친환경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물었더니, 응답 기업의 37.7%는 친환경 신사업을 ‘추진중’(20.7%) 또는 ‘추진 계획이 있다’(17.0%)고 답했다. ‘추진계획이 없다’는 응답은 62.3%였다. 친환경 신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로 ‘2050 탄소중립, 탈(脫)플라스틱 등 국내외 환경정책 대응’(38.6%)이 가장 많았고, ‘ESG경영 실천’(27.9%), ‘새로운 사업기회 모색’(24.3%), ‘이해관계자 요구’(7.1%) 순이었다. 대한상의는 “최근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

보호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면서 “이에 대응해 실제로 적지 않은 국내 제조사들이 환경문제 해결을 신사업 아이템으로 접근하거나, 기존 주력사업을 친환경 사업으로 개편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친환경 신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은 수소·재생에너지 등 ‘탄소감축 사업’(54.0%)을 가장 많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활용·폐기물 처리 등 ‘자원순환 사업’(30.1%), ‘에너지 효율향상 사업’(28.3%), ‘환경오염 저감 사업’(16.8%)이 뒤를 이었다. 김녹영 대한상의지속가능경영센터장은 “정부에서 올해 상반기까지 친환경 활동의 판단기준이 되는 녹색분류체계(K-Taxonomy)를 확정하게 되면 기업의 환경 관련 신사업 투자가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며 “우리 경제 근간인 제조기업이 저탄소 경제 시대에 환경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과감한 지원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국내 소재·부품 산업 ‘대기업 쏠림’ 심화

4대 품목 생산 비중 72% 차지
현대경제연구 “교역국 다변화 등
기업규모·산업별 대안 찾아야”

소재부품산업 내 종업원 규모별 비중 추이 (단위 : %)				
구분		10~50인 미만	50~300인 미만	300인 이상
2001년	사업체 수	81.3	17.2	1.5
	종업원 수	35	36.1	28.9
	부가가치액	18.5	30.3	51.1
	생산액	18.3	32	49.7
2018년	사업체 수	79.9	17.8	2.3
	종업원 수	32.8	34.5	32.7
	부가가치액	15.1	23.6	61.3
	생산액	16.6	28.4	55

※출처: 소재부품종합정보망, 통계청 통계를 이용·작성.

국내 소재·부품산업에서 대기업 쏠림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업 규모별·산업별 쏠림현상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현대경제연구원은 ‘국내 소재·부품산업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년 동안 국내 소재·부품 사업체 수는 2001년 약 2만2000개에서 2018년 약 2만6000개로, 종업원 수는 약 106만3000명에서 약 131만8000명까지 증가했다. 생산액은 약 229조6000억 원에서 지난해 707조1000억 원으로, 부가가치액은 약 90조5000억 원에서 약 297조6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이 기간에 대기업 위주의 쏠림 현상은 더욱 심해졌다. 실제로 소재·부품 사업에서 300인 이상 기업의 생산액 비중은 2001년 49.7%에서 2018년 55.0%로 5.3%포인트 상승했다. 부가가치 비중도 2001년 51.1%에서

2018년 61.3%로 10.2%포인트 올랐다. 산업별 쏠림 현상도 뚜렷했다. 2018년 기준 생산액 비중은 전자부품(28.6%), 1차 금속제품(15.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13.9%), 수송기계부품(13.3%) 등 4대 품목이 71.5%를 차지했다. 부가가치액은 전자부품(42.8%),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10.8%), 수송기계부품(10.3%) 등 3대 품목에 63.8%가 몰리는 등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했다. 2001~2018년 연평균 증가율을 기준으로 보면 생산액 증가 속도는 정밀기기 부품, 금속가공 제품, 전자부품 순으로 높았다. 부가가치액 증가세는 전자부품, 정밀기기부품, 금속가공제품 순으로 나타났다. 금속가공제품, 전기장비부품, 전자

부품, 정밀기기부품, 수송 기계부품 등 5개 산업은 종업원 300인 이상 업체의 생산액과 부가가치액 증가세가 가장 높았다. 연구원은 “국내 소재·부품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 규모별·산업별 쏠림현상을 완화 및 해결해야 한다”라며 “핵심 경쟁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면서 산업 전반의 생태계 기반 역할이 확대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를 위해선 △소재·부품 산업 내 산업별 차세대 먹거리 발굴 육성을 통한 생산성 제고 △수요 증가를 위한 정책 불확실성 제거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는 대일본 의존도 완화를 위한 노력 △대외 환경 변화가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역국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꼽았다. 노وری 기자 we1228@

이스타항공, 오늘 본입찰... 내달 새 주인 나온다

최종 인수 후보자 21일께 결정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이스타항공 매각 작업이 순항하고 있다. 13일 이스타항공에 따르면 14일 본입찰을 진행하고, 최종 인수 후보자가 21일께 결정될 전망이다. 최종 인수 후보자가 이스타항공에 대한 정밀 실사를 1~2주간 진행하면 다음 달 초 투자 계약이 체결된다. 이스타항공 인수전에는 하림그룹과 쌍방울그룹 등 10여 곳의 기업과 사모펀드 운용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1~7일 이스타항공 예비실사를 진행했고, 현재 본입찰 참여 여부와 인수 금액을 검토 중이다. 이스타항공과 매각 주관사인 안진회계법인은 최근 인수의향자를 대상으로 면담



이스타항공 본사 사무실.

연합뉴스

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의향자들은 예비실사와 추가 관리인 면담에서 이스타항공 운항 계획과 운항 재개 절차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타항공의 부채 규모도 집중적으로 검토됐다. 이스타항공의 공익채권인 체불 임금과 퇴직금 등은 700억 원이며, 채권자

가 법원에 신고한 회생채권은 1850억 원 가량인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매각은 조건부 인수예정자가 있는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 인수 예정자를 선정한 상태에서 별도로 공개경쟁 입찰을 진행하며 입찰 무산 시 인수 예정자가 인수권을 갖는 방식이다. 이스타항공은 입찰금액의 규모, 자금 투자의 방식, 자금 조달 증빙 등의 항목을 평가해 인수자를 선정한다. 입찰 금액은 평가 항목 중 가장 배점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인수 의향자의 회사경영계획 적정성과 장기 비전을 포함한 영업계획, 종업원 고용 보장 및 승계 명시와 고용 안정 프로그램에 대한 조건 제시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정의선, 두 달 만에 미국行 ‘신사업 현장행보’

자율주행·UAM 등 현황 점검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미국 출장길에 올랐다. 정 회장은 13일 오후 김포 국제공항에서 현대차그룹 전용기편으로 출국했다. 4월에 이어 두 달 만의 미국 방문이다. 지난 출장에서 LA와 앨라배마 등 서부 지역을 둘러본 정 회장은 이번에 동부 지역 시장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이번 출장에서 자율주행과 로보틱스, UAM(도심항공교통) 등 현대차그룹의 미래 신사업 추진 상황과 계획을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동부에는 현대

차그룹이 자율주행 전문기업 애프티브와 합작해 설립한 모셔널, 지난해 12월 인수한 로봇 전문업체 보스턴 다이내믹스 본사가 있다. 모셔널은 2023년 미국에서 전기차 아이오닉5를 기반으로 한 로보택시를 선보일 예정이고, 현대차그룹은 워싱턴DC에 UAM 사업을 전담할 현지 법인 출범도 계획 중이다. 정 회장이 두 달 만에 다시 미국 출장길에 오른 건 지난달 발표한 미국 투자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차원으로도 풀이된다. 정 회장이 직접 나서 현지 투자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는 해석이다. 유창욱 기자 woogi@

〈인터넷데이터센터〉

LG유플러스, 축구장 6개 규모 ‘친환경 IDC’ 짓는다

안양 평촌 2023년 준공 목표
서버서 냉기 공급 온도 균일화
신개념 공조시스템 도입 눈길
“지열도 활용 IDC ESG 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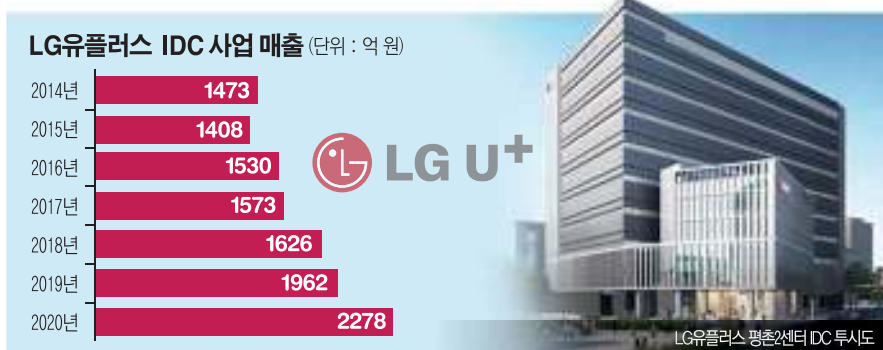
LG유플러스가 축구장 6개를 합친 규모
의 인터넷데이터센터(IDC)를 경기도 안
양시에 구축한다.

13일 LG유플러스는 2023년 3분기 준
공을 목표로 신규 IDC인 평촌2센터(가
칭) 착공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축하는 평촌2센터는 면적 4만
450㎡로 축구장 약 6개에 달하는 크기다.
지하 3층, 지상 9층, 약 10만대 이상의 서
버를 운영하는 하이퍼스케일급 규모로 수
도권 지역 7번째 IDC다.

LG유플러스가 신규 IDC를 구축하는
배경은 데이터센터 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고객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함이다.
LG유플러스 IDC는 2020년 2278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지난 5년간 연평균 약
10% 성장하고 있으며, 2021년에도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평촌2센터의 큰 특징은 고객 맞춤형 서
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먼저 설계 단
계에서도 고객사의 요청사항을 반영했다.
서버가 놓인 바닥 아래 냉기가 흐를 수 있
도록 만든 공간인 이중마루를 제거하고 서



버에 직접 냉기를 공급하는 새로운 공조시
스템을 통해 서버실 내 균일한 온도를 유
지했다. 이러한 이중마루가 없는 구조에서
는 전산실 내 작업이 편리해져 고객들의
선호도가 높다.

고객 요구사항별 다양한 전력력 제공도
가능하다. 고객 요구 및 장비특성에 맞춰
랙 당 최대 20kW까지 다양한 전력을 공급
해 고객의 확장 편의성도 높일 계획이다.

지리적 근접성도 특징점이다. 평촌2센
터는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이 쉽고, 강
남권, 가산디지털단지, 판교 디지털 밸리
등 주요지역에서 30분 이내로 이동할 수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의 평촌메가센터와
300m 거리에 있어 평촌메가센터 입주교
객들이 신규 IDC에도 입주할 경우 운영비
용과 회선비용 절감 가능한 이점이 있다.

LG유플러스는 △에너지 사용량 절감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친환경 요소
를 적용한 센터를 구축해 IDC 분야 ESG

(환경·사회·지배구조) 활동을 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에너지 사용
량을 줄이기 위해 차가운 외기를 전산실에
도입한다.

신재생 에너지 사용도 늘린다. 사무동은
지열을 활용해 냉·난방을 이용하고, 태양
광 설비와 연료전지의 신재생에너지 시스
템을 통해 IDC 전력사용량을 줄일 계획이
다. 이를 통해 약 10만 명이 1년간 소비하
는 전력인 140GWh의 에너지를 절감하
고, 6만5000톤의 탄소배출량 감축해 약
90만 그루의 소나무를 심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임장혁 LG유플러스 기반사업그룹장 상
무는 “최근 기업들의 DX 전환에 따른 고
집적 데이터센터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
고 있다”며 “1999년 국내 최초로 IDC 사업
을 시작해 20년 이상 축적한 노하우를 살
려 IDC 사업의 경쟁력을 지속해서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민 기자 aaaa3469@

“국내 CP와 해외 방송국 등 협력” 스튜디오지니, 글로벌 시장 공략

강남 신사옥 오픈하우스

아시아·유럽 현지화 전략
TV·OTT 등 다양성 장점
‘크라임퍼즐’ 10월께 공개



윤용필(왼쪽), 김철연 스튜디오지니 공동대
표가 콘텐츠 사업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 KT

KT그룹의 미디어·콘텐츠 컨트롤
타워인 스튜디오지니가 올가을 첫 오
리지널 콘텐츠를 공개한다. 스튜디오
지니는 국내 콘텐츠 제작사와의 협업을
넘어 해외 방송국 등과도 협업해
글로벌 진출까지 이뤄낼 것이라는 포
부를 밝혔다.

스튜디오지니는 11일 오후 서울 서
초구 삼성생명 본사에 마련한 신사옥
에서 오픈하우스 행사를 진행했다. 올
해 1월 출범한 스튜디오지니는 지난
달 20일 신사옥에 입주했다. 스튜디오
지니를 이끄는 윤용필, 김철연 공동
대표는 이날 향후 전략과 비전을 소상
하게 제시했다.

세간의 가장 큰 관심은 역시 오리지
널 콘텐츠다. 첫 번째 오리지널 콘텐
츠는 드라마 ‘크라임퍼즐’로 웹툰이
원작이다. 드라마 제작사인 스튜디오
329와 협업해 제작되며 윤계상, 고아
성 배우 등이 캐스팅됐다. 이르면 10
월 공개된다.

스튜디오지니만의 무기는 10년 이
상의 경험을 축적한 내로라하는 EP
(Executive Producer)들이다. △제
작 △유통사업 △경영 등 세 부분으로
나뉘 각 부분에서 책임을 지는 3명의
EP를 영입했다. 흔히 불리는 CP
(Chief Producer)가 아닌 EP라는
직함을 부여한 데 관해 김철연 대표는
“프로젝트에 대해 권한과 책임을 오너
십을 가지는 프로듀서임을 조금 더 강
조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스튜디오지니만의 콘텐츠 포트폴리
오에는 ‘다양성’에 방점이 찍혀 있다.
김 대표는 “TV 방송에서 잘 안 된 콘
텐츠가 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에서는 빵 터질 수도 있다”며
“우리가 만드는 콘텐츠는 다른 스튜디오
에 비해 다양할 것”이라고 했다.

글로벌 파트너들과의 협력도 준비하

고 있다. 김 대표는 “5월 한 달 내내 글
로벌 파트너들과 화상 미팅을 했다”며
“그쪽에서도 우리가 TV, OTT 등 (플
랫폼별) 다양성을 갖고 있다는 것에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았다”고 전했다.

해외 유통 전략에서 스튜디오지니
는 지역 미디어 플랫폼과 직접 협의를
진행 중이다. 김 대표는 “기본적으로
OTT들과 논의하고 있지만, 특정 국
가들은 방송국과도 이야기 하고 있
다”며 “동남아시아, 중국, 일본, 미주,
유럽 지역을 나눠 각기 다른 전략을
가져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일본은
캐스팅을 중요하게 보고, 동남아는 콘
텐츠 ‘장르’를 중시한다”고 부연했다.

해외 사업자와 콘텐츠 공동 투자도
검토 중이다. 김 대표는 “콘텐츠 공동
제작 논의도 동시에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신사옥을 강남에 마련한 이유도 글
로벌 진출과 무관치 않다. 김 대표는
“쇼윈도만 봐도 이곳에서는 최첨단을
걷는다는 느낌을 받는다”며 “결국 콘
텐츠라는 것은 로컬보다 글로벌로 가
야 하다 보니 트렌드를 최우선으로 고
려했다”고 말했다.

스튜디오지니는 글로벌 진출을 위
한 국내 사업자 간 협력도 검토하고 있
다. K콘텐츠가 해외 OTT에 거액으로
팔리는 상황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 윤
용필 대표는 넷플릭스의 독점 콘텐츠
인 ‘승리호’를 예로 들기도 했다.

윤 대표는 글로벌 진출의 방편으로
‘국내 사업자 간 연합’을 언급했다. 그
는 “통신 3사가 연합해 글로벌로 가면
좋은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이진민 기자 aaaa3469@

“14억 인구 인도서 ‘모두를 위한 금융’ 서비스”

인터뷰

이철원 밸런스하이어로 대표

14억 인구를 기반삼아 무한한 성장 가능
성을 가진 나라, 인도에서 ‘모두를 위한’
서비스를 꿈꾸는 한국 스타트업이 있다.
핀테크 스타트업 밸런스하이어로다.

13일 이철원(사진) 밸런스하이어로 대표
를 화상으로 만났다. 이 대표는 4월 중순
부터 인도에 체류 중이다. 코로나19 재확
산이 극심했던 시기에 입국한 셈이다. 밸
런스하이어로도 한 차례 고비를 겪었다.

이 대표는 “4월 중순에 인도로 넘어왔는
데 코로나19 확산세가 극심해졌다”며
“120명의 인도 현지 직원 중 절반가량이
코로나19에 걸렸고, 거의 모든 직원이 코
로나19로 지인을 잃었다”고 말했다. 일가
족이 감염되거나, 위급한 상황까지 간 직
원도 있었다.

이 대표가 나선 이유다. 코로나19 감염
시 복용해야 하는 약을 직접 구해 확진된
직원들에게 배송했고, 산소호흡기도 세 대
를 구비해 제공했다. 자가 검진키트도 100
여 개를 구매해 배포했다. 덕분에 코로나
19에 걸렸던 직원 대부분이 건강을 회복했
고, 추가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

백신도 제공한다. 이 대표는 “직원들을
위해 따로 여기서 백신을 구매해 무료로
접종하고, 직원 가족들에게도 할인된 가격
에 맞추려 한다”고 말했다. 직원들을 위해



‘트루밸런스’ 앱 결제·대출 제공
모바일 지갑·통신료 충전 기능도
중산층 ‘디지털 금융’ 수요 타깃

팔을 걷은 셈이다. 이 대표의 이런 행보는
‘모두를 위한 금융’이란 회사의 비전과도
맞닿아 있다.

그는 “인도에서도 일부 상위층이 아닌
10억 명의 중산층은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
하고 디지털 금융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
다”며 “이들에 온라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
해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핵심 가치”라고 설명했다.

밸런스하이어로는 애플리케이션(앱) ‘트
루밸런스’를 통해 결제, 대출, 신용등급 조
회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앱을 통해
모바일 지갑 기능과 통신료 충전, 공과금

결제부터 기차표 결제도 가능하다. 자체
개발한 머신 러닝 기반의 대안신용평가체
계(ACS)를 통해 저신용자에게 소액 대출
도 제공한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만
5000원에서 80만 원 수준이다.

왜 인도였냐는 질문에 이 대표는 △시장
의 크기 △시장의 성장 속도 △시장의 성
숙도란 세 가지 기준을 내놔다. 그는 “14억
인구 중에 11억 명이 핸드폰을 사용하고,
이 중 5억 대가량이 스마트폰”이라며 “피
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는 이들이
많고 매년 5000만 명 이상의 사용자가 늘
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도 중산층은 디지털 금융에 대
한 수요가 강하지만 아직도 현금만을 사용
하는 등 소외돼있어 이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핀테크 스타트업으로서도 인도는 매력
적인 시장이다. 이 대표는 “2년 전부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투자를 받는 핀테크
스타트업 시장이 인도”라며 “특히 개발도
상국에서 못 하던 걸 할 수 있게 되는 핀테
크 서비스의 가치는 크다”고 설명했다.

밸런스하이어로의 목표는 ‘네오뱅크’가 되
는 것이다. 대출뿐만 아니라 입출금, 결
제, 카드 등 은행의 역할까지 플랫폼을 넓
히는 것을 말한다. 이 대표는 “직원 중 하
나가 ‘인도의 GDP를 1년에 0.5%씩만 우
리 힘으로 올려보자’고 했는데, 이를 실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다원 기자 leedw@

준다.

합동단속의 주요 대상은 코로나19와 미
세먼지로 소비자 수요가 증가하는 열화상
카메라, 살균 소독기, 영상의회의 장비, 공기
청정기, 전기 마스크다. 적합성 평가 사후
관리 단계에서 부적합이 많이 발생하는 마
사지기, 엘이디(LED) 조명기기, 프로젝
터 등도 포함된다. 조남호 기자 spdran@

전파연구원, 관세청과 전자파 부적합물품 검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국립전파연구
원은 관세청과 합동으로 14일부터 30일까
지 수입물품의 전자파 적합성 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검사 한다고 13일 밝혔다.

적합성 기준은 불법·불량 방송통신기
자재 등을 수입통관 단계에서 차단해 불법

기자재로 인한 전파 혼신을 막고, 전자파
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
로, 기기가 전자파를 발생해 다른 정보통
신·전자 기기를 오작동시키거나, 다른 기
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로 해당 기기가 오
작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기술 기

“SW·AI 재밌게 체험” 온라인 코딩파티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교육부, 한국과
학창의재단과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소프
트웨어와 인공지능 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2021 온라인 코딩파티 시즌1’을 14일부
터 7월 25일까지 총 6주간 개최한다.

‘온라인 코딩파티’는 2015년부터 매년
2회씩 온라인으로 개최해오고 있는 대국
민 체험 행사다.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소
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이 만들어지는 원리
를 체험해볼 수 있도록 매년 새롭고 다양
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진행한다.

‘2021 온라인 코딩파티 시즌1’은 블록
코딩, 텍스트코딩, 컴퓨팅 사고력, 인공지
능 등 총 4개 부분으로 구성되며, 역대 온
라인 코딩파티 중 가장 많은 22개의 프로
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유명 온라인 SW·AI교육 프로그
램도 추가돼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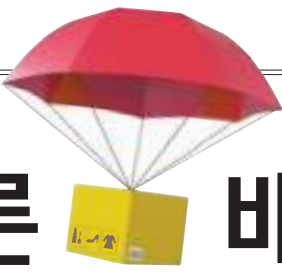
볼 수 있다.

코딩 입문자부터 숙련자까지 모든 참가
자들이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와 난
이도로 구성된 프로그램들이 새롭게 추가
됐으며, 코딩을 통해 음악·과학 등 다양
한 교과와 연결된 문제들을 해결하며 소프
트웨어와 인공지능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2021 온라인 코딩파티 시즌1’ 참가자
를 대상으로 ‘헬로우 코딩!’과 ‘스텝바이스
텝!’ 이벤트를 SW중심사회포털에서 진행
한다. 온라인 코딩파티 프로그램의 각 미
션을 완료할 때마다 발급되는 인증서를 2
개 이상 모아서 QR코드를 통해 이벤트 참
여 사이트에 접속 후 업로드하거나(헬로
우 코딩!), 온라인 코딩파티 설문조사에
응답한 참가자 중 추첨을 통해 경품을 증
정할 계획이다. 조남호 기자 spdran@

<물류 일괄 대행>

여성 패션플랫폼 ‘폴필먼트’로 빠른 배송 사할



브랜드 ‘하루배송 무료반품’

지그재그 ‘직진배송’ 론칭

제품 보관부터 관리·배송까지

호텔 물류 서비스로 속도 경쟁

여성 패션플랫폼내 배송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폴필먼트 서비스 등 빠른 배송 시스템이 패션 이커머스의 기본 인프라로 떠오르면서 여성 패션플랫폼 시장에서 배송 속도가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그재그·브랜드 등 배송 경쟁 격화 = 브랜드는 이달 말까지 ‘하루배송 무제한 무료반품’ 과격 배송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브랜드의 ‘하루배송’ 상품을 구매할 경우 주문 상품 개수 및 최소 금액 제한, 횡수 제약 없이 무제한 무료 반품이 가능하다. 브랜드는 현재 전 상품 무료 배송을 제공하고 있어 배송과 반품 전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앞서 브랜드는 ‘하루배송’을 핵심 브랜드 콘셉트로 삼았다. 하루배송은 주문 상

품을 만나질 만에 받을 수 있는 빠른 배송 서비스로 △저녁 도착 △새벽 도착 △오늘 출발로 구분해 제공한다. 이번 무료반품 서비스는 하루배송의 확장판으로, 고객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해 도입했다는 게 브랜드 측 설명이다.

브랜드 관계자는 “빠른 배송을 선호하는 소비 트렌드가 패션과 라이프스타일 상품까지 일상화되면서 ‘하루배송’이 올 상반기에만 작년 연말 대비 3배 규모로 고속 성장할 만큼 고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어 과격 서비스를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지그재그는 3월 시범 운영하던 ‘제트온리’ 서비스를 ‘직진배송’으로 재단장해 최근 공식 론칭했다. 직진배송이란 밤 9시 이전에 주문하기만 하면 다음 날 바로 옷을 배송해주는 서비스다. 직진배송 대상 품목도 종전보다 확대해 자체 제작상품뿐 아니라 동대문 사입상품까지 넓혀 국내 최대규모의 소호몰을 포함한 5000여 판매자들로 늘렸다.

◇‘폴필먼트’ 앞세우는 여성 패션플랫폼 = 여성 패션플랫폼이 빠른 배송서비스를 핵

심 경쟁력으로 앞세우는 건 이들 업체의 특수성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여성 패션플랫폼은 오픈마켓(일반인들이 베틀시장처럼 온라인에서 옷을 자유롭게 판매하는 서비스)과 다양한 패션사업자들을 최대한 끌어모아 풍부한 상품을 기반으로 고객을 확보한다. 그러다 보니 여러 벌의 옷을 주문하면 배송이 느려지는 것은 물론 한꺼번에 배송받기조차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A/S를 비롯한 고객 서비스 역시 일괄 책임지는 곳이 없어 느린 배송과 부실한 고객서비스는 여성 패션 이커머스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혀왔다.

패션 플랫폼 업체들이 폴필먼트 서비스를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워 물류와 배송경쟁력을 강조하는 이유다. 폴필먼트 서비스란 제품 보관부터 재고관리, 배송, 고객서비스 등 전만 과정을 처리하는 물류 일괄 대행 서비스를 뜻한다. 쿠팡이 자체 물류 센터를 기반으로 ‘로켓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패션플랫폼의 폴필먼트 서비스에서 취급하는 품목이면 전부 일괄

배송에 고객서비스까지 패션플랫폼이 주도적으로 책임진다.

한 업계 관계자는 “폴필먼트 서비스가 구축되면 입점 편의성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패션플랫폼이 나서서 물류전반을 ‘대행’ 해주기 때문에 셀러들을 많이 끌어모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면서 “셀러가 모일수록 소비자와 데이터가 많이 쌓여 패션플랫폼에서 폴필먼트 서비스는 놓칠 수 없는 경쟁력 포인트”라고 말했다.

◇자체 물류서비스 구축하거나 협력 =에이블리는 일찌감치 6년 전부터 폴필먼트에 투자해 자체적인 폴필먼트 시스템을 구축했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에이블리의 폴필먼트센터는 1000평 규모로 24시간 운영을 통해 사입부터 상품검수, 포장, 배송, 고객 커뮤니케이션 등 모든 단계를 도맡아 시행한다. 에이블리는 향후 폴필먼트 서비스를 동대문 도매상과 소매상을 연결하는 기존 형태에서 나아가 제조와 소매, 제조와 도매까지 연결하는 ‘체인 플랫폼’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브랜드도 자체 폴필먼트 서비스를 구축

해 일찌감치 업계 최초로 인공지능(AI) 기반의 수요예측 기술을 적용한 ‘하루배송’ 서비스를 지난해 도입했다. 브랜드는 자체 개발한 동대문 폴필먼트 통합 관리 시스템을’ 적용해 시스템을 고도화했다. 연내 폴필먼트 센터를 4000여 평 규모로 확장해 하루배송을 포함한 전체 물동량을 3배 확대할 계획이다.

지그재그는 CJ대한통운과 손을 잡고 폴필먼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로써 지그재그의 배송시간은 최대 3일 단축됐고, 밤 9시까지 주문해도 다음 날 받아볼 수 있는 직진배송이 가능해졌다.

지그재그 관계자는 “중소형 판매자들이 신상품을 직진배송으로 선보이자 판매가 더욱 늘어나는 선순환을 확인했다”라며 “물류 인프라 투자를 확대해 고객들에게 더 많은 상품을 빠르게 배송받을 수 있도록 하고, 판매자들은 배송 경쟁력을 통해 매출 상승과 충성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동대문 에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heyji@



정용진, 맥주도 쓱~

‘SSG랜더스 라거’ 올해 안 출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야구 마케팅으로 맥주를 선보인다.

신세계그룹 편의점 이마트24는 프로야구단 SSG랜더스의 이름을 딴 수입맥주 ‘SSG랜더스 라거’를 올해 안에 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마트24 관계자는 “야구 하면 맥주가 떠오르고, 특히 여름에 맥주를 찾는 야구 팬들이 많아 ‘SSG랜더스 라거’라는 이름으로 맥주 신상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이마트24는 수입맥주 업체 ‘플레 이그라운드 브루어리’와 손잡고 제품 개발을 진행 중이다.

앞서 정 부회장은 지난 10일 자신의 얼굴이 담긴 맥주 시안을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려 신세계그룹이 곧 맥주를 출시하는 것이냐며 주목을 받았다. 정 부회장은 맥주 외에 와인과 소주 시안도 게시했지만 이마트24 측은 와인과 소주 상품 출시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신세계그룹은 주류 사업에 꾸준히 관심을 보여왔다. 2008년부터 이마트가 주류 업체인 신세계엘앤비(L&B)를 설립해 와인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으며 2014년에는 외식계열사 신세계푸드가 수제 맥주 전문점 ‘데블스도어’를 오픈해 현재도 운영하고 있다. 2016년엔 이마트가 ‘제주소주’를 190억원에 인수해 새 브랜드 ‘푸른밤’을 출시했으나 ‘참이슬’, ‘처음처럼’ 등의 장벽을 넘지 못해 누적 적자가 쌓이자 올 3월 소주 사업을 중단했다.

야구단을 인수한 이후에는 이마트24가 지난달 6일 ‘최신맥주(최정·추신수·제이미 로맥·최주환)’라는 이름으로 상표권을 출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맥주사업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박미선 기자 only@

롯데百 동탄점·신세계百 대전점, 코로나 뚫고 8월 문연다

롯데 LH 특혜 논란 딛고 오픈

코로나 불안감에 마케팅 자제

8월 수년 만의 신규 점포 출점을 앞두고 롯데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이 막바지 준비 작업을 조용히 이어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여전한 만큼 대대적인 홍보를 최소화하면서 리스크를 피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백화점 업계에서 2021년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해로 평가될 만하다. 빅3(롯데·현대·신세계)의 신규 출점은 2016년 신세계 대구점 이후 5년 만이고, 3사 모두 신규 점포 출점이 있는 해이기도 하다.

올해 2월 현대백화점의 더현대 서울을 시작으로 경기도 최대 규모 백화점을 표방하는 롯데백화점 동탄점(8월), ‘대전 1등’을 노리는 신세계 대전점(8월)이 오픈을 앞두고 있다.

그럼에도 업계는 분위기는 비교적 차분하다. 우선 코로나19 확산 불안감이 여전히 백화점 입장에서 대대적인 마케팅을 실시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분석이 나온다.



롯데백화점 동탄점 조감도.

여의도 ‘더현대서울’이 오픈한 직후 입소문으로 인파가 몰리자 현대백화점이 사상 초유의 차량 2부제를 자율적으로 실시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돌발 변수도 업계를 움츠러들게 한다. 최근 롯데백화점 동탄점은 예상밖의 ‘LH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동탄 백화점 부지 입찰 과정에서 롯데건설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사업자 선정 심사에 참여한 LH본부장을 불러 조사한 것이다.

앞서 LH는 2015년 동탄2지구에 백화점 부지 사업자를 공모해 롯데건설을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했다. 당시 현



신세계 대전점 조감도.

대백화점건설사업이 롯데건설사업보다 587억 원 더 비싼 입찰가를 적어 내고도 롯데가 더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을 두고 LH의 ‘부정심사’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롯데백화점은 당초 6월 예정됐던 동탄점 오픈을 코로나19 이슈 등으로 2개월 가량 연기하며 ‘오픈 시기’를 저울질중이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동탄점 오픈이 연기되는 것이냐”는 얘기가 나왔으나 롯데백화점은 ‘특혜 논란’과 동탄점 오픈은 무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특혜 논란 관련) 조사는 LH 대상으로 진행되는 건으로 백화점과 롯데쇼핑과는 무관하다”며 “예정대로 8월 중순 이후 오픈 계획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대전점 오픈을 앞둔 신세계 역시 조용

히 마무리 작업에 한창이다. 대전신세계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온라인 채용 박람회를 열어 지역인재를 채용하고 있다. 채용 박람회에는 대전신세계를 비롯해 이마트, 신세계인터내셔널, 신세계푸드, 스타벅스코리아, 신세계L&B,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미아 등 총 8개의 신세계그룹 계열사가 참여한다. 104개 신세계파트너사와 지역 강소기업 등 총 115개사에서 모두 3000여 명을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신세계는 패션잡화부터 F&B, 식품관, 아카데미, 갤러리 등 차별화된 콘텐츠로 가득 채운 백화점을 중심으로 기존 중부권에서 만날 수 없었던 다양한 시설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명품 유치 고민은 계속되고 있다. 백화점의 이른바 ‘갑’을 결정하는 3대 명품 ‘에루샤(에르메스·루이비통·샤넬)’ 입점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신세계 관계자는 명품 입점 여부에 “MD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만 답했다. 경쟁점인 갤러리아백화점타임월드점엔 루이비통만 입점해 있는 상태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GS25, 로봇 배달 확대

편의점 GS25가 로봇 배달 서비스 도입 후 매출이 늘어나자 서비스 확대에 나섰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스마트폰으로 주문받은 상품을 인공지능(AI)이 탑재된 로봇이 직접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지난달 서울 강남구 역삼동 GS타워에 있는 GS25 점포로 확대했다고 13일 밝혔다.

로봇 배달 서비스는 지난해 말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 있는 GS25 점포에 업계 최초 론칭한 후 이번이 두 번째다.

GS25는 로봇 배달 서비스를 도입한 매장의 매출이 상승하자 관련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서비스가 도입된 GS타워 내 GS25 점포에서 5월 4일~6월 12일(40일간)까지 로봇이 수행한 실내 배달 건수는 하루 평균 22건에 달했다. 운영 기간 40일 동안 배달 건수는 누적 880건을

기록해 직전 달 같은 기간보다 50.1% 증가했다.

로봇 배달 서비스 이용 시간대는 오전 10~11시, 오후 3~4시에 각각 집중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오전 시간에는 △도시락 △빵 △샐러드 등 식사 대응 먹거리 주문이 주를 이룬 반면 오후 시간에는 △커피, △스낵, △젤리 등 식근종 등을 해소하기 위한 간식류의 주문이 가장 많았다.

GS25는 올해 고층 오피스 빌딩, 병원, 오피스텔 내 GS25 점포 등으로 실내 로봇 배달 서비스를 빠르게 확산해 갈 계획이다.

최송화 GS25 배달서비스 담당자는 “편의점 로봇 배달 서비스를 확대해 일상 속에서 로봇을 경험할 수 있는 신개념 쇼핑 환경을 고객에게 제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로봇 배달 서비스는 카카오톡 주문하기를 통해 고객이 GS25 상품을 주문할 수 있다. 최소 주문 금액은 6000원이고 일반 배달 서비스와 달리 배달료는 없다.

박미선 기자 only@



‘다이아몬드 1714개’ 한점뿐인 팔찌

13일 서울 강남구 현대백화점 무어센터점 ‘피아제(PIAGET)’ 매장에서 모델이 ‘하이주얼리 컷 브레이슬릿’을 소개하고 있다. ‘하이주얼리 컷 브레이슬릿’은 할리우드 여배우 그레이스 켈리가 1956년 모나코 왕세자와 결혼식 때 입었던 웨딩드레스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된 전 세계에서 한 점밖에 없는 팔찌다. 화이트골드 소재에 1714개(총 33.83캐럿)의 다이아몬드가 세팅된 것이 특징이다. 사진제공 현대백화점

13일 서울 강남구 현대백화점 무어센터점 ‘피아제(PIAGET)’ 매장에서 모델이 ‘하이주얼리 컷 브레이슬릿’을 소개하고 있다. ‘하이주얼리 컷 브레이슬릿’은 할리우드 여배우 그레이스 켈리가 1956년 모나코 왕세자와 결혼식 때 입었던 웨딩드레스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된 전 세계에서 한 점밖에 없는 팔찌다. 화이트골드 소재에 1714개(총 33.83캐럿)의 다이아몬드가 세팅된 것이 특징이다. 사진제공 현대백화점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 ESG
하나의 작은 실천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합니다

탄소 발자국을 지우는 모두와 함께
지속 가능한 미래를 그려갈 수 있도록
ESG의 지속적인 실천을 통해
금융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겠습니다

BIG STEP FOR TOMORROW

 QR코드를 찍어
래퍼 래인의
ESG 뮤직비디오를
감상해보세요

“코스피 2900~3700, 반도체·車·성장주 주목”

하반기 증시 전망

전문가들이 하반기 코스피가 2900~3700까지 오갈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테이퍼링 시기는 내년 초에 이뤄질 것이라 예상인 가운데 연준이 다음달 FOMC에서 관련 언급이 나올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에 증시 전문가들은 하반기에 ‘성장주’와 ‘소비재’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이투데이가 국내 주요 7개 증권사(미래에셋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메리츠증권, 하나금융투자,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센터장들은 올해 하반기 코스피 지수가 최저 2900에서 최고 3700까지 변동할 것으로 전망했다.

가장 높은밴드(3700포인트)를 제시한 윤창용 신한금융투자리서치센터장은 “글로벌 팬데믹 충격 후 통화와 재정정책 공조, 4차산업혁명 가속화, 플랫폼 기업 반사 수혜, 개인들의 증시 직접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주식시장이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며 “선진국을 시작으로 백신 보급과 함께 경제 정상화 기대까지 가세하며 강세장 분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서철수 미래에셋증권 센터장	신동준(좌) 유승창(우) KB증권 센터장	오태동 NH투자증권 센터장	윤창용 신한금융투자 센터장	이경수 메리츠증권 센터장	황승택 하나금융투자 센터장	김자산 키움증권 센터장
코스피 밴드	-	2900~3500	3500	3000~3700	3000~3500	3050~3600	3000~3500
유망 업종	소비재(자동차 포함)	미디어·엔터, 화장품·의류, 유통, 호텔·레저	IT, 자동차, 면세점, 카지노, 엔터, 소재, 산업재, 금융	반도체, 자동차 기계, 건설 등 산업재	반도체, 자동차, IT·SW	정유, 화학, 철강, 건설, 기계, 조선, 미디어, 호텔·레저, IT·하드웨어	반도체, 자동차
테이퍼링 예상 시기	4분기	7월 전후	내년 1분기	내년 초	내년 초	4분기 가이던스 제시	연말 또는 내년 초

美, 연말 또는 내년 초 ‘테이퍼링’ 실행 전후 시장 충격 거의 없을 것 연준 ‘출구전략’ 외국인 본격 유입

시장에서 관심이 뜨거운 미국 연방준비제도(FOMC) 테이퍼링 시기는 이르렀다 음달, 늦을 경우 내년 초를 예상하는 등 다양하게 전망했다. 미국 경제가 회복국면에 접어들면서 물가 압력이 재개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경수 메리츠증권 센터장은 “테이퍼

링 실행 시기는 시장 참여자 대다수가 이미 예상하는 바와 같이 내년 초로 예상한다”며 “실행 전후의 충격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테이퍼링 진행 과정에서 미국 이외 중앙은행(특히 ECB)의 급격한 완화기조 선회 가능성도 낮다”고 설명했다.

테이퍼링 시기가 생각보다 빠를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신동준, 유승창 KB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테이퍼링 시기를 7월 전후로 예상한다”며 “연준의 테이퍼링 언급이 있는 이후부터 외국인 매수세가 본격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테이퍼링 이슈

엔터·화장품·의류·여행 ‘오름세’ 음식료·통신 등 경기방어주 저조 많이 났던 ‘가치주’ 옥석가리기 필요

전후로는 추가적인 매도 압력 가능하고, 그 이후부터 외국인 자금이 신흥국 증시 및 한국 증시로 본격 유입될 것이라 전망이다.

투자자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하반기 주목해야할 종목은 ‘성장주’와 ‘반도체·자동차 관련주’가 꼽혔다. 본격적

인 실적 장세에 들어서며 시장을 주도하는 대장주들에 집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경기 회복으로 인한 수혜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들이다.

서철수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경기민감 섹터 전반에 대해 긍정적인 관점”이라며 “하반기에는 소비재 주가 모멘텀이 기대된다. 큰 범주에서는 IT 자동차도 소비재에 백신 접종률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센터장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률도 빠르게 늘고 있어 내수 소비와 관련된 업종(미디어/엔터, 화장품/의류, 유통 등)과 여행 관련 업종(호텔/레저 등)도 주목할 만 하다고 조언했다.

반면 하반기 투자에 주의해야 할 업종으로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경기민감주 중에서도 단기 수급 이슈로 주가가 지나치게 높게 형성된 ‘공급과잉 업종’이나,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실적을 유지하는 음식료·통신 등 ‘경기방어주’ 등에 대한 수요가 저조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상반기 강세 흐름을 보였던 ‘가치주’ 중에서도 옥석가리기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구성현 기자 carlove@

박기영 기자 pgy@

반도체·IT 기업 전성시대 시총 톱4 공통분모는 ‘웨어’

삼성·SK하이닉스 ‘HW’ 강자 ‘SW’ 네이버·카카오 3·4위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4개 종목의 성격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산업으로 뚜렷하게 나뉘었다. 반도체를 주력으로 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부동의 1·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네이버와 카카오가 전방위적인 사업 확장으로 3·4위 자리를 꿰찼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양대 IT기업 네이버와 카카오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3·4위를 차지했다.

지나해부터 바이오 인기몰이 흐름을 타며 3위를 노렸던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전기차 배터리업종 강세였던 LG화학은 각각 5위와 6위로 하락했다.

국내 최상위 우량주에 하드웨어 주력기업과 소프트웨어 주력 기업들의 기 싸움이 펼쳐지고 있다.

가장 두각을 보인 기업은 카카오로 하루가 멀다고 신고가를 갈아치우며 무섭게 성장하고 있다.

최근 자회사들이 줄줄이 시장 진입을 앞두는 등 개별 호재도 주가를 밀어 올렸다. 최근 카카오가 자본 40%를 보유한 카카오손해보험이 금융위원회의 보험업 영업 예비허가를 받은 점도 주가 상승동력으로 작용했다. 주력 자회사들이 잇달아 증시 데뷔를 앞둔 점도 투자 매력을 높였다.

한대훈 SK증권 연구원은 “카카오 손해보험이 연내 출범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등 주요 자회사의 기업공개(IPO)도 임박했다”며 “이들 기업의 상장이 현실화되면 기존 은행 지주를 넘어서는 기업가치를 받을 것이라 기대가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총 3위 네이버는 검색 포털사이

트 1위라는 수식어가 무색할 정도로 쇼핑 사업이 커졌다. 메리츠증권에 따르면 국내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시장점유율은 네이버17.4%, 쿠팡12.4%, 이베이11.2%, 11번가6.2%, 위메프4.3% 순이다.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전 세계 5위 수준, 소매유통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김동희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 쇼핑의 가치는 28조 원으로 평가하면 올해 예상 거래액 대비 주가매출비율(PSR) 0.7배 수준”이라며 “쿠팡의 올해 PSR 2.7배 대비 70% 할인된 수준으로 30~50%로 축소시네이버쇼핑의 가치는 46조7000억~65조3000억 원으로 상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네이버 전체 기업 가치도 103조7000억~122조3000억 원까지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각 검색 포털 사업과 모바일 메신저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다각화를 공격적으로 추진 중이다. 대표 분야에서의 시장 장악력으로 다른 영역까지 확장하는 전략이다. 글로벌 사업 기회는 떨어지지만, 내수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는 독보적이다.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확고한 점유율을 보유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성장의 결은 다르다. 주력 진출 무대가 국내에 한정되지 않고 전 세계에 뻗는다.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장기호황) 전망은 향후 성장 가능성을 높인다.

박성순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비중을 축소하는 것은 주가 상승 후반부를 포기하는 것과 다를 없다”며 “3분기 디램(DRAM) 혼합평 균판매단가(Blended ASP) 상승과 함께 실적 추정치 상향이 이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우람 기자 hura@

라임 ‘후폭풍’ 사모펀드 판매 수수료 10배 뛰어

수탁·판매사, 사모펀드와 잡음 ‘위험 부담만큼 수수료 현실화’ 신규 펀드 설정, 갈수록 감소세

수조 원대의 피해를 일으킨 라임·옵티머스 사태 이후 사모펀드 업계의 시련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사모운용사가 설정한 펀드를 맡아 판매하는 수탁사, 판매사에서 책임 부담을 이유로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거나 사실상 수탁거부하는 형태가 이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시에도 열어붙은 분위기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13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최근에도 전문사모운용사와 수탁사, 판매사 간 펀드 자산을 두고 잡음을 지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수탁, 판매 수수료가 더 올랐지만 ‘저절보단 낫다’고 판단해 기존 이익을 크게 줄여 신규 펀드를 판매하고 있다는 분위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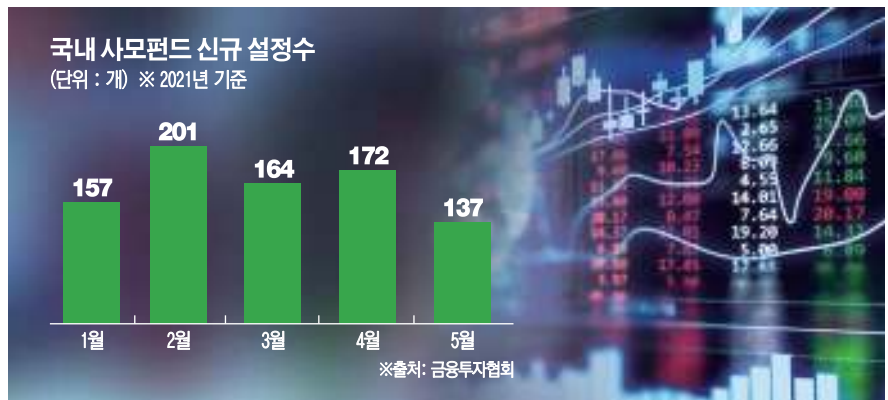
최근 부동산 관련 신규펀드를 설정하는데 수탁사 수수료 10bp, 판매사 수수료 20bp 수준의 가격이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과거 수탁사 수수료 5~7bp, 판매사 수수료가 2~3bp였던 것과 비교해 수탁 수수료는 2배 가량, 판매 수수료는 10배가량 가격이 급등했다고 전했다.

수탁사, 판매사 문턱이 높아지면서 신규 펀드설정도 급감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날까지(1월 1일~6월 10일) 신규 설정된 국내 사모펀드는 총 898개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2019년 2693개에서 2020년 991개로 급감한 후 매년 하락하는 추세로 해석된다.

판매사, 수탁사 측은 사모펀드 판매 이후 업무 책임이 늘어나 수수료가 늘어났다고 주장한다.

라임·옵티머스 사태 이후 신탁업자에 대한 감시기능 여부, 판매사 책임을 따지면



서 위험 부담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그간 수수료 구간이 너무 낮아 이를 현실화하는 과정이라고도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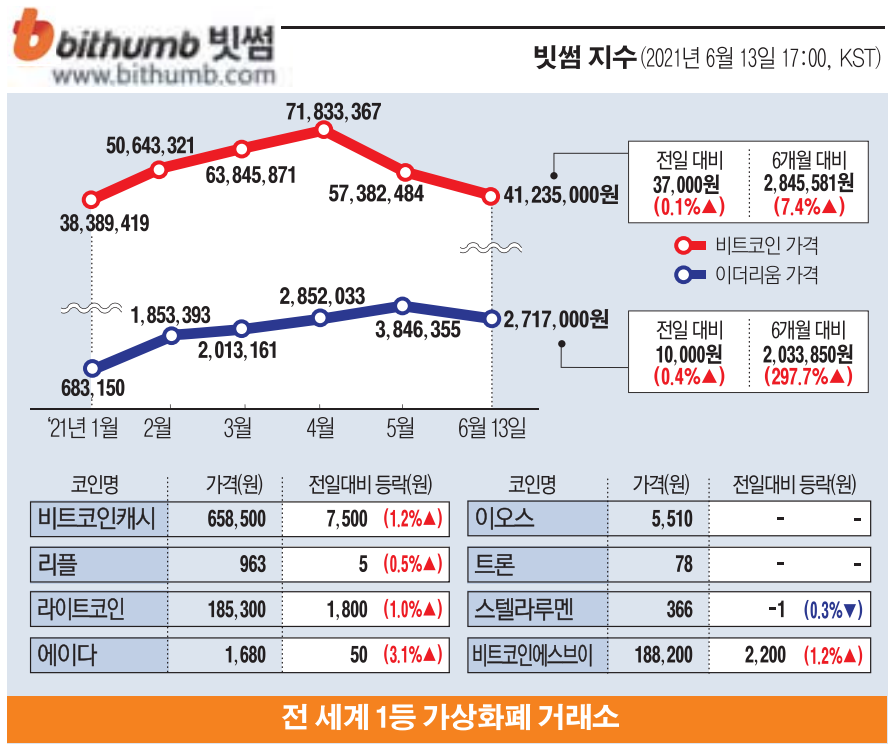
사모펀드업계가 고사하자 금융당국에서 구체적인 수탁 업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업계마다 다른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수탁사 측에서는 책임을 명문화해 펀드 수탁 업무 자체가 조심스럽다는 분위기다.

금감원, 금투협은 이달 28일부터 ‘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예정이다.

사모펀드 수탁 기관은 직접 펀드 자산

을 관리·감독하게 된다. 신탁업자의 업무 범위는 △집합투자재산 보관·관리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 이행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 환매대금 등 지급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등으로 명시됐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수탁사 책임이 지나치게 넓어져 수수료가 계속 높아질 것 같다. 펀드 판매사에 책임을 지우는 것도 운용사 입지를 좁아지게 만들고 있다”며 “신규 펀드설정이 더욱 어려워져 전문사모운용사가 살아남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인아 기자 ljh@



‘조합원 지위 양도 강화 쇼크’ 혼돈의 재건축 시장

“새 규제 발표 이후 매수 문의가 상당히 늘었다.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이 더 빨라지면 안 그래도 물권이 없어 가격이 뛰는 상계동 재건축 단지에 매수세가 더 몰릴 것 같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 A공인 관계자)

정부와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시점을 앞당기기로 하면서 지역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 일대에선 재건축 단지 매수 문의가 느는 반면 토지거래허가제에 묶여 있는 강남, 목동 재건축 대장주들은 겹규제에 거래 씨가 마를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 부동산 중계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조합원 지위 양도 시점 조기화를 발표한 뒤 상계동 일대에선 매수를 타진하는 문의가 부쩍 늘었다. 상계동 16단지에 있는 B공인 측은 “조합원 지위 양도 관련 대책은 발표했지만 정확한 기준이나 세부사항이 나오지 않아 매수 시기를 상담하는 문의가 많아졌다”며 “매수자들이 심리적으로 조급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와 서울시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지의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시점을 재건축 단지는 안전진단 통과 이후, 재개발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로 앞당겼다. 기존엔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 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됐다.

이처럼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시점을 앞당긴 것은 투기수요 유입과 가격 불안정의 싹을 사업 초기에 잘라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부가 9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을 개정하면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날부터 이 같은 규제가 적용된다.

상계동 일대에 매수 문의가 유독 몰리는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기

	현행	변경안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 이후	안전진단 통과 이후
재개발	관리처분 인가 이후	정비구역 지정 이후

‘안전진단 통과 전’ 단지 밀집지역

노원 상계동 일대 매수 문의 늘어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인 강남·목동

“겹규제에 거래 위축” 불안감 확산

안전진단 마쳐도 가격급등 뎀 규제

소급적용 놓고 ‘형평성 논란’ 제기

건 이 지역에 안전진단 통과 전인 단지가 밀집해서다. 상계주공 16개 단지만 보면 이미 재건축을 완료하고 입주한 8단지(포레나 노원)와 2018년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한 5단지를 제외하고 대부분 단지가 현재 안전진단을 추진 중이다. 6단지는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조건부 재건축)을 받고 2차 정밀안전진단(적정성 검토)을 준비 중이다. 또 노원구는 지난 4월 서울시가 압구정·목동·여의도·성수동을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을 때 규제에서 비껴가 상대적으로 거래조건이 덜 까다롭다.

허가제에 묶여 있는 압구정과 목동 일대는 대책 발표 이후 대체로 조용하다. 다만 집주인들 사이에선 이번 대책이 겹규제라는 불만이 나온다. 양천구 목동6단지 인근 C공인 관계자는 “법이 개정되면 안전진단 통과 단지들의 매도매수는 사실상 올스톱 될 것”이라며 “허가제 발효 직전 매물이 쏙 나간 뒤 거래가 많지 않은데 이번 규제까지 더해져 재산권을 행사하기가 더 힘들어지는 게

아니냐는 불만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부동산 114 여경희 수석연구원은 “시장 혼선으로 당분간 재건축 아파트의 거래가 위축될 것”이라면서 “다만 재건축 초기 단지나 조합원 지위 양도가 되는 매물은 희소성이 더 커져 강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장에서선 이번 조합원 지위 취득 시점 조기화와 관련한 혼란이 상당하다. 일단 ‘안전진단’도 예비안전진단인지 혹은 1·2차 정밀안전진단인지 시점을 명확히 적시하고 있지 않다고 공인중개소들은 입을 모았다. 시 관계자는 “안전진단을 (적정성 검토까지) 완전히 통과하는 경우”라고 명확히 했다.

특히 이번 새 규제는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에 일괄 적용하지 않고, 가격이 불안정하거나 이상 거래가 감지되는 단지 혹은 지역에 적용한다. 결국, 재건축 밀집지역 안에서 똑같이 안전진단을 통과해도 심의를 통해 조합원 지위 취득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는 이유다.

다만 시 관계자는 “이상 거래가 감지된 한 단지에 규제가 시행되는 경우 인근 단지가 함께 묶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인근 단지에서 가격이 튀어 오르는 풍선효과를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객관적 기준 없이 시·도지사가 자제적인 판단으로 규제를 적용하는 만큼 형평성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관련 법 개정 부칙에서 세부사항이 정해지겠지만 이미 안전진단이나 정비구역지정을 마쳤다고 해도 가격이 급등하면 규제로 묶일 수 있다. 소급적용 논란이 나오는 이유다. 이 경우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송파구 잠실 잠실주공5단지 등이 규제 사정권 안에 들 수 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서울 구로구 고척4구역 개요		
주소	서울 구로구 고척동 148번지	
면적	4만2200㎡	
조합원	266명	
재개발 계획	총 가구수	983가구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 2014년 정비구역 지정 - 2016년 조합설립인가 - 2021년 6월 관리처분인가
	시공사	



‘환골탈태’ 앞둔 고척동

고척4구역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983가구 ‘탈바꿈’

서울가든아파트·한효아파트 등도 재건축 사업 속도

서울 구로구 고척4구역이 재개발 사업 마지막 문턱을 넘었다. 고척동 일대는 정비사업이 줄줄이 예정된 만큼 앞으로 일대 주거 환경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고척4구역은 10일 구로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2016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후 5년 만이다. 구로구청 관계자는 “10일자로 관리처분인가가 났고 고시는 17일자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리처분인가는 정비사업의 사실상 마지막 관문에 해당한다. 이후 남은 과정은 이주·철거 작업, 착공뿐이다.

고척4구역 재개발은 구로구 고척동 148번지 일대 약 4만2200㎡ 규모로 재개발 이후 최고 25층, 10개 동, 총 983가구 규모 신축 아파트 단지로 바뀐다. 재개발 시공사는 대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맡는다. 인근 B공인 관계자는 “고척4구역을 포함한 고척동 일대는 그동안 서울 안에서 오랫동안 저평가됐었는데 재개발과 주변 아파트 재건축 등으로 앞으로 가치가 많이 오를 것”이라고 했다.

고척4구역 관리처분인가로 고척동 ‘환골탈태’는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당장 내년 10월에는 고척동 서울 남부교정시설 부지 개발을 통해 들어서는 2205가구 규모 ‘고척 아이파크’가 들어선다. 이곳에는 대규모 주거시설과 함께 고척동 주민센터와 구로세무서 등 행정시설, 쇼핑몰 등이 함께 조성된다.

또 고척4구역과 맞닿은 고척동 ‘서울가든’아파트는 재건축 사업 추진이 한창이다. 이 단지는 3월 말 예비안전

진단을 통과한 뒤 현재 1차 정밀안전진단 접수를 준비 중이다.

서울가든 재건축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해주고 있고 고척4구역 등 주변 정비사업 구역에도 가속도가 붙은 만큼 정밀안전진단을 서둘러 진행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인근 ‘한효’아파트 역시 주변 빌라와 함께 통합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한효아파트는 이미 1차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고척 아이파크와 맞닿은 고척공구상가 역시 상가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상가를 재건축하면 1000가구 규모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전망이다. 현재 추진되는 재건축 동의율 약 40%를 확보했다.

고척동 일대 재정비사업 기대감으로 인근 시세는 계속 오르고 있다. 이날 기준 서울가든아파트 전용면적 84㎡형 매도 호가(집주인이 팔기 위해 부르는 가격)는 최고 10억 원이다. 지난달 실거래 최고가는 7억8000만 원으로 한 달 만에 약 2억 원 이상 오른 셈이다. 한효아파트 역시 전용 82㎡형 기준 매도 호가는 9억 원이다. 직전 최고 실거래가는 1월 거래된 6억9000만 원으로 5개월 만에 2억1000만 원 올랐다.

인근 D공인 관계자는 “서울가든 등 주변 재건축 추진 단지는 매물도 많이 없고 간혹 나오는 것도 호가 9억 원 이상이 전부”라며 “집주인들이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기대감으로 매물을 안 내놓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금주의 분양캘린더

6월 셋째 주엔 1만2900여 가구가 분양 시장에 나온다. 올해 청약시장에서 가장 큰 대어로 꼽히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도 분양 채비를 마쳤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다음 주 18개 단지, 1만2931가구(일반분양 9415가구)가 공급된다. 래미안 원베일리와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시티오씨엘 1단지’, 경기 양주시 덕계동 ‘양주화전 A

18·21블록’ 등이 청약 신청을 받는다.

16개 단지에선 청약 당첨자를 발표한다. 인천 연수구 동춘동 ‘연수 서해그랑블 에듀파크’·중구 중산동 ‘영종국제도시 서한이다움’, 경남 거제시 상동동 ‘더샵 거제 디클리브’ 등에서 청약 당락이 갈린다.

정당계약을 진행하는 단지는 14곳이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여의도 리미티오 148’·종로구 송인동 ‘에비뉴 청계 I’, 경기 화성시 영천동 ‘동탄역 금

강펜테리움 더 시글로’ 등이 정당계약을 받는다.

7개 단지는 18일 일제히 견본주택을 개관한다. 대구 동구 용계동 ‘용계역 푸르지오 아츠베르’, 대전 중구 목동 ‘목동 모아엘가 그랑데’, 강원 춘천시 근화동 ‘춘천 파밀리에 리버파크’, 경남 창원시 양덕동 ‘창원 양덕 롯데캐슬’,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서충주신도시 월드메르디앙 엔라체’ 등이 견본주택 문을 열고 청약객을 맞는다.

날짜	구분	시	구시군	읍면동	아파트명	
6/14 (월)	접수	경기	광주시	태전동	라시에라태전 ♠	
			여주시	현암동	여주썬앤빌더시그니처1단지 ♣	
		인천	부평구	부평동	부평역해링턴플레이스 ♣	
			서구	당하동	인천검단AA5(국민임대) (~6/18)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동원시티비스타 ♣	
					서면동원시티비스타 ♠	
	발표	경남	양산시	덕계동	포레스트퀸101동	
					포레스트퀸102동	
	계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2가	여의도리미티오148 ♠ (~6/15)	
				종로구	송인동	에비뉴청계 I (~6/16)
			경기	수원시	서둔동	힐스테이트수원테라스 ♠ (~6/16)
				평택시	동삭동	더샵지제역센트럴파크 (~6/16)
				화성시	봉담읍	봉담자이리파네 (~6/18)
영천동					동탄역금강펜테리움더시글로 (~6/17)	
6/15 (화)	접수	부산	기장군	기장읍	기장역엘크루터파트 1순위	
		대구	북구	노원동1가	북구청역푸르지오에듀포레 1순위 (당해지역)	
	발표	경기	광주시	태전동	라시에라태전 ♠	
			연천군	연천읍	e편한세상연천힐스하임(1BL)	
계약	인천	중구	중산동	인천영종A67(국민임대) (~6/18)		
		경기	화성시	오산동	동탄2신도시동탄역메트로퍼스티지 ♣ (~6/17)	
6/16 (수)	접수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시티오씨엘1단지 1순위 (당해지역)	
		부산	기장군	기장읍	기장역엘크루터파트 2순위	
		대구	북구	노원동1가	북구청역푸르지오에듀포레 1순위 (기타지역)	
		경기	화성시	영천동	동탄역금강펜테리움더시글로 ♣	
	발표	인천	연수구	동춘동	연수서해그랑블에듀파크	
			대전	중구	선화동	대전해모리더센트라

날짜	구분	시	구시군	읍면동	아파트명	
6/16 (수)	계약	경기	광주시	태전동	라시에라태전 ♠ (~6/17)	
			양주시	육정동	양주육정리파밀리에(공공분양) (~6/25)	
6/17 (목)	접수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1순위 (당해지역)	
		경기	양주시	덕계동	양주화전A18(공공분양) 1순위	
					양주화전A21(공공분양) 1순위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시티오씨엘1단지 1순위 (기타지역)
	발표	대구	북구	노원동1가	북구청역푸르지오에듀포레 2순위	
		경기	여주시	현암동	여주썬앤빌더시그니처1단지 ♣	
			부평구	부평동	부평역해링턴플레이스 ♣	
				중구	중산동	영종국제도시서한이다움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동원시티비스타 ♣	
					서면동원시티비스타 ♠	
	계약	경기	평택시	통북동	평택역SK뷰(민간임대) (~6/24)	
			화성시	영천동	동탄역금강펜테리움더시글로 ♣ (~6/18)	
	6/18 (금)	접수	대구	동구	용계동	용계역푸르지오아츠베르
			대전	중구	목동	목동모아엘가그랑데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1순위 (기타지역)	
			경기	양주시	덕계동	양주화전A18(공공분양) 2순위
				양주화전A21(공공분양) 2순위		
화성시		봉담읍	봉담자이프라이드시티 1순위 (당해지역)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시티오씨엘1단지 2순위	
계약		경기	여주시	현암동	여주썬앤빌더시그니처1단지 ♣ (~6/19)	
		인천	부평구	부평동	부평역해링턴플레이스 ♣ (~6/19)	

서울 아파트 17%가 30년 초과 ‘노후화 심각’

50년 넘은 아파트도 173개 동

서울 내 노후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실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노후아파트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서울 아파트 총 2만4439동 중 사용승인일로부터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4124동으로 전체의 16.8%였다.

서울에서 30~40년 미만 아파트는 3097동, 40~50년 미만은 854동이었고, 50년이 넘은 아파트도 173동 있었다. 서울시 노후 아파트는 2016년 3391동이었으나 2020년에는 4124동으로 5년 새 21% 이상

증증했다. 특히 50년 이상 된 아파트는 2016년 17동에서 2020년 173동으로 917%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30년 넘은 아파트가 가장 많은 자치구는 노원구로 615동으로 집계됐다. 이어 송파구 453동, 양천구 449동, 강남구 416동, 서초구 309동 등이었다. 50년 넘은 아파트는 용산에 74동이 몰렸고 영등포구 31동, 중구 12동 등의 순이었다.

태 의원은 “최근 주택공급 부족 등 정책 실패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에서 서울 노후 아파트 대상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시급하다”며 “주택공급 확대 차원만이 아니라 시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동욱 기자 toto@

<1인당 최대 지원액>

청년 고용 中 小 企 到 900만 원 지원

고용노동부, 청년채용특별장려금 28일부터 접수

청년(15~34세)을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 1인당 최대 900만 원의 인건비를 주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 접수가 28일부터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지원 사업을 14일 시행 공고하고, 28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신청 접수는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서 할 수 있으며, 고용센터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가중되는 있는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작

년 12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 중소기업 사업주가 청년 채용 및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채용 근로자 1인당(최대 3명) 월 75만 원의 인건비를 최장 12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상용직) 5인 이상 중소기업 사업주다. 단 사행·유형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이달 말 종료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도 이번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기업의 전체 근로자 수(고용보

험 가입자)가 연평균 기준으로 전년보다 증가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장려금은 6개월 단위로 총 2회 지급되며, 기업은 신규 채용된 청년에 대한 6개월의 고용유지 기간을 넘긴 날의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가령 올해 1월 15일 청년을 신규 채용한 기업이 6개월간의 고용유지일(7월 14일)을 충족했다면 8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청년 일 경험 지원 사업,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중 하나라도 지원받고 있으면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애절한 광주’ 13일 오전 광주 동구청 주차장에 마련된 피해자 합동분향소에서 조문을 위해 찾아온 시민이 분향하고 있다. 지난 9일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철거 공사 중 이던 5층 건물이 무너져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를 덮쳤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공수처 이번 주 인사위… ‘尹 수사’ 입장 밝히나

김진욱 공수처장 인력충원 속도
정치 중립성 논란 등 해명할 듯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7일 검사 추가 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를 연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이 자리에서 수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수사 사건을 확장한다는 우려에 대해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사 10명을 충원하기 위한 인사위원회를 연다. 공수처는 부장검사 2명, 평검사 8명 등 총 10명이 부족해 수사 1부를 비워둔 상태다.

공수처 검사 정원은 처장, 차장 포함 25명으로 7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선별하게 된다.

앞서 공수처는 부장검사 2명, 평검사 11명 등 13명을 임명했다.

80여 일 걸린 1차 채용에서 인사위원 추천이 걸림돌이 됐던 점 등을 고려하면 2차

채용은 8월께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굵직한 사건 수사가 시작된 만큼 공수처가 인력 충원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

공수처 수사는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부당 특별채용 의혹이 1호,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2호로 입건했다.

3호는 ‘윤준현 면담보고서’ 허위작성 의혹을 받는 이규원 검사 사건, 4호는 ‘이성운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이다. 5·6호는 알려지지 않았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직권남용 사건은 7·8호로 사건번호가 부여됐다. 9호는 ‘부산 엘시티 부실 수사 의혹’이다.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수사력에 비해 많은 사건을 다루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수처는 2개 수사부가 사건을 모두 담당하고 있는데 부장검사 2명을 포함한 소속 검사 9명 중 6명이 외부 실무 교육을 받고 있다. 공수처가 실제로 수사를 본격화하기는 힘든 상황에서 과욕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검사 채용으로 인력난이 해소될지

도 불투명하다. 1차 채용 당시 공수처는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지원했다고 밝혔으나 책임자 부족으로 대통령 추천까지 이어진 인물은 정원보다 적었다.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비판도 지속해서 불거지고 있다.

특히 대권 행보가 예상되는 윤 전 총장을 수사 대상으로 삼으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파문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 처장은 침묵을 고수하고 있다. 4월 23일 이후 언론 접촉을 차단했다.

연이어 공개되는 수사 상황에 관해서도 설명이 없이 대변인실을 통해 “수사 상황에 관해 확인할 수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 처장이 인사위가 열리는 자리에서 윤 전 총장 사건 등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 해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인력 보충안과 함께 향후 수사 방향, 수사 작수 상황 등을 설명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정수천 기자 int1000@

서울시 “AI로 한강교량 투신 막는다”

투신 시도자 패턴 학습… 탐지·예측시스템 고도화

서울시가 인공지능(AI)으로 한강교량 투신시도를 찾아낸다.

서울기술연구원은 서울시소방재난본부와 협력해 데이터 기반의 ‘한강교량 맞춤형 CCTV 관제기술’을 연구개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수난구조대가 운영 중인 한강교량 투신시도 관련 탐지·예측 시스템을 고도화해 인명피해를 줄인다는 목표다.

서울기술연구원은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소방재난본부 수난구조대의 출동현황정보, CCTV 동영상, 감지센서 데이터, 투신 시도 현황정보, 신고이력 및 통화내용(문자) 등 정형·비정형 데이터 분석을 수행했다.

새로 개발한 관제기술에선 AI가 동영상 딥러닝으로 투신 시도자의 패턴을 학습해 위험상황을 탐지·예측한다. 이후 해당 지점의 CCTV 영상만을 ‘선별’해 관제요원의 모니터에 표출한다. 이를 통해 투신 전후 상황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위험상황 발생시 관제센터로 들어오는 경보의 오류도 획기적으로 줄이고 정확도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AI가 위험상황을 예측·탐지할 때 날씨나 조도 변화 같은 환경적 요인, 바람·차량 통행으로 인한 흔들림 같은 한강교량의 특성을 반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수난구조대는 여의도·반포·독섬·광나루에 위치하고 있다.

한강교량에 설치된 CCTV와 감지센서(장력, 레이저) 등을 활용한 관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매년 서울시내 한강교량에서는 평균 약 486건의 투신시도가 있으며, 투신시도 대비 생존 구조율은 96.63%에 달한다.

서울기술연구원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이번에 개발한 관제기술을 기존 관제시스템을 통합해 올해 10월 구축 예정인 ‘한강교량 통합관제센터’에 연계해 시범적용할 계획이다.

박은평 기자 pepe@

고두현의 산책자를 위한 인문 에세이

『냉면꾼은 늘 주방 앞에 앉는다』

우리 삶에 깃든 눈물과 해학, 연민과 사랑……
시인의 ‘생각 산책’ 길에 펼쳐진 이야기 잔칫상
재미있고 진솔하고 발효된 맛이 깊다!



“아, 모든 인간의 이야기에는 눈물과 해학이 있고, 연민과 사랑이 있고, 절망과 고통이 있구나. 이야기가 재미있고 진솔하고 발효된 맛이 깊어 열심히 먹다보면 내가 그 동안 성실하고 겸손한 인생을 살아왔는지 자성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살아야 내 삶 또한 진실한 인간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지 문득 깨닫는다.”

— 정호승(시인)

가뭄 대비책, 땅속 저수지 ‘지하댐’이 답이다

월별 강수량 편차 커지고 물 쉽게 증발해 지상 용수 저장 어려워
안정적 수자원 확보·연중 고른 사용·염수에 의한 오염 차단 장점

기후변화로 가뭄이 해마다 되풀이되면서 농업용수와 식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방안의 하나로 지하댐이 조명받고 있다. 월별 강수량 편차가 점차 커지고, 고온현상으로 물이 쉽게 증발하면서 기존 저수지의 저수 용량을 늘리는 방법만으로는 한계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2년 예당저수지는 극심한 가뭄에 바닥을 드러냈다. 이후 2017년에는 금강저수지도 가뭄 피해를 보았다. 2014~2015년 연평균 강수량은 평년의 절반 수준에 그치면서 강화도 내 주요 저수지가 모두 고갈되는 상황에 이르기도 했다.

실제 연간 1200~1400mm에 달하던 연간 강수량은 2014년부터 1000mm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마저도 7~8월에 집중되면서 댐이나 저수지가 마르는 일이 잦아졌다.

이 때문에 수자원 확보 방안으로 최근 지하댐이 주목받고 있다. 지하댐은 땅속에 물막이 벽을 세우고 지하수 수위를 상승시켜 대용량의 수자원을 확보하는 시설로, 일종의 땅속 저류지다. 지하댐으로 확보한

지하수는 관정이나 집수정(물을 모으는 큰 우물)을 통해 직접 활용하거나 인근의 저수지 등에 채워서 사용한다.

지하댐이 관심을 끄는 건 지하시설 특성상 물이 쉽게 증발하지 않아 연중 고르게 물을 사용할 수 있어서다. 여기에 지상댐처럼 일정 지역을 수몰할 필요가 없어 댐 건설 후에도 댐 위 토지를 이용할 수도 있다.

이 외에도 지하댐은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지하댐은 물막이 벽을 설치해 지하수가 다른 곳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막고 지하 수위를 높여 염수에 의한 오염도 막을 수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1980년대에 극심한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경북 상주와 포항, 충남 공주, 전북 정읍에 2곳 등 5개소의 지하댐을 설치했다. 1990년대 들어 지표수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면서 관심에서 멀어졌지만, 가뭄 피해가 이어지면서 다시 지하댐이 재조명을 받게 됐다.

실제로 2017년 극심한 가뭄이 닥쳤을



한국농어촌공사의 지하수 개발 현장.

사진제공 농어촌공사

때 지하댐이 있는 충남 공주의 유구천은 바닥을 드러냈지만 주변 농경지는 땅속에 설치된 지하댐을 통해 농업용수를 공급받아 어려움을 피할 수 있었다.

농어촌공사가 농업용 지하댐이 설치된 국내 5개 지역을 조사한 결과 전체 농업용수 중 지하댐 용수 이용률은 29~44%로, 우리나라 평균 4.6%보다 높게 나타났다. 일부 지역은 가뭄이 잦은 6월에 사용하는 농업용수의 80%를 지하댐에서 공급받은 사례도 있었다.

농어촌공사가 건설한 5개 지하댐은 지표수를 확보하기 어려운 지형에 설치돼 있다. 하천 바닥으로 물이 쉽게 스며들어 저장에 힘들거나, 해안가와 가까워 지하수를 통해 바닷물이 역류할 우려가 있는 곳이 지하댐의 적지다.

경북 상주 이안지하댐은 하천 바닥으로 흘러든 물을 저장해 활용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안지하댐의 저수량은 414만㎥에 하루 계획 취수량은 2만4000㎥에 달한다. 전북 정읍 고천지하댐 역시 154만㎥의

저수량에 연간 20만㎥ 이상의 물을 농지에 공급하고, 401만㎥의 저수량을 가진 경북 포항 남송지하댐은 바닷물을 막고 연간 15만㎥의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김인식 농어촌공사 사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등 재해위험이 커지면서, 수량과 수질을 고려한 용수원 다각화는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농어촌공사가 건설 중인 속초시의 쌍천 제2지하댐은 2000년 들어 처음으로 추진되는 지하댐이다.

속초시의 주 취수원인 쌍천은 하천의 길이가 짧고 경사가 급해 물을 오래 저장하지 못하는 지형적 단점이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갈수기가 되면 취수량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해마다 물 부족을 겪어왔다.

총사업비 280억 원을 들여 올해 12월 완공되면 쌍천 일원에 하루 1만2000톤 이상의 용수를 추가로 공급해 가뭄에도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 사장은 “속초시에 안전하고 넉넉한 생활용수 공급은 물론, 농업인들이 물 걱정 없이 농사지을 수 있도록 안정적인 용수원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

모내기 대신 드론이 범씨 뿌려요

올해 봄철 모내기 풍경이 달라졌다. 사람이나 기계를 사용해 눈에 모를 심는 대신 드론이 범씨를 뿌리는 담수 직파재배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농업용 드론(농업용 무인항공기)을 활용한 벼 담수 직파재배 시범단지를 지난해보다 확대하고 새로 개발한 담수직파용 우량계통(육성 중인 단계의 식물체)을 시범 파종하고 있다.

드론 담수직파는 눈에 물을 채운 상태에서 싹이 튼 범씨를 드론으로 공중에서 바로 뿌려 재배하는 방식이다.

흔히 모내기라고 부르는 기존 이앙재배는 모판에 범씨를 뿌려 모를 기르고 모

판을 눈에 옮겨 이앙기에 심는 등 여러 차례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다.

드론 담수직파는 이 과정을 생략하면서 노동력과 비용이 크게 줄일 수 있다.

농진청은 지난해 전국 8개 지역에서 드론 담수직파 시범재배를 진행했지만 올해는 21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기준 전국 담수직파 면적은 약 1715ha로 전국 직파재배 면적의 약 12.1% 수준이다.

담수 직파 21개 지역으로 확대
‘스마트 농법’ 노동력·비용 절감

드론 담수직파 시범재배가 확대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담수직파 재배의 단점 극복을 위한 재배기술이 확립되고 농업인 고령화와 인력 감소에 따른 노동력 절감 기술에 대한 요구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담수직파는 초기 물 관리와 잡초성 벼

방제가 어렵고 수확기에 수량과 품질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강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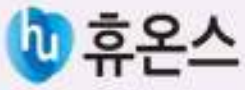
이에 농진청은 잡초성 벼를 효과적으로 방제하기 위해 범씨 파종 시기를 관행보다 최고 20일 이상 늦추고 파종량은 10a(1000㎡)당 3kg이 적당하다고 제시했다. 10a당 파종량이 3kg보다 많으면 벼 쓰러짐 현상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울러 농촌진흥청은 담수직파에 적합한 우량계통 ‘전주656호’도 개발했다.

이 품종은 입모율(범씨가 정상적인 어린 모로 자라는 비율)이 67%로 기존 담수직파 적응성 품종인 ‘동안’벼 보다 약 20% 이상 개선됐다. 또 낮은 수온에서도 싹이 잘 나와(저온 발아율 82.0%) 파종기에 발생할 수 있는 저온환경에 더욱 안정적이다.

농진청은 올해 드론 담수직파 시범재배 지역 중 충남 아산과 전북 고창에서 품종을 검증할 계획이다. 직파 후 입모율과 재배과정 중 쓰러짐에 대한 버팀성 정도를 기존 벼 품종과 비교하는 실증시험을 통해 농가의 반응을 수렴할 예정이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





갱년기엔 갱년기유산균

메노락토 프로바이오틱스

“내 안의 나를 깨워다”



갱년기 여성건강과 장건강 동시에 기능성을 인정받은 **국내 유일 소재**

2021. 2월 기준

판매사 (주)휴온스

제조사 (주)알피바이오

소비자 상담실 080-447-4700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BIG

BANG

Class가 다른 상위 0.1%를 위한 브랜드 - 뱅

고반발 클럽 설계 기술과 경량화 기술은 이미 타사와 **초격차의 기술 우위**에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1st Shot 세계 최고 고반발 드라이버 + 2nd Shot 세계 최고 고반발 우드 + 3rd Shot 세계 유일한 고반발 아이언 = **100_{yd}** 증가

PAR 5 3rd shot 까지 합계

뱅골프클럽으로

100_{yd}

더 나가도록

세계적인 프로들이

도와드립니다!

클럽구매 선택에서부터 클럽스펙수정, 필드 레슨까지

최대의 비거리를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그 골퍼에게 **최적화된 스펙의 클럽**이 필요합니다
레슨실력과 첨단 과학적 프로그램으로 스윙분석을 잘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골프 클럽 지식까지 겸비한 세계 BEST 100프로가 클럽을 만들어 드립니다

김주미 (LPGA 1승, KLPGA 3승, KLPGA대상/최우수선수상/신인상/최저타수상 4관왕, JTBC골프, SBS골프 방송), 박소영 (KLPGA 3승, 국가대표 코치)
송보배 (LPGA 1승, JLPGA 2승, KLPGA 5승, LET 1승, KLPGA대상/상금왕/신인상/최저타수상 4관왕, JTBC골프 방송), 이지영 (LPGA 1승, KLPGA 2승)
이병윤 (JTBC골프 라이브레슨, 수원여대 골프교수), 송경서 (JTBC골프 해설위원/라이브레슨 방송), 이현 (JTBC골프 라이브레슨, 경찰대/경성대 골프교수)
염동훈 (KPGA 최우수지도자상, 주니어선수/투어프로 코치 선호도1위), 장활영 (SBS골프/JTBC골프 중계, 한국골프대/가천대 골프교수), 조영란 (KLPGA 2승)
최우리 (KLPGA 1승, KLPGA 최우수선수상, SBS골프/MBC 방송), 허석호 (KPGA 2승, JGTO 8승, KPGA대상, 골프다이제스트 선정 베스트 교습가 1위, SBS골프아카데미 방송)
문현희 (KLPGA 2승, 인하대 스포츠심리학 박사수로, SBS골프 및 JTBC레슨 방송), 신준 (미 PGA Certified Professional, JTBC 골프 레슨 방송, JTBC 골프 해설위원)
이정연 (KLPGA 1승, KLPGA 신인상, 우수선수상, 한국골프대학 교수, SBS골프 레슨방송, LPGA 9H 최저타수 28타), 이승호 (KPGA 6승, JGTO 신인상)

세계 어느 기업도 도전하지 않고 따라 하기도 힘든
최적화 기술을 실현 시키고 있습니다

- 드라이버를 100m밖에 못 보내는 분이 쉽게 스윙 할 수 있는 타사 대비 30% 더 가벼운 무게의 클럽부터 400m정타자가 사용하는 무거운 클럽까지
- 아주 부드러운 R6강도의 샤프트로 된 클럽부터 3X강도의 강한 샤프트로 된 클럽까지

999,000가지 스펙중에서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클럽을
PGA 정상급 프로가 사용하는 클럽을 제작해주는 시스템 그 이상으로 VIP 고객의 클럽을 만들어 드립니다

최적화된 뱅골프 클럽으로 100대 프로의 필드 레슨 신청 접수중 | 국내 최고 수준의 실력있는 프로,피터, 골프 클럽 전문가 모집중



“레드오션 조명시장, 블루오션으로 만들 것”

이지운 스토리트리 대표

코로나19로 내부활동 늘고 녹색에너지 맞물려 수요 커져
건축학도 출신 “언더독 상황 바뀌보자” 조명 아이템 선택

조명시장은 오랜 기간 레드오션이었다. 조명 트렌드가 LCD에서 LED로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가격 요인이 심미적 요인보다 더 주목받았고, ‘멋’의 가치가 되색 되기에 이르렀다.

변화는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두드러졌다. 외부활동이 줄어들고, 내부 활동 시간이 늘어났다. 소비자들이 공간 인테리어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며, 녹색에너지경제와 맞물려 정보통신(ICT) 분야로의 수요가 확대됐다. 스토리트리의 주력사업인 경관조명 분야도 시대적인 수요에 성장 잠재력을 키우고 있다.

이지운<사진> 스토리트리 대표이사는 13일 경기도 부천시 본사에서 한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당사는 경관조명의 ICT 기술력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기존에 스마트 가로등은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통행량에 따라 제어돼 전력 절감 효과를 기대하는 수준이었으나, 감시 및 관리에 취약한 야외환경을 지속 개선하기 위해서 종합센서와 위험정보 표출 장치 등 추가적인 기능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자사는 고속도로에 미디어패널과

라이다를 활용한 정보제공 시스템 지원사업에 참여해 연구 중”이라며 “ICT조명연구원과 함께 스마트 경관조명 제품 개발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건축공학도인 이 대표는 조명 분야와 관련한 학업, 혈연 등의 배경 없이 사업을 시작했다. 그는 조명 사업의 시작을 두고 극심한 언더독(사회적 열세) 상황에서의 고민 끝에 만나게 된 아이템이라고 설명했다. 처음 시작은 크리스마스트리 조명 제작이다. 시장 대부분은 오프라인에서 제한적 홍보로 판매되고 있었고, 경쟁이 심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경쟁업체들이 크리스마스트리에 관심을 가질 때, 디자인 경관조명 분야로 방향을 틀었다고 한다. 처음 시작은 녹록지 않았다.

이 대표는 “관공서와 대기업이 핵심 고객이다 보니 이력을 쌓는 것도, 인증을 받기도 쉽지 않은 일이었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경쟁력 있는 제품밖에 없었고, 발로 직접 뛰며 주무관 및 담당자를 설득할 수밖에 없었다”고 사업 초기를 회고했다. 그러면서 “당시 스토리트리는 상품의 개선, 고객에 대한 정의, 다양한 마케팅



방식 등 지속적인 변화와 성장을 이 악물고 추진하면서 성장을 도모했다”며 “검증된 사업의 고도화와 함께 유사 사업으로의 확장에 투자해 이를 해결했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 확장을 꿈꾸는 초기 사업가라면 기존 사업과 시너지를 내는 것에 주목하라고 조언한다. 스토리트리의 경우 초기에 주주사업이 주 매출원으로 불안정성이 높아 사업확장이 필수적이었다. 단순히 새로운 분야로의 확대가 아니라 현재 조명주사업에 사업확장을 위한 시범대로 삼았고, 이 대표는 연관사업으로 확장을 시도했다. 이로 인해 디자인, 설계, 제조, 유통까지 가능해졌고 각 사업부는 단독 매출도

내며 시너지 효과가 높았다. 그는 설비투자(CAPEX)가 끝난 부분부터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성장이 빨라졌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매년 2배 가까운 성장을 지속해 낼 수 있었다”며 “2020년 1월 부천에 있는 단독 건물로 사옥을 이전하면서 전 사업부 통합의 시너지도 커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사업이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오히려 시장을 선점하기에 적합한 기회라는 마음으로 미진했던 시장 확장에 더욱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며 “일이 적어지면서 여유가 되는 직원들은 연구소 개념으로 편입시켜 상품개발을 지속했고, 영업 부문 임직원은 아이템 확장 및 영업자료, CRM 시스템 안정화 등 활동을 통해 영업력 확대를 도모했다”고 덧붙였다.

스토리트리의 강점은 위기 극복으로 느껴졌다. 최근 가장 중요한 변화는 회사의 핵심 상품을 경관조명, 특수조명 제조 및 설치, 유통사업으로 변화시켰다는 것이다. 이 대표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해 기존 사업부 매출의 절반이 없어진 상황에서도 전년도 대비 150% 성장(2019년 30억 원, 2020년 45억 원)했다.

이 대표는 “현재 스토리트리는 디자인과 기술력이 두 가지에 매진하고 있으며 이 본질에 관한 이해와 변화만이 살길”이라며 “스토리트리가 조명시장에서 ‘혁신’이라는 단어에 가장 잘 어울리는 회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고종민 기자 kjm@

급류 속 남매 구한 마감열 당사
‘포스코히어로즈’ 선정



포스코청암재단은 물놀이 중 급류에 휩쓸린 어린 남매를 구하기 위해 강물에 뛰어 들어 생명을 구한 육군 50사단 기동대대 마감열<사진 오른쪽 두 번째> 상사를 포스코히어로즈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마갑열 상사는 지난달 23일 오후 4시께 경북 예천군에 있는 선몽대 앞 내성천에서 초등학생 남매가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가기 일보 직전인 상황에서 강물에 뛰어들어 아이들을 구조해 냈다. 이날 가족들과 나들이 중이던 마갑열 상사는 살려 달라는 아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사고지점으로 달려와 옷을 입은 채 강물에 뛰어 들었다. 강한 물살로 성인은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상황에서 두 아이를 업고 나오는 것이 불가능해 아이들을 붙잡고 한동안 물살을 버티다가 뒤쫓아온 아이들의 아버지와 다른 남성에게 남자아이를 넘긴 후 여자아이를 안고 물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남매 부모는 연락처도 알려주지 않고 떠나려는 마 상사가 군인인 것을 알게 됐고, 해당 부대에 연락해 “정말 너무나 고마운 의인이다. 현장에 많은 사람이 지켜보았고, 마 상사의 행동은 모두에게 큰 감동이 었다”고 전하면서 미담이 알려졌다.

유창욱 기자 woogi@

‘도지뱀’ 사진, 밈 NFT 경매 최고액

역대 최고가의 밈 관련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이나왔다.



가상화폐 도지코인을 상징하는 시바견의 실제 주인공 사진이 들어간 ‘도지뱀’ NFT가 경매에서 400만 달러(약 44억6600만 달러)에 팔렸다고 NBC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FT 경매 사이트 조라에 따르면 도지뱀 NFT 낙찰자 @pleasrdao는 약 400만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 이더리움 1696.9를 결제했다. 이는 밈 NFT 거래 사상 최고가다. NFT는 이더리움으로만 거래된다.

도지뱀은 8일 ‘가보스’란 시바견의 사진 소유자 사토 아쓰코에 의해 경매에 나오자마자 폭등했다. @twodollahotdoge와 @pleasrdao가 입찰 경쟁을 벌인 끝에 결국 @pleasrdao의 손에 돌아갔다.

배수경 기자 sue6870@

‘조지 플로이드’ 마지막 순간 찍은 10대 소녀 폴리처 특별상

버즈피드 ‘위구르족 인권’으로 국제보도부문, 신홍매체 첫 수상

백인 경찰관의 폭력에 숨진 조지 플로이드의 마지막 순간(사진)을 스마트폰에 담은 10대 소녀가 폴리처 특별상의 영예를 안았다.

CNN에 따르면 미국 컬럼비아대는 11일(현지시간) 우수한 보도에 주는 폴리처상을 발표하고, 2020년 5월 미국 미네소타에서 일어난 백인 경찰에 의한 흑인 폭행 사망 사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소녀(당시 17세) 다넬라 프레이저에게 특별상을 수여했다. 폴리처상 선정위원회는 프레이저가 촬영한 동영상은 흑인 차별에 항의하는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설명하고 “기자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가운데, 시민의 중요한 역할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프레이저가 담은 동영상에서 플로이드는 등 뒤로 수갑이 채워진 채 경찰관의 무

릎에 목이 눌러 얼굴이 땅바닥에 짓이겨진 채 “숨을 쉴 수 없다”고 호소하다가 결국 의식을 잃었다. 당시 현장에선 여러 명이 영상을 찍었지만, 프레이저의 영상이 가장 선명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당시 이 플로이드 사건을 보도한 미네아폴리스 지역 신문 ‘스타트리뷴’은 ‘속보 부문’을 수상했다.

최고의 영예인 ‘공익 부문’은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가 수상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팬데믹 보도를 통해 인종 문제와 경제 격차, 각국 정부의 대책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짚은 것이 평가를 받았다. ‘국제 보도 부문’은 위성 사진과 3D(3차원) 모델 등을 이용해 중국 위구르족의 인권 문제를 다룬 버즈피드가 수상했다. 신홍 매체인 버즈피드가 폴리처상을 수상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폴리처상 발표는 원래 4월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는 가운데 심사위원이 안전하게 모일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길 기다리자고 해 6월로 연기됐다.

배수경 기자 sue6870@

현대차그룹 사회공헌활동 영상
‘퀘스타 어워즈’서 동상 수상

현대자동차그룹의 사회공헌활동영상이 ‘퀘스타 어워즈(QUESTAR Awards) 2021’의 ‘지속가능성·기업의 사회적 책임’ 부문에서 동상을 받았다.

현대차그룹은 ‘보다 혁신적인 사회공헌을 위해(For More Innovative Social Contribution)’라는 제목의 사회공헌활동 영상을 통해 국내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13일 밝혔다.

퀘스타 어워즈는 매년 글로벌 기업의 영상을 평가해 시상한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지속가능성·기업의 사회적 책임’ 부문에서 금상과 은상이 없는 동상을 수상하며 독창성과 메시지 전달능력, 디자인 등을 인정받았다.

유창욱 기자 woogi@

인사

- ◆교육부 △교육회복지원과장 정원숙 △교육회복지원과 이운창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급 △장관 정책보좌관 윤희원
-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승진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장 박진서 ◇과장급 전보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장 한상미
- ◆보건복지부 ◇과장급 전보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사회보장조정과장 김기철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장기기증지원과장 노옥균
- ◆중소벤처기업부 ◇과장급 승진 △지역상권과장 장세훈
-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승진 △국제협력과장 이강수
- ◆신한라이프 ◇임원 △B2B사업그룹 부사장 임태조 △디지털혁신그룹 상무 최승환

부음

민족주의 재일 사학자 강덕상 前 교수
3·1운동과 여운형, 간토(關東)대지진 당시의 조선인 학살을 연구한 민족주의 재일사학자 강덕상(姜德相) 씨가 12일 오전 6시 30분께 일본 도쿄 요요기병원에서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제자인 이규수 히토쓰바시(一橋)대 교수 등 지인들이 전했다. 향년 90세.
1931년(호적상 1932년) 경남 함양에서 태어난 고인은 먼저 일본으로 건너간 아버지(강영원)를 따라 1934년 12월에 어머니(방귀달)와 함께 일본 도쿄로 이주했다. 와세다대 사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한 뒤 메이지대 대학원 문학연구과에서 동양사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1987년부터 히토쓰바시(一橋)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1989년 이 대학 사회학부 교수가 되면서



‘재일동포 1호 일본 국립대 교수’로 화제가 됐다.

‘방랑식객’ 요리연구가 임지호 씨
‘방랑식객’이라는 별명으로 잘 알려진 요리연구가 임지호 씨가 12일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향년 65세.
자연 요리 연구가인 고인은 40여 년간 세계 곳곳을 누비며 식자재를 찾고 요리를 만들어 ‘방랑식객’이라는 별명을 얻었으며, 2006년에는 외교통상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또 TV 프로그램 ‘잘 먹고 잘 사는 법, 식사하셨어요?’,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 등으로 시청자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갔다. 최근에는 ‘집사부일체’, ‘정글의 법칙’ 세트 편, ‘더 먹고 가’ 등에도 출연했다. 지난해 2월에는 자신의 삶과 요리에 대한 철학,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등을 10년에 걸쳐 담아



낸 박해령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밥정’으로 관객들과 만나기도 했다.
빈소는 서울원 김포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4일이다.

- ▲이원숙 씨 별세, 장상현 씨 부인상, 장준영(하이어캡스과장)·준혁(대교그룹 홍보담당 과장) 씨 모친상 = 12일, 서울 보라매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15일 오전 5시 50분, 02-836-6900
- ▲조민영 씨 별세, 권용준(한국은행 금융규제팀 팀장) 씨 장모상 = 13일,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4호실, 발인 15일 오전 9시, 02-2227-7500
- ▲김중윤 씨 별세, 김석원(한국은행 뉴욕사무소 위싱턴주재원 사무소장) 씨 부친상 = 13일, 전북 부안군 호남장례식장 2분향소, 발인 15일 오전 8시, 063-581-1004
- ▲윤명희 씨 별세, 송순철 씨 부인상, 송충식(전 현대제철 재경본부장·부사장)·옥

- 레·은주 씨 모친상, 이미원 씨 시모상, 신용선(스칼라웍스 대표) 씨 장모상 = 12일, 강원대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15일 오전 8시, 033-258-9402
- ▲김조인 씨 별세, 김여준(TBS FM ‘김여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씨 부친상, 인정옥(작가) 씨 시부상 = 12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5일 오전 5시, 02-2227-7550
- ▲장시원(전 FAG 베어링코리아 상무) 씨 별세, 장하나(연합뉴스 산업부 차장) 씨 부친상, 김병규(연합뉴스 미디어전략홍보부 차장) 씨 장인상 = 13일,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4호실, 발인 15일 오전 8시, 02-2227-7597
- ▲김판소 씨 별세, 정영숙·태진(푸르밀 근무)·미숙 씨 모친상, 문홍철(전민일보 임실 주재기자)·윤종남(세폴러코리아 근무) 씨 장모상 = 13일, 전주 삼성장례문화원 301호실, 발인 15일 오전 7시 30분, 063-247-1003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가천대 교수
전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중국은 양자 암호통신의 이용에서 미국과 일본을 훨씬 앞지르고 있다. 반면 미국은 AI 등 소프트웨어 기술에서 강하고, 일본은 제조기술에서 경쟁력이 있다. 예컨대 양자 암호통신의 장치에서 도시바와 NEC가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다. 미국과 일본이 서로의 강점을 합해 중국에 대항하는 ‘양자 동맹’ 전략은 중국을 넘어서 다른 주요국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세계 프리즘

권오용
한국가이드스타 상임이사
전 SK 사장



지난달 열린 한미정상회담은 우리 기업의 역활이 눈에 띄게 두드러졌다는 점에서 큰 차별성이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기업의 앞서가는 결정이 없었다면 오늘도 없었다”며 성공의 비결을 기업에 돌렸다.

앞서 4대 그룹은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394억 달러(약 44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계획을 발표했다.분야도 미국이 희망하는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AI) 등 첨단 분야가 모두 망라됐다. 기쁨에 넘친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최태원 SK 회장 등을 일어서게 하고 세 차례나 “썬큐”라 말하며 힘차게 박수를 쳤다. 백악관의 오찬 메뉴를 햄버거에서 크랩케이크로 바꾼 것은 기업들이었다는 얘기까지 나왔다.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기업 총수들로 구성된 경제사절단이 수행하는 관행이 생긴 것은 1981년 6월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아세안 순방이 효시였다. 이때에도 기업의 ‘앞서가는 결정’이 있었다. 아세안이라는

미중 간의 첨단기술 패권 경쟁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다. 그 초점은 양자기술이다. 이 기술은 국가경제의 경쟁력에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핵심 전략 기술로 여겨지고 있다. 미국은 여러 기술 분야에서 세계의 선두자리를 지켜왔지만 양자기술에선 중국에 자리를 내주고 있다.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이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국제협력을 관건으로 삼고 있다. 미국이 단독으로 중국을 상대하기가 버겁다는 뜻이다.

최근 들어 양자기술을 놓고 미국과 일본이 빠른 속도로 접근하고 있는 모습이 주목된다. 차세대 고속 컴퓨팅, 양자컴퓨터 등을 필두로 한 양자기술의 개발과 도입을 위해 중국에 대한 ‘공투(共闘) 태세’를 구축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4월 미일 정상회담에서의 공동연구와 인재교류 등 합의 사항을 서둘러 실행에 옮기고 있다. 동맹 관계를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미국과 일본이 손잡고 중국의 양자기술을 앞지르기 위한 ‘미일

양자 동맹’이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양자 기술은 양자역학이라고 부르는 물리학의 이론을 응용한 새로운 기술을 가리킨다. 장래의 산업경쟁력과 국가안보를 좌우하는 기술로 주목받으면서 주요국들은 수년 전부터 민관 협력 아래 기술 개발과 응용에 나서고 있다.

미일 정상회담 이후 일본의 내각부,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총무성 등과 미국의 백악관 과학기술정책국(OSTP), 에너지부, 국립과학재단(NSF) 등은 온라인을 통해 회의를 계속해왔다. 양국의 협력 발판이 된 것은 두 나라의 핵심 연구거점이다. 일본 정부는 2020년에 마련한 ‘양자기술 이노베이션 전략’에 근거해 통신·암호, 센서 등 8개의 테마로 거점을 구축해 왔다. 특히 지난 4월 이화학연구소에 산학전문가들이 모여 연구하는 ‘양자컴퓨터 연구센터’가 출범했다. 미국 정부도 2020년 약 6억 달러(약 7000억 원)를 들여 아르곤, 오크리지, 로렌스 버클리 등 5개 국립연구소에 ‘양자정보 과학연구센터’를 설

치한다고 발표했다. IBM과 마이크로소프트(MS) 등 정보기술(IT) 기업들도 참여한다.

일본 정보해석 전문기업인 밸류넥스에 따르면 1990~2020년 30년간 양자기술의 국가별 특허 건수는 모두 6176건으로 이중 중국이 3074건으로 1위를 차지하면서 1557건의 미국(2위), 750건의 일본(3위)을 압도했다. 그 뒤를 이어 한국 243건, 영국 162건, 독일 73건으로 집계됐다. 중국은 양자 암호통신의 이용에서 미국과 일본을 훨씬 앞지르고 있는 양상이다. 반면 미국은 인공지능(AI) 등 소프트웨어 기술에서 강하고, 일본은 제조기술에서 경쟁력이 있다. 예컨대 양자 암호통신의 장치에서 도시바와 NEC가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다. 미국과 일본이 서로의 강점을 합해 중국에 대항하는 ‘양자 동맹’ 전략은 중국을 넘어서 다른 주요국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3월 국가안보 가이드라인에서 “미국은 과학기술 우위를 유

지하는 데 재투자함으로써 다시 세계를 주도해 새로운 규칙과 관행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양자컴퓨팅과 AI가 경제, 군사, 고용은 물론 평등 개선 노력에도 폭넓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도 3월 초 올해부터 시작하는 제14차 5개년 계획에서 양자 기술을 중심으로 AI와 반도체를 중요 분야로 꼽으며, 연평균 7% 이상의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이런 미중 양자기술 개발 경쟁에 일본이 가세함으로써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 지난 10일부터 양자 정보통신 기술 개발과 표준화, 산업 활성화 등 정부 지원 근거를 명시한 정보통신 융합법 개정안의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한미정상회담에서 나온 양자기술 협력 후속조치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한국은 산학연 네트워크를 국가혁신시스템(NIS)의 중추로 삼아 양자기술을 포함한 글로벌 기술 경쟁에 ‘올 코리아(All Korea)’의 자세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기업의 앞서가는 노력

이름 자체가 생소했던 1979년에 이미 재계는 ‘한·아세안 경제인 클럽’을 설립해 국제무대에서 갖 부상하기 시작한 아세안과의 경제협력을 모색했다. 그리고 대통령의 순방을 수행하면서 싱가포르의 래플스시티, 말레이시아의 페낭대교, 인도네시아의 산람개발사업 등을 수주했다. 1981년에 83억 달러의 해외건설 수주가 있었다. 그런데 57건 48억 달러의 사업이 아세안 지역에서 한국 기업의 손에 담겨졌다. 당시 경제인단의 단장은 정주영 전경련 회장이었는데 삼성은 이견희 부회장이 참석했다. 국내 최대인 삼성그룹의 공식 후계자로서 이견희 부회장이 재계에 데뷔한 순간이기도 했다.

‘기업의 앞서가는 결정’은 우리 국민의 자존심이 최고조에 달했던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와도 맞물려 있다. 1995년 초 당시 최중현 전경련 회장은 도쿄 주재원이었던 필자도 모르게 비밀리에 일본 게이단렌(経団連)의 도요다 쇼이치로 회장에게 월드컵의 공동주최를 제안하고 이듬해 이를 성사시켰다. 문민정부의 출범으로 격랑에 휩싸인 한일관계의 복원을 위해서였다. 월

드컵이라는 10년짜리 공동사업을 하면서 두 나라는 문화를 교류하며 생각을 공유했다. 마침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청사진이 양국 정부에 의해 발표되기에 이르렀고, 이때의 한일 관계는 역대 어느 시점보다 좋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나라가 부도가 났던 1998년 외환위기 당시에도 기업은 앞서가는 결정을 했다. 당시 정부가 예측했던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28억 달러, 그러나 재계는 500억 달러까지 흑자가 가능하다고 봤다.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은 밖에 나가 보니 돌맹이도 수출되겠다며 재계의 노력을 결집했다. 결국 그해 416억 달러, 이듬해인 1999년에는 284억 달러의 국제수지 흑자를 일궈냈다. 국민들의 금 모으기로 생긴 달러까지 더해 2001년 우리나라는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빌린 돈을 모두 갚고 경제주권을 회복했다.

미국 비자를 취득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만큼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다. 세종로에 위치한 주한 미국 대사관 담벼락에는 침낭까지 챙겨 노숙하는 진풍경도 보였다. 대기표에 5만~10만 원의 웃돈이 얹혀져 암

거래가 될 지경이었다. 한미 재계회의의 조석래 회장은 이를 국민적 자존심의 문제로 봤다. 미국의 10대 교역국인 한국에 대한 부당한 대우라고 보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나가 있는 미국 현지의 상·하원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냈다. 그가 비자면제 프로젝트를 청원한 것은 1996년, 마침내 2008년 10월 17일 미국 정부는 비자면제 프로그램의 신규 대상국가로 우리나라를 포함시켰다. 12년 만의 성사였다. 국민들의 짓눌린 자부심을 회복시키는 데 ‘기업의 앞서가는 노력’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기업의 앞서가는 결정이 항상 옳았다는 것은 아니다. 또 모두가 성공했던 것도 아니다. 환경은 지금도 기업이 풀어야 할 커다란 사회문제이며 반(反)기업 정서도 쉽게 극복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앞에 놓인 미완의 숙한 과제는 기업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어떻게 보면 세계가 기업의 노력을 도와주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기업의 앞서가는 노력이 국익 창출이라는 뜻밖의 성과를 도출해 낸 것처럼 우리는 언제 어디선가는 분명히 그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막스 베버 명언
“책임과 권위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권위 없는 책임이란 있을 수 없으며 책임이 따르지 않는 권위도 있을 수 없다.”

독일 각지의 4개 대학에서 철학·역사학·경제학을 공부한 사회과학자. 그는 논문 ‘사회과학적 및 사회정책적 인식의 객관성’을 통해 역사적·사회적 현상에 대한 과학적 인식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의 사회과학 인식론은 역사학과에 대한 비판일 뿐 아니라,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비판이기도 해 오늘날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오늘은 그가 생을 마감한 날. 1864~1920.

☆고사성어 / 습여성성(習與性成)
배운 것을 되새겨 몸에 익히면 자동으로 행동이 되므로 천성이 된다는 말. 은(殷)나라 신하 이윤(伊尹)이 태갑(太甲) 왕에게 한 충언에서 유래했다. “그대의 불의가 습관이 되고 다시 천성이 되었으니, 도의를 따르지 않는 사람과 가까이할 수 없다[玆乃不義 習與性成 予不狎于弗順.]” 출전 서경(書經) 태갑(太甲)편.

☆시사상식 / 대차대조표 불황(balance sheet recession)
가계 빚이 많아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내놓아도 소비나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자산가격의 하락으로 기업이나 가계의 부채 부담이 커졌을 경우 경제 주체는 차입금을 최우선으로 상환하기 때문이다. 1990년대 일본의 장기 불황을 설명하는 경제학 이론에서 나왔다.

☆우리말 유래 / 짝하다
‘좋지 않은 일로 남에게 주목의 대상이 되다’란 말이다. 자신의 짐승이라는 표시로 엉덩이에 불로 달군 쇠꼬챙이 등으로 지지는 낙인(烙印)이 찍히면 평생 지워지지 않는다고 해서 나온 말이다.

☆유머 / 광고 경쟁
먹자골목에서 경쟁하는 음식점이 ‘국내서 최강 맛있는 집’이란 광고판을 걸자 옆집이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집’을 내걸었다. 하지만 가장 손님이 많은 집 광고판은. ‘이 먹자골목에서 제일 맛있는 집’
채집/정리: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기자수첩

이주혜 산업부/winjh@



늦어지는 항공업계 재편, 커지는 생존 위험

관계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화물 사업 덕분에 겨우 버티고 있으나 이는 공급 감소에 따른 화물가격 급등으로 인한 불황형 호재”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통합 일정은 불분명하다. 공정위는 최근 두 항공사의 합병 이후 항공운임 인상 가능성에 대한 연구용역 기간

을 5개월 연장했다. 기업결합심사 결과는 10월 이후에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항공업계는 운임 인상 우려는 기우일 뿐, 이 같은 이유로 기업결합심사 과정이 지연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채권단, 대한항공도 인위적인 가격 인상은 없다고 지속해서 강조해 왔다.

실제로 글로벌 항공시장은 완전경쟁시장에 가까워 일방적인 운임인상은 사실상 어려우며, 단일화된 일반 소비재의 가격 체계와는 달리 복잡한 항공권 운임체계를 고려할 때 운임인상 우려는 현실성이 없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게다가, 통상적으로 다른 국가의 경쟁 당국은 결합 대상 기업이 속한 나라의 경쟁 당국 결정을 보고 이에 상응하는 결정을 내리는 점을 고려하면 공정위 결정의 중요성은 상당하다.

항공 네트워크는 한번 무너지면 복구할 수 없다. 산업 재편이 제때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국내 항공산업이 경쟁력을 키우고 코로나19 위기 이후에도 생존, 발전할 수 있도록 거시적 관점에서 결단이 필요한 때다.

‘문재인 보유국’이 끝난 뒤

역올하게 옥살이하던 사람들을 구제하던 인권변호사로서의 의무감이 남아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요즘 문재인 대통령이 중책을 맡기는 인물들을 보면 유독 피의자 신분인 경우가 많다. 특히 법을 다루는 역할을 맡은 법조계에서 피의자들이 자주 눈에 띈다.

우선 법에 관해 국가의 컨트롤타워 역할이라 할 수 있는 박법계 법무부 장관을 보자. 박 장관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과 관련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다. 2019년 공수처 설치법 등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을 두고 여야가 물리적 충돌을 빚었을 당시 민주당 의원이었던 그가 야당 인사들을 폭행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지난해 두 차례 공판에 출석했던 그는 폭행 피고인인 상태에서 올해 1월 법무부 장관에 취임했고, 5월 말에는 재판에도 섰다. 현직 법무부 장관이 형사 피고인으로 법정에서는 것은 초유의 일이다. 박 장관은 공판에 출석하며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장관으로서 재판받는 것은 민망한 노릇”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임명자인 문 대통령은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 같다. 문 대통령은 박 장관의 공판이 열린 지 불과 며칠 뒤 야당의 반발과 여론의 비판을 무릅쓰고 김오수 검찰총장을 임명했다. 김 총장은 이른바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의 피의자다. 법무차관 때는 정치적 중립 위반, 변호사 댄 전관예우와 이해 충돌 의혹을 받고 있다. 공직에 오를 자격이 없다는 목소리가 쏟아졌지만 문 대통령은 국회 검증

데스크칼럼

정 일 한

정치경제부 부장



사한이 끝나자마자 임명했다.

3단 콤보의 피니시 블로우(권투에서 상대를 결정적으로 제압하는 마지막 강타)는 김학의 불법 출국 사건 수사외압 혐의로 기소된 이성운 서울중앙지검장을 서울고검장에 앉히는 승진 인사였다. 서울고검은 중앙지검에서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하는 상급기관이다. 최근에는 주요 사건 수사에도 직접 나서고 있다. 수사외압으로 피고인 신분이 된 이 지검장에 대해 기간 검찰 안팎에서 직무배제 요구가 많았지만, 그는 고검장으로 승진한 데다 수사 업무까지 맡게 됐다.

물론 피의자가 곧 범죄자라는 뜻은 결코 아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이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만큼, 공직을 맡지 말라는 법도 없다.

하지만 왜 하필 이들이어야만 했는지는 의문이 남는다. 능력과 경험을 고려했다지만, 수많은 법조인 중 그들에 버금가는 인물이 없었는지 섣뜻 동의하기는 어렵다.

이들의 임명이 오히려 문 대통령이 말해온 검찰개혁의 진의를 의심받게 하거나 않을지 걱정이다. 청와대 주변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들을 따로 불러 ‘검찰개혁에 관해 직접 보고해 달라’고 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피의자 3인방’이 현 정부의 불법행위 수사를 막는 방패막이가 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온다.

청와대는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의혹 가운데 하나인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을 감사하자 김오수 검찰총장을 감사위원으로 보내려고 수차례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유평머스 펀드 사기 등과 연관된 법무부 장관, 금융감독원장 등에도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이 있는 한 문재인 정부와 관련됐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들은 아마 정권이 끝날 때까지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지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중론이다. 검찰개혁의 한 축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까지 더하면 문 대통령이 퇴임 후까지 염두에 둔 안전장치를 걸어 두려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세간의 의심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결국 문 대통령이 물러난 후에야 확인이 가능할 것이다. 진짜인지 아닌지를 떠나 전직 대통령이 수사를 받고 법정에 불러 나오는 불쌍사나운 꼴은 그만 봤으면 한다. 문 대통령 취임 후 충분히 하루가 멀다 하게 파곤하고 법석였던 나라가 야나가 싶다.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든지, ‘문재인 보유국’ 시절의 일들은 제발 조용히, 그리고 신속하게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 법무부장관 이름을, 민정수석 별명을, 검찰총장 지지율을 몰랐던 시절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whan@

노트북을 열며

이재영

부동산부 차장



집들이를 위해 지인의 가족과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중이었다. 지인의 가족 중 초등학교생인 아이가 창밖을 보더니 문득 질문했다. “저 사람들은 왜 집을 지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야? 집이 많아져야 나도 나중에 커서 더 좋은 집에서 살지.” 아이의 엄마는 답했다. “집만 늘어난다고 좋은 게 아냐. 좋은 환경에서 살아야 좋은 거지. 네가 커서 결혼해 아이를 낳고 사는 데, 주변에 놀이터도 없고 동네에 차들만 엄청 많이 다닌다고 생각해 봐. 네 아이가 친구들이랑 뛰어놀 데도 없는데, 좋겠어?” 아이는 말했다. “앤지 슬플 것 같네. 그럼 저 사람들은 나 같은 애들을 위해서 집 짓지 말라는 거야?” 엄마는 아이를 바라보며 설명했다. “너희 학교 선생님도 실수한 적 있지? 알게 모르게 선생님들도 실수할 때가 있을 거야. 사람이면 다 실수는 하는 거란다. 저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처럼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선생님 같은 분들(대통령, 장관, 구청장)이 실수한 걸 바로잡자고 주장하는 거란다.”

초록 태릉을 회색빛으로 만들 이유는 없다

최근 매주 토요일 오후 서울 노원구 롯데백화점 노원점 앞에서 진행하는 태릉골프장(CC) 개발 반대 서명을 바라보며 엄마와 아이가 대화를 나눈 내용이다. 노원구 주민들은 태릉CC 개발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송북 노원구청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위해 이곳에서 서명을 받고 있다. 21일까지 서명을 받아 노원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노원구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나선 행동 하나하나가 미래 자신의 아이들에게 더 나은 터전을 만들어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 노원구의 한 주민은 기자에게 “물론 ‘내 집’이 필요해서 주택 공급을 찬성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찬성하는 사람 대다수는 집값을 올리고 싶어 안달 난 사람들”이라며 “미래 내 아이들이, 우리 후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살기 위해서는 그린벨트 해제를 막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말했다.

정부는 이런 노원구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노원구와 협의를 통해 태릉CC 개발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앞서 정부는 8·4대책에서 태릉CC를 개발해 주택 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단호한 개발 계획 추진에도 노

원구 주민들은 최근 정부과천청사 부지 개발 백지화로 희망을 얻었다. 국토교통부는 정부과천청사 부지를 개발해 4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계획을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로 4일 철회했다. 대신 과천시구 내 지족용지와 대체 부지를 통해 43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노원구 주민들은 주민 반대로 무산된 과천 사례를 바라보며 “조삼모사식 개발 철회가 아닌, 전면 철회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쉽지는 않다. 과천시가 정부과천청사 부지 개발을 전면 반대한 것과 다르게 노원구 측은 국토부와 주택 공급계획만 절반 수준으로 합의를 이끌어냈다. 태릉CC를 개발해 1만 가구를 공급하려던 계획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협의 중이다.

태릉CC 개발 반대를 외치던 한 주민의 발언이 뇌리에 깊이 박혔다. “태릉CC 그린벨트 개발은 자연 훼손이자 파괴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자동차 매연과 답답한 환경에서 살기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숨 쉬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소중한 녹지에 시멘트를 들이붓지 말고 자연 그대로 지켜주세요.”

lly0403@

사설

G7의 반중(反中) 연대, 중대 도전 직면한 한국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중국의 ‘일대일로’ (一帶一路)에 대응하는 새로운 인프라 파트너십을 구축기로 했다. 영국 콘월에서 열린 G7 회의에서 이들 나라 정상들은 글로벌 인프라 구상인 ‘더 나은 세계 재건’(Build Back Better World, B3W) 출범에 합의했다.

B3W는 저소득 국가 등의 인프라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B3W는 주요 민주주의 국가가 주도하는 파트너십”이라며, “40조 달러가 넘는 개발도상국 인프라 투자수요를 도울 것”이라고 했다. 백악관은 이 구상이 중남미와 아프리카,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괄해 기후·보건·디지털기술·성평등 등 4개 영역에 초점을 두고 높은 가치를 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G7의 중국 견제를 위한 연대다. 중국의 일대일로는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육상 실크로드, 동남아시아와 유럽·아프리카를 연결하는 해상 실크로드를 뜻한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2013년 제시한 이후, 중국은 철도·항만·고속도로 등에 대한 수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추진하면서 전 세계 100여 개국과 협력 관계를 맺고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

미국이 이에 맞서 서방 진영과 함께 반(反)중국의 글로벌 국제질서를 만들겠다는 전략임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중국의 반발과 마·중 간 갈등이 앞으로 더 격화할 수밖에 없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신장 위구르 지역의 강제노

동 등 중국의 인권 침해에 대한 비판을 공동성명에 담은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물론 G7의 다른 나라인 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캐나다·일본 등의 중국에 대한 이해관계가 각자 다르게 얽힌 상황이고 보면, 미국이 주도하는 반중 전선의 협력에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B3W의 본격적인 작동이 이뤄질지도 의문이다. 그럼에도 서방 선진국들이 중국의 패권주의가 심각한 위협이라는 공감대를 갖고 있는 건 틀림없어 보인다.

그런 점에서 이번 G7 정상회의는 국제질서 재구축이 본격화하는 출발점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이번 정상회의는 ‘G7+4’의 형식으로 개최되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호주·인도·남아프리카공화국 정상들도 함께 초청됐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미국 주도의 반중 연대에 한국의 동참이 어느 때보다 강하게 요구받는 현실을 말해 준다.

앞으로 세계 경제구도의 방향은 뚜렷하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으로만 들어질 새로운 규범이다. 미국 행정부가 최근 내놓은 반도체·배터리·희토류·바이오 분야의 글로벌 공급망 구축전략을 무엇보다 유의해야 한다. 한국 경제의 높은 대중 의존도를 감안할 때 심각한 도전이자 위협이다. 그럼에도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질서, 국가 미래를 위한 전략에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다.

미리 보는 한 주 금통위 회의록·공기업 경영평가 주목

이번 주에는 지난달 개최된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공개와 지난해 공기업의 경영실적 평가가 주목된다.

한국은행은 15일(화) 지난달 27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사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금통위는 이 회의에서 작년 7월 이후 여덟 번째 기준금리 동결을 만장일치로 결정했지만, 논의 과정에서 각 금통위원이 가계부채 증가 등 이른바 ‘금융 불균형’에 대해 어느 정도 수위의 표현으로 우려를 내비쳤는지, 기준금리 인상 준비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는지 등이 관심사다. 더구나 최근 이주열 한은 총재가 두 차례에 걸쳐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에 의사록 내용에 더 많은 시선이 쏠린다.

한은은 같은 날 ‘4월 중 통화 및 유동성’ 통계도 내놓는다. 앞서 3월 광의 통화량(M2 기준)은 3313조1000억 원으로, 전달보다 38조7000억 원(1.2%) 또 늘어 사상 최대 행진을 이어갔다. 1년 전보다는 11% 증가한 상태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쉽게 꺾이지 않는 만큼, 4월 시중 유동

성도 상당 폭 불어났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어 17일(목)에는 2020년 1분기 기업경영분석(속보) 자료가 발표된다. 상장기업 공시자료와 비상장 외부감사대상 기업 대상 표본설문조사를 바탕으로 1분기 매출·영업이익 등 기업 경영 실적의 윤곽이 드러난다.

기획재정부는 18일(금)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장의 거취와 임직원의 성과급이 달라진다. 올해의 경우 3기 신도시 투기로 국민적 공분을 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평가 결과가 주목된다.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수사·조사 결과를 반영해 과거 경영평가 결과도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해외이벤트로는 15~16일(현지시간)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가 주목된다. 연준 위원들은 이번 회의에서는 정책에 별다른 변화를 주지는 않겠지만,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테이퍼링에 대해 힌트를 줄지 관심이 다. 정리=홍석동 여론독자부장 hong@





*국내 가전 최초

UV 강력 탈취 | 저온 섬세 건조 | 제논 UVC 살균

*국내 가전 최초 : 국내 제조사 중 UVC램프(응암방전형) 적용 전기건조기(신발관리기)에 대한 안전인증 획득 기준

SAMSUNG



*연출된 이미지로 실제 제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한발앞선케어의 시작.

BESPOKE 슈드레서

가전을 나답게.